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해녀의 ‘몸’과 ‘숨’의 생태적 의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고 희 영

2023년 2월

해녀의 ‘몸’과 ‘숨’의 생태적 의미

지도교수 허 남 춘


고 희 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고희영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현 승 환  (인)

위 원 김 동 원  (인)

위 원 허 남 춘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The Ecological Meaning of 'Body' and 'Breath' of Haenyeo

Hee-Young Ko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2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Nam-Chun Heo,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3
II. 나잠(裸潛)과 해녀의 변화	6
1. 나잠 어업과 해녀의 탄생	6
2. 해녀와 물질 장비의 변천사	7
1) 물옷	7
2) 물질 도구	9
3) 물질 장비의 수용과 비수용	12
III. 물질과 해녀의 몸	29
1. 나잠 기술의 축적체인 몸	29
2. 물질과 몸의 수용 - 잠수 반사	37
3. 물질과 몸의 수용 - 수압	40
4. 물질과 몸의 수용 - 체온	43
IV. 물질과 해녀의 숨	48
1. 물숨	48
2. 숨비	60
3. 헛숨	63
V. 해녀의 ‘몸’과 ‘숨’의 생태적 의미	66
1. 숨과 바다발	66
2. 해녀의 생태적 몸	71
3. 인간과 바다의 공존	76
VI. 결론	79
<참고문헌>	81

<표 차례>

<표 1>	연구 대상과 마을 분포	5
<표 2>	고무 잠수옷 착용 실태조사	26
<표 3>	해녀 물질 장비의 등장과 사용 추정 시기.....	27
<표 4>	한국 해녀의 일회 잠수 양상	31
<표 5>	수심에 따른 잠수 시간과 잠수 빈도	31
<표 6>	잠수 시 해녀의 몸의 증상	42
<표 7>	해녀들의 물숨 표현법	58
<표 8>	해산물 채취금지 기간 및 체장.....	69
<표 9>	제주도 가파도의 수온 상승	75

<자료 차례>

<자료 1>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병담범주(屏潭泛舟)』의 해녀	8
<자료 2>	전통 물옷의 종류	9
<자료 3>	빚창의 변화	11
<자료 4>	본조갱이를 차고 있는 해녀	12
<자료 5>	제주 해녀 어업의 생산물, 기술, 어장의 추이	15
<자료 6>	「조선해통조합연합회보」의 물안경 기록	19
<자료 7>	물안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황성신문	20
<자료 8>	족세눈과 1930년대 제주 해녀	21
<자료 9>	1960년대 전통 물옷을 입고 작업하는 제주 해녀들	23
<자료 10>	해녀복 관계 회의록	24
<자료 11>	한국 해녀의 일회 잠수 양상	30
<자료 12>	한국 해녀의 총 잠수 시간과 해저 시간	32
<자료 13>	포유류 잠수 반사 (MDR) 의 과정	39
<자료 14>	제주 해녀와 일반인의 한랭 적응 능력 비교표	44
<자료 15>	한국과·일본 해녀의 연구 현장.....	45
<자료 16>	고무 잠수옷 착용 후 한국 해녀의 한랭 적응기전의 변화과정	46
<자료 17>	잠수시 해녀의 폐 기능 내 기체 분압 및 기체 농도의 변화	63
<자료 18>	해산물 체장 표식	70

Abstract

The Ecological Meaning of 'Body' and 'Breath' of Haenyeo

This study is the result of observing and analyzing the 'body' and 'breath' of Haenyeo over a long period of time.

For a long time, Haenyeo has stuck to primitive and traditional ways of working without using artificial respirators in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The only way for haenyeo to stay in the sea is to stop breathing. There are no safeguards to protect haenyeo's bodies in the open sea, where death may lurk at any time. These primitive ways of working by haenyeo are called 'Muljil: plain-diving'.

The history of haenyeo, which began in the 4th century, has overcome the rapidly changing waves of the sea through turbulent times, but haenyeo have responded conservatively to the acceptance of modern material equipment. The acceptance process of rubber diving suits, which appeared in the early 1970s, took five years, and in this process, there was a sharp conflict among haenyeo members. Even with advanced underwater equipment, why do haenyeo risk dangerous work while relying on primitive equipment?

Until now, haenyeo researches have been stud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folklore, anthropology, history, and sociology, but they have been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s of observers (outsiders), and studies that have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es (insiders) are extremely limited. This study analyzed the 'body' and 'breath' of haenyeo, the biggest foundation of 'Muljil: plain-diving' that haenyeo has adhered to. The technology of matter is distinguished from science and technology in that it is Folk Knowledge. However, Muljil, which is the body skill of haenyeo, has not been properly illuminated because it has long been disparaged by recognizing the body skill as vulgar labor. Haenyeo's body is a reservoir of 'plain-diving' technology. The skill of matter is neither hereditary nor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is the result of severe training over many years since childhood. The core of this technology is not the knowledge of the head, but the technology that the body perceive and stores.

Therefore, this study studied how the Haenyeo's "body" controls "breath" in the sea, accumulates material technology learned from the experience of "body", and transfer it to community technology. Above all, the female diver's body was viewed as a place of social, cultural, and geographical imprint, a place of production or composition, and the unique cultural product. This provides a foundation for grasping the female diver's body as a new perspective and terminology,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illuminating the female diver with physi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erspective and vocabulary. Therefore, the new approach to the "body" was presented based on the internal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haenyeo herself, the haenyeo, who has been observed and studied by external subjects.

For a long time, haenyeo have subdivided the core of their plain diving technology, "breath-holding technology" and gave various characteristics accordingly. However, it is not known to the world. Haenyeo's "breath" is an extremely personal biorhythm and has limitations that cannot be shared or transmitted to the haenyeo community because it is a private technology trained according to each individual's level of skills. Therefore, it has been accumulated only by pers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a long time. It is time to analyze the world of haenyeo's breath in detail and examine the ecological meaning behind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world of haenyeo's breath through 'water breathing', which is the most thoroughly controlled by haenyeo among haenyeo's world of breath.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ictation of total of 75 haenyeos, including 40 haenyeos in Yeonpyeong-ri, Udo-myeon, Jeju-si (Sangosu-dong, Hagosu-dong, Samyang-dong, Jeonheul-dong, and Juheung-dong, Jeju-si, and 10 haenyeos in Samdal-ri, Seongsan-eup, Seogwipo-si. The age group is the current female divers in their 30s to 80s who are actively working on materials, and the research centered on the oral tradition of about 20 female divers in Sanggun who dive into the deep sea.

In conclusion, in the haenyeo's "body" and "breath", this study fou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there is a process in which the haenyeo community continues to practice this way, even in the high-tech scientific era?" , and re-examined the ecological meaning behind it.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숨’¹⁾은 사람이나 동물이 코 또는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운. 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말한다. 들숨과 날숨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생명은 유지된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 행위가 어떤 이들에게는 역(逆)으로 작용한다.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²⁾가 그런 존재이다. 해녀들의 숨은 살기 위해 멈추는 ‘숨’이다.

해녀는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의 종사자들이다. ³⁾ 공기를 공급받으며 작업하는 잠수부 머구리⁴⁾ 혹은 스쿠버 다이버(Scuba diver)와 명확히 구분되는 이유이다. 해녀들이 바다 안에 머무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이다. 언제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해녀들의 몸을 보호해줄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해녀들의 전통적인 작업방식을 수산업 용어로는 ‘나잠(裸潛) 어업’⁵⁾이라고 하고, 해녀들은 ‘물질’⁶⁾이라고 부른다.

해녀의 ‘숨’은 나잠(裸潛)의 핵심 기술이다. 물 밖의 ‘숨’과 물속의 ‘숨’을 어떻게 통제하고 숙련하는가에 따라 해녀들의 생(生)과 사(死)가 결정된다. 숨을 오래 멈춰야 더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있기에 숨이 끊어질 무렵에서야 물 밖으로 나온다. 해녀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저승의 돈을 벌어다가 이승의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⁷⁾ 이라고 표현하거나, “칠성판⁸⁾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2.10.15.). ‘숨’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숨’으로 등장했고, 현재까지 이어진다.

2) ‘해녀’라는 호칭은 ‘잠녀(潛女)’, 혹은 ‘잠수(潛嫂)’와 혼용되어왔고, 학계의 오랜 논쟁 속에 있다. 유철인은 “‘잠녀(潛女)’ 또는 ‘잠수(潛嫂)’라는 말은 제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행위자의 통속적인 용어(folk term)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녀’라는 말은 외부자의 분석적 용어(analytic term)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다. (유철인, 『문화인류학자의 자기 민족지 제주도』, 민속원, 2021, 158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행정용어로 쓰였던 ‘해녀(Haenyeo)’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1996.

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8%B8%EA%B5%AC%EB%A6%AC>, (2022.10.15.) 개구리를 뜻하는 옛말인 ‘머구리’에서 비롯됐다는 설과 자맥질, 무허가 업자를 뜻하는 일본어 ‘潛り(もぐり)(모구리)’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5)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 : 나잠 어업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신고어업이다.

6) ‘물속에서 하는 일’을 뜻한다.

7) 해녀 사회에서 구전되는 해녀들의 말.

8)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8728&categoryId>

을 등에 지고 바다에 들어간다.”⁹⁾ 라고 은유하는 까닭이다. 천길 바닷속으로 살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해녀들의 물질은 숨의 ‘쉬’와 숨의 ‘멈춤’의 경계를 오간다. 이는 곧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해녀들은 자신들만의 내밀한 숨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 특히 물 밖에서의 ‘숨’과 물속에서의 ‘물숨’, 두 가지의 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인간 생명체로서 살기 위해 호흡하는 것이 ‘숨’이라면, 해녀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바닷속에서 참는 숨이 ‘물숨’이다. ‘물숨’은 모순적 의미를 내재한다. 말의 뜻 그대로라면 물속의 숨인데 바닷속이라는 공간은 인간이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이다. 필연적으로 해녀들은 물속으로 잠수할 때 물 밖의 숨을 멈춰야 한다. 그런데도 해녀들은 물속의 ‘물숨’을 살아있는 숨으로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왜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멈춘 숨’을 ‘쉬는 숨’으로 여기는 것인가. 해녀들은 물속의 숨이 인위적, 자발적으로 무호흡 상태로 전환했을 뿐,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다. 숨을 잠시 멈추었을 뿐, 생명은 살아있다. 그것은 비록 물속에서 멈춘 숨이지만, 언제든지 수면 밖으로 나가서 터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숨이다. 더 나아가 숨을 멈추었으나, 해녀들에게 바닷속 공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즉 적극적인 생명의 공간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물속의 ‘물숨’을 살아있는 숨으로 여기고, 때론 바닷속에 두고 온 ‘물숨’을 찾아오기도 한다.

해녀들의 몸은 나잠(裸潛) 기술의 축적체(蓄積體)이다.

물질의 기량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도, 선천적 또는 유전적 소질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을 거쳐 혹독하게 단련해온 결과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머리의 지식이 아닌 몸이 인지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해녀의 몸은 나잠 기술이 축적되는 저장고가 된다.

제주의 해녀들은 대부분 10대의 나이에 물질을 시작해서 서서히 자신의 몸을 바다에 적응하고 순응하도록 길들인다. 대체로 17~18살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한 몫의 해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해녀공동체로부터 나잠(裸潛)의 기술을 습득하며 성장한다.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하는 시기를 18세¹⁰⁾라고 잡더라도, 은퇴까지 최소 50년 이상 바다에 적응되어온 몸이라는 뜻이다. 물질의 기술은 해녀의 개인적인 물속 경험을 통해 몸에 축적되고, 해녀공동체를 통해 공유되고 전수되는 민속 지식 (Folk Knowledge)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과 구분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몸의 기술은 천박한 노동으로 인식하며 폄하

=58728,(2022.11.5.), “북두칠성을 본떠 일곱 개의 구멍이 뚫려있으며, 염습(殮襲)한 시신을 눕히기 위해 관(棺)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판.”

9) 제주 민요에 등장하는 표현.

10)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조사보고서:해녀옷 이야기」, 「구좌읍 하도리 해녀 기초 생활 설문조사」, 해녀박물관, 2012, 81쪽.

되어온 까닭에 해녀들의 몸의 기술인 물질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그로스는 “몸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리학적 각인의 장소이자 생산 혹은 구성의 장소로 간주 되어야 하고, 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문화적 산물”¹¹⁾ 이라고 보았다. 이는 그동안 생리학적, 사회, 경제적인 시각과 어휘로 해녀를 조명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어휘로서 해녀의 몸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적 주체에 의해 관찰되고 연구돼온 해녀들의 몸이 아니라, 당사자인 해녀 자신의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몸의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해녀의 몸은 재정의된다. 첫째, 해녀의 몸은 인간이 숨 쉴 수 없는 바닷속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숨을 멈추어야 살 수 있는 반어(反語)적인 몸이자, 나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의 축적체이다. 둘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몸이다. 셋째, 바다 생태계를 관찰하고 감시하며 밀접하게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매개체로서의 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리학적 몸과 경제적 수단으로의 몸, 자연과 교감하고 연결하는 몸이라는 관점으로 해녀의 몸에 담긴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해녀의 몸은 학문적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탄생한다.

수 세기 동안 제주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제주 바다는 수많은 외적 내적 변화를 겪어왔다. 조선 시대에는 해산물의 조공(朝貢)과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¹²⁾으로 부역(賦役)과 금기의 바다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잠수기가 동원돼 해산물을 싹쓸이해 가버리는 식민지의 바다였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의 격랑 속에서도 해녀들은 ‘숨’에 의존해 ‘몸’으로 위협에 대처하며 기술을 쌓는 ‘물질’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다. 해녀공동체가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방식의 실천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해녀의 ‘나잠 기술’의 기원을 추적하고, 최첨단 과학 시대가 도래하고, 첨단 수중 장비가 있음에도 해녀들은 왜 전통적인 물질과 원시적인 물질 장비에 목숨을 의지한 채, ‘나잠 어업’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해녀라는 ‘몸’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외적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해녀들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숨’과 ‘물숨’ 사이에는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생태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11) 엘리자베스 그로스, 임옥희·채세진 옮김,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꿈꾸문고, 2019, 74쪽.

12) 1629년(인조7)부터 1825년(순조 25)까지 무려 200년 가까이 제주도민이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 정책.

지금까지 제주 해녀는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관찰자(외부자)의 관점에서 서술됨으로써 해녀의 문화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당사자(내부자)의 관점에서 서술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해녀라는 ‘몸’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숨’을 통제하고 조절하는지, 몸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나잠 기술을 어떻게 몸에 축적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기술로 전수되어왔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해녀의 몸에 관한 생리학적 연구는 1960년대에 홍석기와 허만 란(Herman Rahn)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두 연구자는 한국의 해녀와 일본의 해녀인 아마(Ama)를 대상으로 잠수 양상과 호흡 기능, 순환 기능, 신장 기능과 체온조절 기능 등 생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이는 시기별로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전통적인 해녀복을 입은 해녀들을 1959년부터 1969년까지 10년 동안 연구하였고, 2단계는 1980년 이후 고무 잠수옷을 입은 현대 해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앞의 연구팀에 소속되었던 박양생이 이어받아 「한국 해녀의 잠수 생리학적 특성」 14)이라는 제목으로 해녀들이 잠수 시 발생 되는 생리학적 문제 및 잠수환경에 따른 인체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0여 년간에 걸친 이들의 연구는 해녀의 몸을 연구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해녀들의 생리학적 연구 결과를 과학 종설(scientific review)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녀의 몸을 나잠 기술의 축적체 혹은 고유한 문화적 산물이라는 존재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녀들의 ‘숨’과 ‘몸’을 통한 나잠 기술의 축적과정과 해녀 사회의 기술 공유 및 전수 과정에 대한 고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해녀의 몸이 물에 적응하는 능력과 과정, 특히 해녀들의 평균 호흡 시간과 잠수 양상을 통해 ‘숨’의 정량화를 도출하고, 전통 해녀옷과 고무 잠수옷을 입었을 때의 해녀들의 몸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박양생의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5)

해녀의 정체성인 나잠 어업의 역사와 물질 기술의 원형에 대해서는 김영돈(1999)16)과 강대원(1973)17)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해녀 연구를 집대성한 김영돈은 해녀들의 ‘물숨’을 처음으로 채록하고 정의하였다. 해녀들의 물질 도구의 변화에 대해서도 김영돈과 강대원은 장기간에 걸쳐 그 등장 시기와 역사

13) Hong SK, 『Haenyo, the diving women of Korea』, In: Rahn H, ed, 『Physiology of Breath-hold Diving and Ama of Japan』, Washington DC: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65.

14) 박양생, 『한국 해녀의 잠수 생리학적 특성』,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4.

15) 박양생 인터뷰, 2015. 6.12, 경기도 파주시 박양생의 자택.

1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6.

17) 강대원, 『해녀 연구』 개정판, 한진문화사, 1973, 36쪽.

적 배경에 대해 추적하고 연구하였다. 고광민¹⁸⁾은 한림읍 귀덕1리 사무소에서 고무 잠수옷 분쟁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잠녀복 관계 회의록’을 2004년도에 발굴하였는데 고무 잠수옷의 등장과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해녀공동체의 갈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놓음으로써 본 연구가 해녀들의 숨의 철학과 전통적 물질 작업의 생태적 의미를 추론하는 데 발판이 되었다.

지금까지 해녀들의 나잠 기술의 핵심인 ‘숨’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해녀들의 ‘숨’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체리듬이며, 개인의 기량에 따라 단련되는 사적(私的) 기술이기 때문에 해녀공동체에 공유되거나 전수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오랫동안 개인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축적되어온 실정이다. 이제는 해녀들의 숨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면의 생태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필자가 연출한 영화 <물숨>¹⁹⁾과 <물꽃의 전설>²⁰⁾의 제작과정에서 만난 제주도 우도면 연평리 (상고수동, 하고수동, 삼양동, 전흥동, 주흥동)의 해녀 40명과 제주도 제주시 도두동 해녀 25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녀 10명 등 총 75명 해녀의 구술을 토대로 삼았다.

<표 1> 연구 대상과 마을 분포

거주마을	해녀수(명)	비율(%)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40	53.3%
제주시 도두동	25	33.3%
서귀포시 삼달리	10	13.3%
합계	75	100.0%

연령대는 현재 활발하게 물질 작업을 하는 3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는 현직 해녀들이며, 깊은 바다에 잠수하는 상군 해녀 20여 명의 구술이 중심이 되었다. 새로운 증언이나, 개인적인 증언들은 다른 해녀들의 증언을 통해 교차 확인 후 작성하였다. 구술 채록의 기간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18) 고광민,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한그루, 2019, 132쪽.
 19) 고희영, 영화 『물숨』, 2016.
 20) 고희영, 영화 『물꽃의 전설』, 2022.

II. 나잠(裸潛)과 해녀의 변화

1. 나잠 어업과 해녀의 탄생

해녀의 수확물인 해조류는 해저(海底)의 지형, 조류, 기온 등의 영향을 받는다. 제주도 바다는 수심이 깊고 용암의 암반이 노출되어 난류(暖流)가 정면으로 여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해조류의 발육을 크게 돕는 동시에 유착(流着)할 장소가 많다. 따라서 천초(우뭇가사리), 미역, 감태, 툫 등의 해조류는 물론 전복, 오분자기(오분작), 소라, 홍해삼, 문어, 성게 등 다양한 해산물들이 자라는 풍부한 어장이다. 제주도 해안 일대의 독특한 지형은 어선이 닿기에 어려웠고, 암반에 열린 풍부한 해산물은 채집의 형태가 아니면 수확할 수 없기에 일찌감치 나잠 어업(裸潛漁業), 즉 해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주도 나잠 어업의 역사를 고고학적인 유물에서 찾는다면, 서기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 삼양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전복과 소라껍데기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21) 이 전복과 소라의 껍데기는 그 크기로 보아 심해 바다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잠업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캐어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해녀의 기원에 대해 김영돈은 신석기 시대 인류가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로를 행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류가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한 원시산업 시대로부터 시작된 자연발생적인 직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제주도가 해녀의 발상지라고도 주장했는데, 제주도의 옛 어른들의 구전을 근거로 제시했다. “표선면 세화리, 성산포 온평리, 조천읍 북촌리, 구좌읍 김녕리 등지에서 해녀가 발상하였으며, 이들 지역이 예로부터 물질이 유난히 성행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2) 라는 것이다.

강대원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당신화(堂神話) 가운데 「칠성(七星) 본풀이」에서 해녀의 기원을 찾는다. “「칠성사신(七星蛇神)」과 「칠성부신(七星富神)」이 조천읍 함덕리 근처에 표류하다가 상륙했는데 이때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일곱 잠수(潛嫂)²³⁾가 극진히 숭양하여 모시었더니 일시에 큰 부자가 되었다.” 24) 라는 현용준의 연구기록을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그는 “조천읍 북촌리가 신화면(神話面)으로 볼 때 자연부락을 형성하

21) 1986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결과 삼양동 일대에서 전복 칼 등이 출토되었다.

22) 김영돈, 「제주도 해녀 연구 서설」, 『성곡논총』 1집, 1970, 428-437쪽.

23) 해녀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 2) 해녀의 명칭 참고.

24)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진』, 신구문화사, 1980, 900쪽

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녀의 발상지가 되지 않느냐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확인할만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²⁵⁾라고 덧붙였다.

제주 해녀를 오랫동안 연구한 위의 두 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해녀의 제주도 발상지론”은 이후 통설로 여겨져 왔지만, 과거의 유물을 뒷받침할만한 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서(史書) 등의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짐으로써, 앞으로 학술적 연구가 더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해녀와 물질 도구의 변천사

1) 물옷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해녀의 나잡 어업의 형태는 어떤 변천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을까? 과거의 해녀와 지금(현대)의 해녀는 어떻게 달라졌고, 해녀의 복장과 물질 장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과거 해녀들의 물질 복장을 유추할 수 있는 최초의 문헌은 1629년, 이건(李健)이 유배지 제주에서 쓴 한문 수필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이다. 이 글에는 해녀들이 미역을 딸 때 “적신노체(赤身露體)로 낫을 들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미역을 따고 나온다.”²⁶⁾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 당시 해녀들이 벌거벗은 채 작업을 했다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다. 조선 숙종 1702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 형상(李衡祥:1653-1733)이 ‘나체조업금지령’을 내린 기록이 위의 추측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잠녀들에게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잠녀 수중 작업복인 특이한 양식의 작업복을 공이 스스로 고안하여 작업 시에는 해변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착용하도록 관의 명령으로 강력히 권장했다.²⁷⁾

그러나 이형상의 「남환박물관」 『지속(誌俗)편』의 “잠녀안(潛女案)”을 살펴보면, 해녀들의 복장을 일컬어 “치마가 없고, 단지 마줄로 허리를 매고 몇 자의 굵은 베를 바늘로 앞

25) 강대원, 앞의 책, 1973, 32-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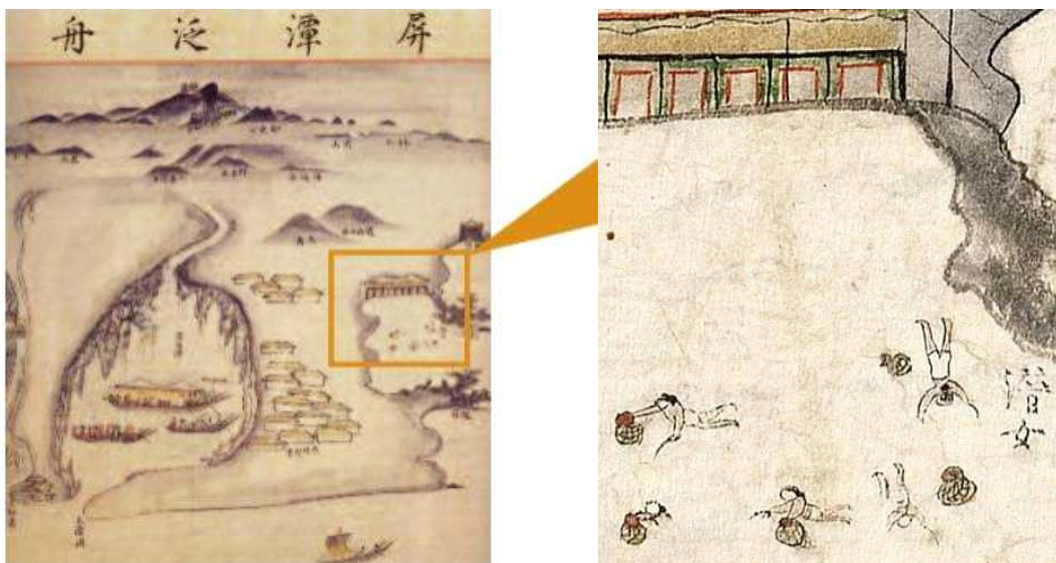
26) “... 所謂潛女赤身露體遍滿海汀持鎌浮海倒入海底採藿曳出男女相雜不以爲恥所見可駭 ” 이건(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규창집』, 1629.

27) 이형상, 『병와년보(瓶窩年譜)』 영인본, 청권사, 1979, 229-231쪽.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10, 1990, 67-68에서 재인용).

을 엮어매었으니 그 음부를 가릴 뿐이다.”²⁸⁾ 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제주 여성들의 하의 내복을 연상시킨다. 즉, 완전히 나체(裸體)의 상태로 작업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형상 목사가 이를 나체로 본 것은 유교 사상이 사회윤리의 근간이었던 그 시대에 이를 감독하고, 풍속 정화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료적 시각이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 형상 목사가 ‘나체조업금지령’을 내린 이후, 그가 직접 고안했다는 해녀옷이 등장한다. 그가 제주도를 시찰하는 장면을 그림과 글로 표현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²⁹⁾의 『병담범주(屏潭泛舟)』에 등장하는 해녀들이 입고 있는 옷이다. 용두암 아래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반바지 모양의 옷을 입고 있다. 제주의 전통 해녀복인 ‘물소중이’³⁰⁾ 와 유사하다.

<자료 1>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병담범주(屏潭泛舟)』의 해녀



그렇다면 해녀들은 언제부터 해녀옷을 입고 물질을 시작했을까?

현용준은 속칭 ‘물소중의’로 부르는 해녀옷을 ‘물옷³¹⁾’이라고 명명하며, 물옷을 입은 시기

28) “...且無裙但以麻索繫腰以數尺一麤布縫係於索之前面惟掩其陰而已脫衣脫裳露身露臀慘不忍見在邑內者當其出入之時或穿衣裳而俗古民習恬不知愧每對吏民言其不可之由知其有羞恥然後下令禁止人...” 이형상, 『남환박물』, 1702년. (해녀박물관, 『해녀사료집』, 해녀박물관, 2009, 36쪽)

29)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이형상(李衡祥) 목사가 1702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뒤에 제주 목과 정의현, 대정현 등 세 고을을 순력(巡歷)한 상황을 41개 화폭(畫幅)에 그리게 하고, 그에 대한 서문을 덧붙여 수록한 화첩(畫帖)이다.

30)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1812년)에는 해녀들이 입고 작업하는 옷의 명칭을 ‘소중의(小中衣)’라고 기록하고 있다.

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언제부터 물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절대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의 관리나 일제강점기 때의 관리들이 독촉하여 입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무명, 다음에 광목으로 변해갔으나 근래에는 ‘고무옷’을 입는 것이 보통이다. 32)

위의 문헌들을 근거로 볼 때, 18세기 이전부터 해녀들은 물소중이와 같은 옷을 입고 물질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옷의 형태는 처음에는 제주 여성들의 하의 속옷인 소중이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반신까지 가릴 수 있게 옷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후 어깨걸이를 단 물소중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물소중이 위에 입는 물적삼은 1930년대 이후부터 입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부터는 개량 해녀옷인 고무옷이 등장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33)

<자료 2> 전통 물옷의 종류 34)



2) 물질 도구

조선 시대의 해녀들이 어떤 물질 장비를 들고 작업했는지는 김춘택(金春澤, 1670~1717년)의 『북헌거사집(北軒居士集)』(1710)에 수록된 「잠녀설(潛女說)」을 통해 확인할 수

31)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해녀옷을 ‘물옷’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32)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128쪽.

33) 장현주, 「제주 전통 복식에 관한 실증적 고찰」, 『제주의 복식』, 제주대학교 박물관, 2010.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해녀박물관, 2012, 13쪽에서 재인용)

34)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해녀박물관, 2012, 20쪽.

있다. 이 글은 김춘택이 전복과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해녀의 나잡 어업 방식과 물질 도구는 물론, 해녀가 잠수하여 전복을 따는 방법과 고층까지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갯가에 가서 땀감을 놓고 불을 지피어, 나는 내 몸을 빨갱게 달구고는 가슴에 곱(匏)을 붙이고, 끈으로 짠 망사리(繩囊)를 곱(匏)에 묶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전복 껍데기(舊甲)를 주머니에 채우고 손에는 빗창(鐵尖)을 잡고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마음 내키면 물속에 잠깁니다. 물 밑에 이르러 한 손으로 바위돌을 쓸어보면 전복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복이 돌에 붙어있는 것은 단단해서 껍데기로 엮드려 버리면, 딱 붙기 때문에 즉시 딸 수가 없게 엮드려 버리므로 그 색깔이 검어서 돌과 혼동하게 됩니다. 바로 묶은 껍데기를 올려다보게 놓아 그곳을 알 수 있게 하면 그 뒷면이 빛을 받아 물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숨이 급해지면 즉시 나와 그 곱(匏)을 안고 숨을 쉬게 되는데 그 소리가 '휘익' 하며 오래 나는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 후에 생기가 돌면 곧 다시 물에 잠깁니다. (중략) 무릇 전복 하나를 따러다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³⁵⁾

위의 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물질 도구는 ‘곱(匏)’과 ‘승낭(繩囊)’이다. ‘곱(匏)’은 해녀들의 부표인 ‘테왁’³⁶⁾이고, ‘승낭(繩囊)’은 자루 모양의 ‘망사리(또는 망아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해녀 사회에서 전승되는 ‘테왁’과 ‘망사리’의 뜻풀이는 김영돈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기초로 한다.

‘테왁’과 ‘망사리’는 불가분리(不可分離)로 반드시 하나로 묶인 것이기 때문에, ‘테왁’과 ‘망사리’를 통틀어 이름이 있음 직한데 실은 없다. (중략) ‘테왁’은 그 부력을 이용해서 가슴을 얹혀 헤엄치거나 수면에서 설 때 쓰이고, 또한 ‘망사리’를 매다는 기능을 지니며, ‘망사리’는 캐어낸 해산물을 넣는 데 쓰인다. ‘테왁’과 ‘망사리’가 한 몸이라면 ‘테왁’은 머리요 ‘망사리’는 꼬리다. ‘망사리’는 반드시 ‘테왁’에 부속품처럼 달리는 것이므로 그다지 부각 되지 않는다.³⁷⁾

해녀들의 대표적인 물질 장비인 테왁³⁸⁾은 본래 두렁박을 직접 키워서 이를 따고 부엌

35) 김춘택, 『북헌거사집(北軒居士集)』 「잠녀설(潛女說), 1710. (해녀박물관, 앞의 책, 2009, 53-58쪽)

36)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7adeede414b4f6892e2bb6d3e816666> (2022.11.10.), 테왁은 ‘뜨는 박(匏)’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제주도 사람들이 ‘뜨다(浮)’를 ‘트다’라고 발음하는데 ‘테박’이 테왁이 된 것은 ‘ㅈ’탈락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37) 김영돈, 앞의 책, 민속원, 1999, 123쪽.

38) 테왁: 높이 25cm내외 둘레의 지름 90cm 내외가 되는 박에 끈으로 엮어매는데 끈의 재료는 사람의 머리털에서 미(참억새의 꽃이 채 피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로 바뀐.

에서 몇 달 동안 탄탄하게 말린 다음 씨통을 빼고 줄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발포(發泡) 스티올제(制) 테왁이 부산 등지에서 제작되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는 모두 이것으로 대체되었다. 두렁박에 달린 망사리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거에는 아득한 옛날에는 ‘미’라는 나무껍질을 벗겨 끈을 만들어 망을 떠서 사용하였는데, 1917년경부터는 ‘남충 나무’ 껍질로 노끈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1927년부터 처음으로 실로 뜬 망사리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후에 지금의 나일론 실에 이르렀다. 39)

두 번째로 등장하는 물질 장비는 빗창⁴⁰⁾으로 추정되는 ‘철침(鐵尖)’이다. 해녀들의 필수품인 빗창은 해녀들이 바닷속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쇠로 된 어로 도구이다. 이 빗창은 처음에는 돌이나 뼈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모리와 북촌리 유적에서 출토된 빗창류를 보면 사슴 뼈나 동물 뼈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금의 빗창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 고대의 빗창은 신석기 후기와 말기에 성행했으며 청동기시대에도 지속해서 사용되다가 이후, 탐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철기의 보급으로 인해 철제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언제부터 빗창의 재질이 바뀌었고, 오늘날의 빗창 형태⁴¹⁾로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다.

<자료 3> 빗창의 변화 ⁴²⁾



이외에도 소라와 성게를 바위틈 사이에서 파내는 ‘골각지(호미)’와 해조류를 베는 ‘정(중) 게 호미’, 조개 등을 캐는 쇠꼬챙이 갈퀴인 ‘갈고리’, 물고기를 쏘아 잡는 작살인 ‘소살’ 등의 장비도 추가되었으나 이 역시 시기는 알 수 없다.

39) 강대원, 앞의 책, 한진문화사, 1973, 65쪽.

40) 제주도에서는 전복을 ‘빗’이라고 하는데 전복을 잡는 창(槍)이란 의미로 ‘빗창’이라고 함.

41) 오늘날 빗창은 길이 30cm, 너비 4cm의 납작하고, 끝이 둔탁한 유선형의 형태이다.

42) 국립제주박물관에는 청동기시대에 사용되었던 뼈로 된 빗창들이 소장되어 있다. 빗창 4점으로 동물의 뼈 일부를 쪼개어 바위 등에 갈아서 제작하였다. 크기는 큰 것은 길이가 10cm 내외이고 작은 것은 7cm 내외이다. 일본에서도 조개더미의 유물들에서 비슷한 것들이 발굴되어 한반도와 유사한 어로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장비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해녀들이 전복 껍데기(舊甲), 즉 ‘본조갱이’⁴³⁾를 썼다는 기록도 이채롭다. ‘본조갱이’는 전복의 위치를 표시하던 용도로 쓰였다. 암전복은 비교적 햇빛이 드는 바윗돌 위에, ‘숫전복’은 햇빛이 가려지는 ‘엉’이라는 바위 그늘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위에 흡착해 있는 전복은 찾아내고도 곧바로 따지 못한다. 이때 전복 주변에 ‘본조갱이’를 징표로 놓아둠으로써 해녀들은 전복의 위치를 파악하고 숨을 아낀다.

고광민은 당시 ‘본조갱이’가 동원됐음은 물안경인 ‘눈’이 등장하기 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김춘택의 <잠녀설>은 잠녀들의 물안경인 ‘눈’이 없던 시절의 사례다. 그 무렵에 전복을 따 때는 ‘본조갱이’가 절대적이었다. 제주도 해녀 사회에서 물안경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전복을 따는 기술은 변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변천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⁴⁴⁾

<자료 4> 본조갱이를 차고 있는 해녀⁴⁵⁾



수 세기 동안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철저히 문명의 이기를 배척해왔다. 해녀들의 물질 장비는 ‘박’을 이용해 만든 테왁과 참억새의 껍질인 ‘미’로 만든 망사리, 전복 껍데기를 이용한 ‘본조갱이’ 등 주로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다. 이 장비들은 근대화 바람이 불기 이전까지 해녀들의 기본적인 물질 도구로써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3) 물질 장비의 수용과 비수용

43) 고광민,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한그루, 2019, 114-118쪽.

44) 고광민, 앞의 책, 2019, 118-119쪽.

45) 1977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남읍초등학교에서 민속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한 해녀가 허리에 본조갱이(전복 껍데기)를 차고 있는 모습, 현용준 촬영. (고광민, 앞의 책, 한그루, 117쪽에서 재인용).

19세기 말 제주에 불어온 근대화의 바람은 나잡 어업을 고수하고 있던 제주 해녀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물질 무대와 물질 도구의 변화였다. 제주 바다에서 물질했던 해녀들은 육지의 바다는 물론 해외의 바다까지 무대를 넓혀간다. 이즈음 제주의 해녀 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물안경과 고무 해녀옷의 등장이다. 46) 그것은 제주 해녀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물질 장비가 생겨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등장한 것이 물안경이다.

(1) 물안경

유리잔을 눈에다 부치곡
 테약을 가슴에 안곡
 무쇠 비창 손에 찌곡
 지핀 물속 들어 보난
 수심 즈복 하서라 마는
 내 숨 쫓란 못하더라

유리 안경 눈에다 붙이고
 테약을 가슴에 안고
 무쇠 빗창 손에 끼고
 깊은 물 속 들어가 보니
 수심(水深) 전복 많더라 마는
 내 숨 짧아 못하더라 47)

물질할 때 착용하는 물안경을 제주의 해녀들은 ‘눈’이라 부른다. 눈(眼)이라는 신체를 그대로 물안경의 이름으로 붙인 것이 흥미롭다. ‘눈’은 크게 ‘작은 눈’과 ‘큰 눈’으로 나뉜다. ‘족세 눈 48)’이라고도 하는 ‘작은 눈’은 소형 쌍안(雙眼) 물안경이고, ‘왕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큰 눈’은 대형 단안(單眼) 물안경이다. 그러나 물안경이 제주에 도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김영돈은 물안경의 기원을 추적하는 일이 한결같이 따라다니던 숙제였다고 토로하면서 이를 알기 위해 수많은 해녀를 수소문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1975년 당시 89세였던 서귀포시 대포(大浦)의 김수경 노파49)는 어렸을 때 ‘눈’없이 물질했었다 한다. 구좌읍 행원리의 ‘이멍거리50) 할망’은 물질에 썩 뛰어나서 그 마을에선 이제도 대상군의 표본으로 전해지

46) 해녀들은 고무 해녀옷을 ‘고무 잠수옷’, 혹은 줄여서 ‘고무옷’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 잠수옷’으로 통칭한다.
 47)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하』, 민속원, 2002, 183쪽.
 48) ‘족’은 ‘작은’이라는 제주어이고, ‘세’는 쇠의 제주어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물안경의 테를 쇠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근거한다.
 49) 1887년생으로 추정됨.
 50)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9D%B4%EB%>

는데, 어렸을 땐 ‘눈’도 안 낀 채 전복을 한 멍탱이(떡서리)씩 캐었다고 전해진다. (중략) 물안경을 안 낀 채 어떻게 물질했을까? 육안(肉眼)으로 깊이깊은 바닷속을 대충 살피면서 맨손으로 더듬더듬 만져 보아서 감각으로 전복, 소리를 식별하고 캐었다고는 것이다.⁵¹⁾

물안경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씩 다르다. 제주도의 해녀복을 연구한 김정숙은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물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10년경으로 물수건을 쓰기 시작한 시기와 같다고 주장한다.⁵²⁾ 물안경을 쓰려면 고무줄의 압박감 때문에 맨 살갓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수건이 필요하고, 따라서 물안경과 물수건은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강대원은 물안경의 등장 시기를 1820년경부터라고 추정한다. 그는 물안경을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북제주군 애월면 구엄리에 육지부에서 건너와 정착한 별명 박대장(朴大丈)이라는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해녀들이 물안경이 없어 고심하던 것을 보고 처음으로 고안해 만들었다고는 것이다.

이 안경을 당시 마을 이름을 따서 ‘엄쟁이 눈’⁵³⁾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잠수부들 간에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후 30여 년 (서기 1847년)의 세월이 지난 뒤 박대장(朴大丈)은 죽고, 그의 후계자 정대장(鄭大丈)이 지금의 구좌읍 한동리에서 다시 만들었다. 그 당시의 안경도 마을 명칭을 따라 ‘괘’⁵⁴⁾ 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⁵⁵⁾

그러나, 왜 물안경의 등장 시기를 1820년경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구전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영돈은 물안경의 종류와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놓았다. 제주도의 물안경은 ‘죽은 눈(쌍안경)’의 경우 ‘엄쟁이 눈’과 ‘괘 눈’으로 나뉘고, 그 이름은 제작지를 구분한 명명(命名)이라고 설명한다. ‘엄쟁이’란 애월읍 신엄리·구엄리·중엄리를, ‘괘’란 구좌읍 한동리를 가리키는 옛말인데 이 두 마을에 물안경을 만드는 이가 살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⁵⁶⁾ ‘괘 눈’은 모든 이의 얼굴에 맞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A9%8D%EA%B1%B0%EB%A6%AC,(2022.11.20.), ‘머리동이’의 제주어. 예전에 해녀들이 머리를 올려서 잡아 묶는 머리띠를 말한다.

51) 제주도 (김영돈·고광민·한림화), 『제주의 해녀』, 1996, 172쪽.

52)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53) ‘엄’은 애월읍 신엄리·구엄리·중엄리를 말함.

54) 한동리의 옛 이름 ‘괘’에서 유래.

55) 강대원, 앞의 책, 1973, 65-66쪽.

56) 제주도, 앞의 책, 1996, 172-174쪽.

물속 깊이 드나들어도 수압에 잘 견디고, 해저가 맑게 보이지만, ‘엄쟁이 눈’은 수심 깊은 해저에서 작업할 때 시계(視界)가 시원치 못했고 살이 끼어 출혈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⁵⁷⁾ 이후 물안경은 쌍안경에서 다시 현재의 큰 물안경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 시기에 대해서 김영돈은 육지부에 출가했던 해녀들이 사들여 쓰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고 추정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해녀들이 수중안경인 ‘눈’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러한 노파 해녀들의 제보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서서 쓰기 시작했다고 어림 된다. 설령 이를 고안한 시기를 그 이전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9세기 말이었을 듯하다. 어차피 해녀들의 증언을 좇는다면 ‘눈’을 쓰기 비롯한 시기는 대체로 20세기 초로 집약된다.⁵⁸⁾

원학회는 「제주 해녀 어업의 전개」⁵⁹⁾에서 “제주 해녀 어업의 생산물, 기술, 어장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하였는데 물안경의 도입 시기를 1900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자료 5> 제주 해녀 어업의 생산물, 기술, 어장의 추이



57) 제주도, 앞의 책, 1996. 172-174쪽.

58) 제주도, 앞의 책, 1996, 172-174쪽.

59) 원학회, 「제주 해녀 어업의 전개」, 『지리학 연구』 제7집, 1985, 188쪽.

그가 물안경의 도입 시기를 1900년으로 잡은 이유는 강대원이 제시한 잠수쌍안경, 즉 ‘업쟁이 눈’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원은 그 시기를 1820년경으로 보았는데 왜 1900년이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물안경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왜 그즈음에 해녀들에게 물안경이 필요했을까 하는 지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신문물의 등장은 필연적 환경과 조건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1876년 개항과 동시에 제주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든다. 새로운 외부 문명과 문화를 접촉하게 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60) 그 이전까지 제주도 경제는 고립적이고 상업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자급자족 체제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해녀들에게 위기와 동시에 기회로 찾아왔다. 일본 무역상의 등장으로 해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해녀들의 생산물인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해산물의 환금화(還金化)가 가능해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61) 제주 해녀들에게는 몸 자체가 자본이자, 경제적 토대였다. 즉, 해녀들은 이전의 자급자족형 물질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의 노동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劍)’이었다. 해녀들의 물질이 “식민지 시장경제에 포섭되어 가면서 임금노동으로 변질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62)

일본 어민의 조선 통어가 정식화된 것은 1883년이다. 63) 그 후 1890년에 공포된 통어(通漁) 규칙에 따라 일본과 조선의 어민이 정해진 해역에 상호 입어할 수 있다는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다. 64) 제주도 바다를 지배한 일본의 잠수기업자들은 제주도의 바다를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로 전복과 해삼을 채집하였다. 1879년에 1기에 불과했던 잠수기는 1906년경이 되면 300기에서 400기로 증가하였다. 65)

진관훈의 『근대 제주의 경제변동』을 보면, “제주도 연안에 내어한 일본 어민들의 대부분은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잠수기업자였는데, 이들의 어로 방법은 너무나 능란한 것이므로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커다란 손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 해녀들의 피해는 1892년 일본인 관택명청(關澤明清)의 「제주도 현지 조사보고」에서

60) 박찬식, 「제주인, 근대를 만나다.」, 『불휘공』 봄호,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22-23쪽.

61) 진관훈, 『근대 제주의 경제변동』, 각, 2004, 264-271쪽.

62) 이지치노리코(伊地知紀子), 「제주 여성사 II」, 『국외 출가 해녀』, 제주발전연구원, 2011, 294-295쪽.

63) 『제조선국 일본인민통상 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 章程)』의 제41항, 1883.

64) 김병철, 「帝國主義と漁民の移動(1)」, 『國際關係紀要』9 (1·2合 併号), 亞細亞大學國際關係研究所, 2000, 334~335쪽. (제주 여성사 II, 「국외 출가 해녀」, 제주발전연구원, 310쪽에서 재인용).

65) 稻井秀左衛門, 『조선잠수기어업연혁사(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朝鮮纖維協會, 1937, 15~16쪽. (이성훈, 「제주 여성사 II」, 『국내 출가 해녀』, 제주발전연구원, 259쪽에서 재인용).

도 드러난다.

제주도 연해에 몰려든 일본의 잠수기선은 도합 7~80대나 되었고, 그들은 종전에는 매일 전복 생패(生貝) 400관 내지 500관은 쉽사리 포획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남획(濫獲)으로 말미암아 힘껏 포획해도 하루에 50관을 넘는 일이 드물기때문에 이대로 두면 3년 내지 5년 안에 자원이 멸종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66)

당시 일본 잠수기 어선들의 침탈로 인한 제주 연안 바다의 황폐화는 해녀들에게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제주 해녀들이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 국내로 바깥 물질을 나가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 67)

제주 해녀들의 국내 출가는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68) 해녀들의 조업 범위도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에까지 확대해 갔다. 당시 일본의 남자 잠수들과 여성 잠수들인 ‘아마(Ama)’도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나잠 어업을 하고 있었다. 개항이라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해산물의 상품 가치는 높아졌으나, 일본 잠수기선의 수탈로 황폐해진 바다에서 제주 해녀들은 일본의 남자 잠수부와 여성 잠수인 아마(Ama)들과도 경쟁해야 했다.

필자는 제주 해녀들이 물안경을 착용했던 시기를 추적하던 중에 물안경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될만한 기록을 발견했다.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에서 발간하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보(朝鮮海通漁組合會報)」 제4호에 실린 글이다. 이 글에는 1903년 울산에서 조업한 제주도 해녀들의 ‘나잠업(裸潛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잠수와 제주 해녀의 어획량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 요인을 물안경에서 찾고 있다.

1900년 초, 일본의 남성 잠수와 여성 잠수인 아마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역은 서해안지역으로 제주 해녀들의 물질 능력이 일본 해녀보다 뛰어났지만, 생산량이나 소득은 일본 해녀보다 적었다.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1903년 울산 근해의 일본 해녀들은 평균 10관을 생산하였고, 부산 근해에서는 14관을 생산하였

66) 제주도, 앞의 책, 1996, 516-518쪽.

67) 제주 해녀의 바깥 물질의 시기에 대해서 에구치 야스타카(江口保孝, 1915)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게 최초라고 하고, 마스다이치지(槌田一二)는 1895년 경상남도 부산부(釜山府) 목도(牧島, 絶影島, 현재의 影島)에 출어한 게 처음이었다고 주장한다.

68) “제주 해녀들이 국내 각처로 나간 것은 지금부터 이삼십 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경상남도 울산, 기장 두 해안에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전라남도의 모든 섬, 경상남도 거제도·부산·울산·기장, 경상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도 연해 각처까지 진출하였다.” 『매일신보, 1916, 7.28 일자.

지만, 제주 해녀들은 평균 5~6관 정도였다. 일본 어민들은 물안경을 쓰고 어업을 하였지만, 69) 제주 해녀들은 물안경 없이 맨눈으로 물질 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70)

위의 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상인에게 고용된 일본의 남녀 잠수업자와 제주도 해녀 간에는 해산물 채취량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물질 도구인 물안경이 큰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해녀(아마)의 경우 1874~1884년부터 물안경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71) 위의 기록에서도 당시 일본 해녀들은 이미 물안경을 쓰고 작업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903년에 바깥 물질을 나갔던 제주 해녀들은 아직 물안경을 쓰지 않고 작업했다는 것, 즉 물안경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시기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같은 회보에 실린 다음의 글은 제주 해녀들이 물안경을 착용하게 된 계기와 시기를 추정케 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보인다.

매년 본토(일본)의 나잠수자와 같은 기간 같은 방면에 있어서 우뚝가사리 채집에 종사하는 제주도 출신의 나잠수부 100여 명 있다. 올해는 다소 감소해 총수 5~60명 출어한다. 종래 그들은 안경을 쓰지 않지만, 교활한 본토 상인 등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오래된 잠수 안경을 그들에게 매각한 사람도 있어 올해는 모조리 이것을 사용해 채집상의 편익을 얻었다. 그 때문에 본토 나잠수자에 대해 영향이 적지 않다. 72)

결국 상품 가치는 높아졌으나, 해산물의 양은 현저히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일본 상인들은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이 필요했을 것이고, 해녀들은 타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어업방식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물안경의 도입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908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행되는 『大阪毎日新聞』의 보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조선에는 제주도에 해녀가 있어 같은 계절에 부산 근해에 오거나 일본 해녀와 경쟁을 시도해 보지만, 조선 해녀는 안경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에서는 아직 이세(伊勢) 해녀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73)

69) 일본에서 잠수용 안경의 제작 및 사용은 1885년 구마모토현(熊本縣) 아마쿠사군(天草郡) 후타에(二江)촌의 이즈시마 히사하치(出島久八)와 이즈시마 타츠고로[出島辰五郎]라는 사람이 제작한 양안제(兩眼製)가 최초의 것이다. (大喜多甫文, 『潛水漁業と資源管理, 古今書院, 1989, 1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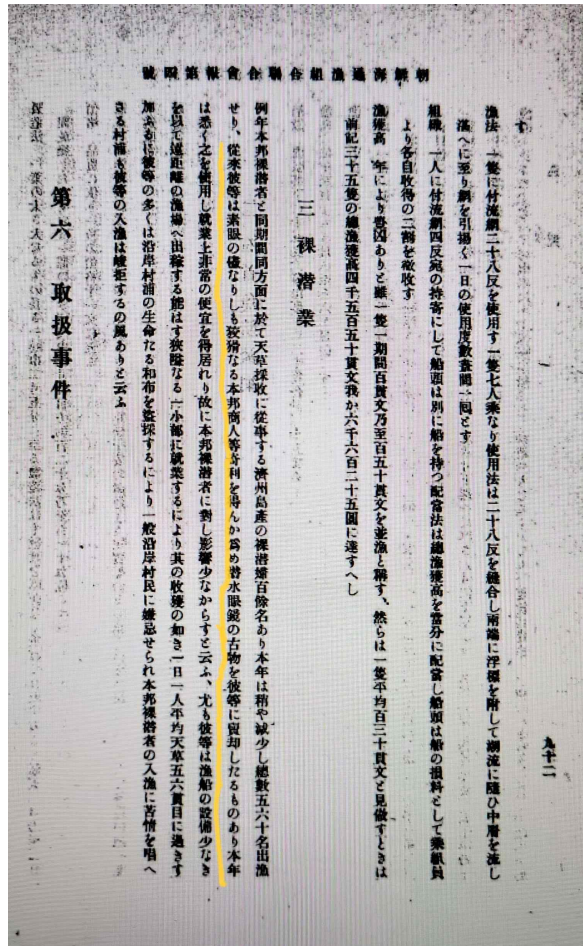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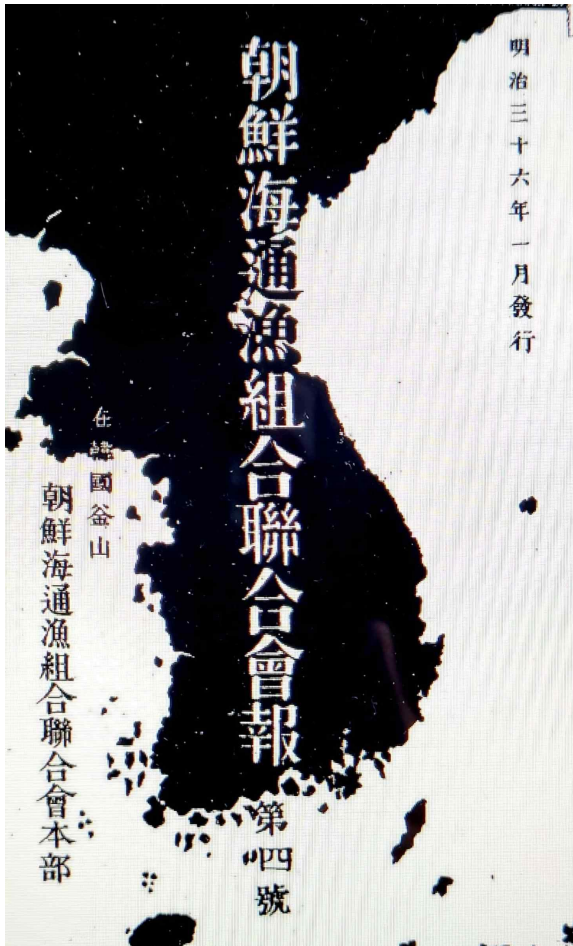
70) 조선해통어조합연합(朝鮮海通漁組合聯合),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보(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제4호, 1903, 85~86쪽.

71) Teruoka T, Die Ama und ihre Arbeitsphysiologie 5, 1932, (박양생, 앞의 책, 고신대학교출판부, 2004, 18쪽 재인용).

72) 조선해통어조합연합(朝鮮海通漁組合聯合), 앞의 회보, 1903, 92쪽.

73) 『大阪毎日新聞』, 1908, 5.14 일자.

<자료 6> 「조선해통조합연합회보」의 물안경 기록



필자가 1903년도를 제주 해녀 물안경의 착용 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까닭은 1900년도 1월 27일 자 황성신문(皇城新聞) 74)에 실린 기사를 통해 그 이전에는 물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蔚山郡 灣內와 濟州島 沿海에서 男女의 漁獲裸潜業이 日本의 裸潜業者와 不異 ㅎ되 오작 水底에 潜할 際에 眼鏡을 着지 아니ㅎ는 故로 海水가 眼中에 浸八ㅎ야 物色⁷⁵⁾을 明辨키 困難ㅎ야 其動作이 日本 潜水夫에 及치 못ㅎ나 其採收의 技는 侮視⁷⁶⁾치 못할 것도 有ㅎ니 만일 相當한 眼鏡만 用케되면 漁利⁷⁷⁾

74) 광무 2년(1898) 9월 5일에 창간된 일간 신문. 국한문체. 애국적 논필로 여러 차례 정간을 겪다가 1910년 8월 28일에 강제 폐간 이후 『한성신문』으로 발행되다가 1910년 9월 14일 중단.

75) 물건, 즉 해산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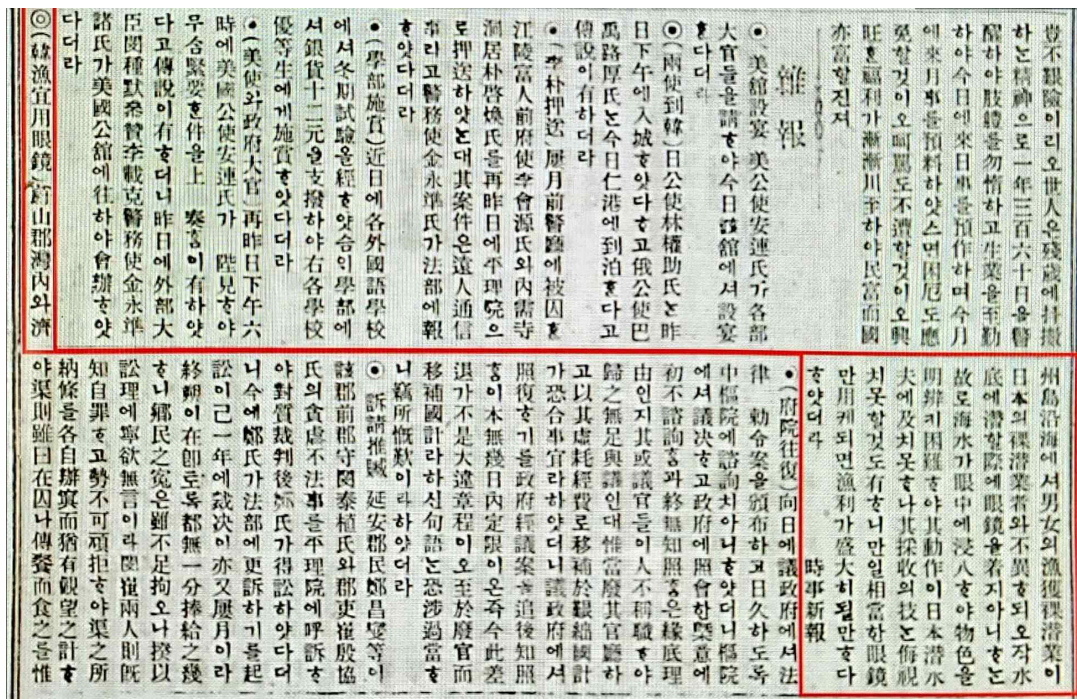
76)蔑視(멸시)로 추정됨.

77) 어획량, 생산량 등의 어업 이득을 말함.

가 盛大히 될만하다하얏더라. 78)

위의 기사를 보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0년 1월, 울산만과 제주도 연해에서 일본의 상인들에게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녀 (바깥 물질 나간 제주 해녀로 추정)와 일본의 남녀 잠수업자들이 조업하는데 그 수확량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 해녀들이 일본의 잠수업자들보다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 해녀들이 오직 물안경을 착용하지 않아서 바닷물이 눈 안에 침입하여 해산물을 구분하기 곤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는 “우리 해녀들의 물질 기술은 뛰어났지만, 멸시받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만일 상당수의 물안경만 확보돼 쓰게 된다면 어획량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자료 7> 물안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황성신문 (1900. 1. 27 일자)



이처럼 당시 제주 해녀들은 물안경을 쓰지 않은 까닭에 해산물의 채취량에서 일본의 해녀(아마)들에 비해 수확량이 저조했고, 멸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동쳤던 바다라는 삶의 무대에서 우리 해녀들에게 물안경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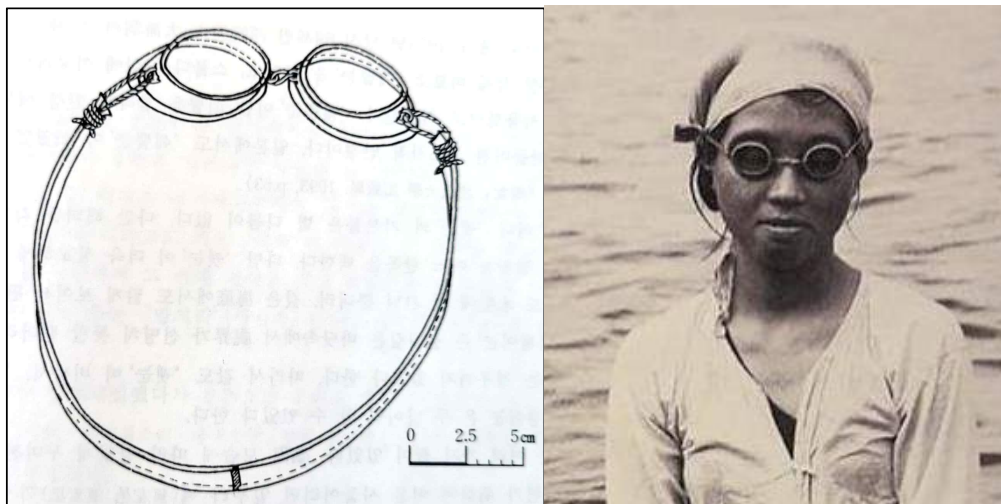
78) 『황성신문(皇城新聞)』, 1900, 1.27 일자.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김영돈이 육지부에 출가했던 해녀들이 사들여 쓰기 시작한 것이 물안경의 시초였다고 추정한 것은 맞다. 1820년경 물안경이 등장하였다는 강대원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당시 애월읍 구엄리에 육지부에서 건너와 정착한 별명 박대장(朴大丈)이라는 대장장이가 물안경을 만들었고, 그 후 30여 년 (서기 1847년)의 세월이 지난 뒤 그가 죽자, 후계자 정대장(鄭大丈)이 그의 뒤를 이어 물안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강대원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그 당시의 물안경은 보급형이라기보다는 주문형으로 개개인의 필요 때문에 주문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 사이에 소형쌍안경인 ‘족세 눈(족은 눈)’이 등장했다. 근대화 이후, 일본인 무역상이 등장하고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획량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된 일본 상인들의 강요, 그리고 바깥 물질을 나간 제주 해녀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욕망이 맞물리면서 1903년을 기점으로 물안경을 착용하였고 점차 보급,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쌍안경은 수중에서 시계(視界)가 더 확보되는 오늘날의 대형 단(單)안경이자 일명 ‘왕눈 (큰눈)’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8> 족세눈 79)과 1930년대 제주 해녀 80)



(2) 고무 잠수옷

79) 제주도, 앞의 책, 1996, 173쪽.

80) 스텐 베리만(Sten Bergman)이 1930년대에 촬영한 제주 해녀. (스웨덴 세계문화박물관 소장).

해녀들의 개량형 해녀복인 고무 잠수옷이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된 것은 1971년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물안경의 수용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무 잠수옷⁸¹⁾의 등장은 해녀 사회에 커다란 갈등과 파장을 몰고 왔다.

고무 잠수옷의 시초는 제주 출신의 해녀 정부미자가 당시 일본에 살았던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삼원상사’라는 팻말을 내걸고 시작한 것이 최초였다.

나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해방되자 군대환⁸²⁾을 타고 아버지 고향인 김녕으로 들어왔어. 시집가서 살림이 빈궁해지니까 구룡포로 바깥 물질을 나갔지. 어느 날, 일본에서 나를 찾아온 친정아버지가 바다에서 물질하고 막 나온 나의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애처로웠던지 지금 일본에서는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작업한다면 원단을 일본에서 떼다 줄 테니까 고무옷을 직접 만들어보라고 권유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 ⁸³⁾

전통적인 물옷인 물소중이와 물적삼은 한겨울 추위를 감싸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거친 파도를 뚫고 하루에 수백 번씩 자맥질하다 보면 옷감이 쉽게 헤어지는 것도 큰 애로점이였다. 그러나 고무 잠수옷의 원단은 네오프렌(neoprene)⁸⁴⁾이라는 합성고무이다. 보온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 독성이 강한 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었다. 당시는 물자가 귀했던 시절이라서 고무 원단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날, 정부미자씨의 친정아버지는 일본의 야마모토 화학공업의 사장 야마모토 케이이치⁸⁵⁾과 함께 구룡포를 찾아왔다. 야마모토는 직접 고무 잠수옷의 본을 떠주고, 제작과정을 보여주면서 정부미자씨에게 기술을 전수하였다. 한겨울 물옷을 입고 추위에 물질을 했던 경험을 알고있는 해녀 정부미자씨는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곧바로 수십 벌의 고무 잠수옷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고무 잠수옷이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된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당시 고무 잠수옷에 대한 해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업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해녀들 사이에서 고무옷을 입으면 자궁이 좁아져 아기를 못낳는다, 검은 아기를 낳는다. 암에 걸린다는 얘기가 돌아서 그 소문 때문에 나 마음고생도 많았어. ⁸⁶⁾

81) 해녀들은 고무 잠수복보다는 ‘고무 잠수옷’, 이를 줄여서 ‘고무옷’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고무옷’을 쓰기로 한다.

82) 1930년부터 취향한 930톤급 화물선. 러일전쟁 때 러시아해군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으로 아마가사키(尼崎) 해운회사에 불하했고, 이 회사는 이 전함을 두 동강 내어 화물선으로 고쳐 제주-下關, 오사카 항로에 투입했다.

83) 정부미자 (여.1937년생) 前 삼원상사 대표 (現 세화 잠수복), 해녀박물관, 2022.10.27, 필자 면담.

84) 1930년 윌러스 캐로더스(1896~1937)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된 합성고무 화합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85) 야마모토 케이이치는 과학자로 세계 최초로 합성고무를 원료로 지우개를 만든 사람.

<자료 9> 1960년대 전통 물옷을 입고 작업하는 제주 해녀들 87)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100년사」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개량된 고무 잠수옷이 도입된 시기는 1969년도이다.⁸⁶⁾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제주도는 제일 교포들이 왕래가 잦았는데 그들이 고향 방문 시 들고 온 고무 잠수옷이 해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네오프렌 스펀지로 만들어진 고무 잠수복은 질기고, 겨울철 추위를 막아주는 물론, 옷감 자체의 부력으로 수영을 하지 못해도 물에 뜨는 성능도 갖추고 있다.

우리 일본에 친척 어른들이 이성 이 옷을 보내준 거라. 첨엔 입어보난 물 위에 뜨는 거라. 잘도 신기행 입어본다 벗어본다 해주게. 겐디 푼 해녀들은 막 욱허멍 뭉행 허난 금방 입영 물에 들어가진 못허고 눈치보멍 입어서. 하이고 첨에 그 옷 보난 하도 신기행 멧날 멧일이라도 물질 해질 거 닥안게.⁸⁹⁾

(우리 일본에 친척 어른들이 있어서 이 옷을 보내준 거라. 처음에 입어보니까 물 위에 뜨는 거

86) 정부미자. 앞과 같음.

87)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8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100년사』, 반석원색인쇄사, 2017, 2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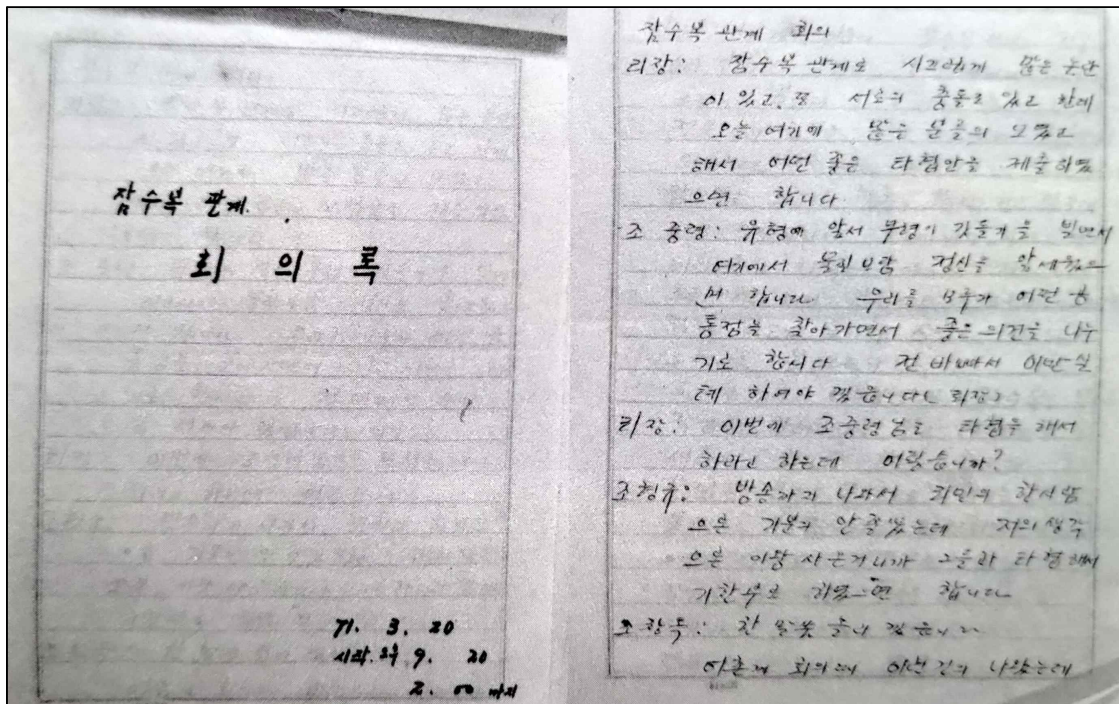
89) 차임화 (1936년생. 제주도 제주시 연평리 주흥동).

라. 너무 신기해서 입어본다 벗어본다 했어. 그런데 다른 해녀들은 막 욱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금방 입지는 못하고 눈치보면서 입었어. 하이고 첨에 그 옷 보난 너무 신기해서 몇날 며칠이라도 물질 할 수 있을 거 같았어.)

처음에 이 ‘고무옷’의 등장하자, 일부 마을에서는 전통 물옷을 입은 고령의 해녀들과 고무옷을 입은 젊은 해녀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 일어났다.

고광민은 1971년 3월 20일 고무 잠수옷 분쟁으로 인한 긴급회의가 열린 「잠녀복 관계 회의록」을 한림읍 귀덕1리 사무소에서 발굴했다.⁹⁰⁾

<자료 10> 해녀복 관계 회의록



이 기록에 따르면, 고무 잠수옷으로 인한 해녀들 간의 갈등으로 이날 오후 9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다. (자료-10) 고무 잠수옷을 입고 작업했던 12명의 해녀는 “고무 잠수옷을 입는 것에 대한 세금을 마을에 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고무 잠수옷을 입겠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해녀들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장은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다.

90) 고광민, 앞의 책, 2019, 125쪽.

음력 3월15일(양력 4월10일)까지만 고무 잠수옷 착용을 한시적으로 허락하기로 하자. 그 이후에도 고무 잠수옷을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장과 어촌계장이 앞장서서 고무 잠수옷을 찢겠다. 91)

이장의 협상에도 고무 잠수옷을 입겠다고 주장한 해녀들은 중재안을 거절하며 퇴장해버렸다. 사회자는 다음 날부터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물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대원을 결성하면서 폐회를 선언하였다. 92)

제주에서 벌어진 이 한바탕의 소동은 ‘고무 잠수옷의 수용과 비수용’이라는 안건을 놓고 마을어촌계와 해녀회(잠수회)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무 잠수옷을 수용했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고무 잠수옷을 입지 않기로 결의, 전 회원이 전통 물옷을 입고 입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93) 이 와중에 1971년 제주 어협(漁協) 에서는 “해녀들의 장비를 스폰지 잠수복으로 대체한다”94) 고 공식 표명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그 혼란상을 엿볼 수 있다.

1971년 제주 어협 산지(山地) 어촌계에서는 오는 6월 말까지 해녀들의 장비를 스폰지 잠수복(일제 잇가 개당 2만 3천 원)으로 대체한다. 26일 양치용 산지어촌계장은 총 1백71명의 해녀 중 80여명이 현재 스폰지 잠수복을 착용하여 최고 9m 깊이에서 작업하던 것이 15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작업능률은 해녀 한 사람이 종전 해녀의 10명분을 해낼 수 있으며 수중 작업시간도 종전에는 최고 1분이 고작이던 것이 2분 동안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근대 신(新) 해녀 장비 개선사업은 성산, 서귀어협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당국의 권장 아래 1971년, 제주시 산지어촌계의 경우 총 1백71명의 해녀 중 80여 명, 즉 공동체의 절반 가까이가 고무 잠수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96) 그러나 행원리는 당국에서 권장하는 고무 잠수옷 입기를 기피했다. “고무옷을 입을 경우 작업시간이 현재 1시간보다 배가 증가한 2~3시간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이로 파생되는 자원 채취는 어장이 황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수총회를 소집, 고무 잠수옷을 입지 않기로 결의, 전 회원이 전통 물옷을 입고 입어”97)하

91) 고광민, 앞의 책, 2019, 132쪽.

92) 고광민, 앞의 책, 2019, 132쪽.

93) “해녀어장이 메말라가고 있다. 행원 어촌계”, 『제남신문』, 1973. 9.10 일자.

94) “제주어협 해녀, 스폰지 작업복으로 바꾸기로”, 『제주신문』, 1971.4.28 일자.

95) “제주어협 해녀, 스폰지 작업복으로 바꾸기로”, 『제주신문』, 1971. 4.28 일자.

96) “1971년 고무잠수옷 입은 해녀가 공동체의 50%”, 『제주신문』, 1971. 4.28 일자.

97) “해녀어장이 말라가고 있다. 행원어촌계”, 『제남신문』, 1973. 9.10 일자.

는 상황이 벌어졌다. 1974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의 해녀들 사이에서는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고무 잠수옷을 입고간 해녀들이 다른 해녀들에 비해 4~5배의 많은 수확을 하자, 고소 고발까지 치닫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분쟁은 45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1975년 제주도 전역의 해녀들이 고무 잠수옷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무엇보다 물질 시간의 절대적인 연장으로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해녀들에게 어필된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잠수실태조사」⁹⁸⁾를 보면 당시 고무옷은 한 벌에 3만 원 정도였고, 전체 해녀의 44.2%가 착용하였다. 출가 해녀의 착용률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제주 해녀들의 착용률은 30%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해녀들 공동의 합의로 재래식 해녀 옷인 물옷을 착용하는 어촌계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⁹⁹⁾

<표 2> 고무 잠수옷 착용 실태조사

구분	총잠수자(A)	착용자(B)	비착용자	B/A(%)
제주	14,039	4,315	9,724	30.7
출가	3,643	2,827	816	77.6
육지부	4,569	2,683	1,886	58.7
경남	2,215	1,551	664	70.0
경북	1,556	595	961	38.2
강원	75	75		100
전남	670	409	261	61
충남	50	50		100
계	22,251	9,825	12,426	44.2

큰 진통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등장한 고무 잠수옷은 해녀들의 물질 작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체온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능 때문에 사계절 365일 물질을 할 수 있었다.

실제 박양생은 해녀들이 전통 물옷과 고무 잠수옷 착용 이후의 체온 변화를 측정했는데 “해녀들이 고무 잠수옷을 입고 작업할 때는 2시간이 지나도 직장(直腸) 온도가 여름에는 37.2℃, 겨울에는 36.7℃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고무 잠수옷을 입으면 사계절 모두 저체온증에 빠지는 일이 없으며, 잠수 작업시간의 길이가 더이상 체온 변

98) 수협중앙회, 『잠수실태조사』, 수협중앙회, 1975.

99)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생업기술사전』, 2021, 7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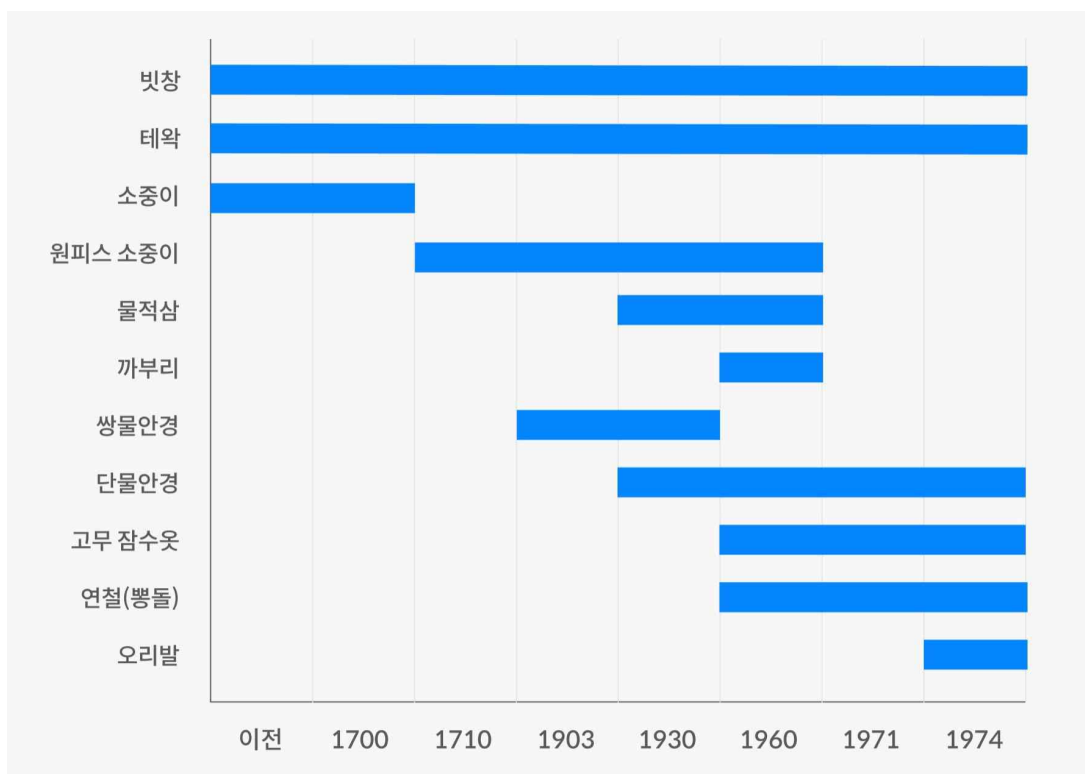
화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¹⁰⁰⁾ 라고 설명했다.

고무 잠수옷이 가져온 두 번째 변화는 바닷물에서 쉽게 뜨는 고무 잠수옷의 특징 때문에 물질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진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 잠수옷의 장점은 곧 단점이 되었다. 1975년에 진행한 「잠수실태조사」에는 “고무 잠수옷의 착용으로 장시간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허리와 다리가 꼭 조여 신경통, 두통의 원인이 되고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동작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¹⁰¹⁾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고무 잠수옷은 점차 제주 전역에 수용되었고, 오늘날 해녀들의 보편적인 잠수복이 되었다. 이후 고무 잠수옷의 부력 장애로 자맥질을 용이하게 도와줄 연철(뽕돌)이라는 웨이트(weight)와 고무 오리발이 추가되었는데 그 시기는 고무 잠수옷이 나오고 3~4년 뒤로 추정된다.¹⁰²⁾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녀 물질 장비의 사용 시기와 변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해녀 물질 장비의 등장과 사용 추정 시기



100) 박양생, 앞의 책,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4, 79쪽.

101) 수협중앙회, 『잠수실태조사』, 1975.

102) 한국민속백과대사전 『한국기술생업사전』, 2021, 752쪽.

결론적으로 고무 잠수옷의 도입은 해녀들의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오늘날 제주도 해녀들의 보편적인 해녀복이 되었다. 물안경과 고무 잠수옷의 등장 이후 해녀들의 물질 장비는 변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 1969년 이후, 제주 해녀들은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물질 방식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기통, 즉 인공적인 호흡 장비는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숨’과 ‘몸’에 의존한 물질을 지속하고 있다.

Ⅲ. 물질과 해녀의 몸

1. 나잠 기술의 축적체인 몸

여성의 몸은 이데올로기, 담론, 관행들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적 실체로서 역사와 문화에 따라 몸에 대한 의미화 방식과 내용이 변화해 왔다. 해녀의 몸은 삶을 영위하는 주체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적인 창구로 작용한다. 이때 해녀라는 몸의 물질성은 노동이 축적되는 장소이자 역동적으로 삶을 끌어가는 주체의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여성의 몸, 특히 해녀의 몸에 함축된 생리학적 의미는 물론 사회 문화적 의미를 통해 해녀의 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화 방식을 탐색한다. 해녀의 몸은 다양한 시사성을 지닌다.

첫째, 인간이 살 수 없는 바닷속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인위적으로 숨을 참고 살아야 하는 생리학적 몸, 둘째, 나잠(裸潛)이라는 전문기술을 축적하는 저장고의 몸, 셋째,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하는 몸, 네 번째, 바다 생태계를 관찰하고 감시하며 자연과 밀접하게 교감하는 매개체로서의 몸이다.

그렇다면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해녀들의 몸은 바다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적응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체는 특수한 환경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리적 적응을 한다. 이러한 적응 현상은 인간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고, 인체의 환경 적응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다면 수세기 전부터 줄곧 인공 기계 장비 없이 나잠 어업을 고수해온 해녀들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잠수할까?

20여 년 전, 제주 해녀와 프리다이빙 세계선수권자의 ‘무호흡 잠수 대결’이 펼쳐졌다. 50~60대의 해녀 두 명이 참가해 수심 14m 깊이에서 최고 1분 23초를 견뎠다. 상대는 이탈리아의 지안루카제노니(33) 선수로 4분을 버텨으로써 승리를 거뒀다.¹⁰³⁾ 해녀를 숨 참기의 달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 선수와 해녀의 잠수 대결에서는 해녀가 승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¹⁰⁴⁾ 위의 두 잠수 대결에서 보듯이 일반인들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숨을 참는데 탁월한 기량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해녀의 물질 작업의 특수성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한다. 해녀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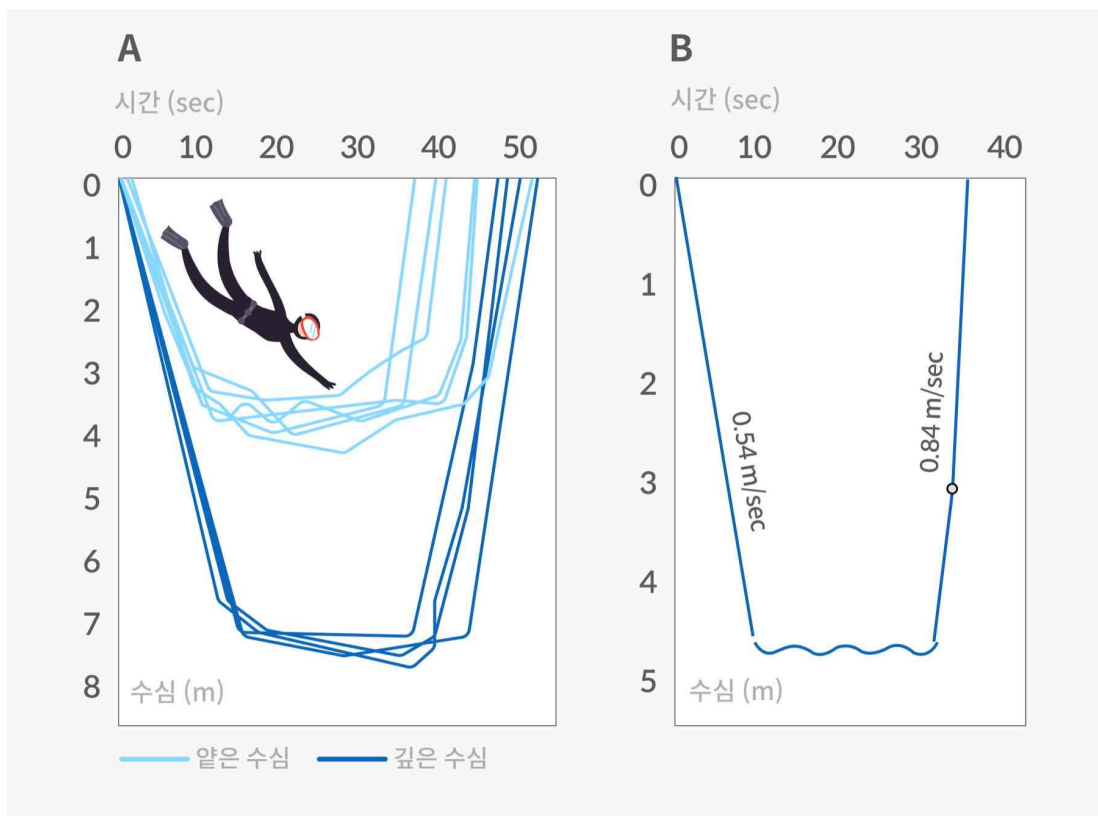
103) “제주 해녀 vs 프리다이빙 선수권자 잠수 대결”, 『연합뉴스』, 2001.7.16 일자.

104) “박태환 vs 제주 해녀, 세기의 잠수 대결 승자는?”, 『스포츠서울』, 2015.12.3 일자.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숨을 끝까지 참는 무모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여유 있게 숨을 남겨둔 채 수면으로 올라와야 체력소모를 줄이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해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양생은 해녀의 잠수 양상을 통해 해녀들의 잠수 시간과 호흡의 길이 등을 분석했는데 해녀들의 평균 잠수 시간, 즉 숨의 길이가 의외로 짧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료 11> 한국 해녀의 일회 잠수 양상 105) 에 근거



<자료 11-A> 는 고무 잠수옷을 입은 한국 해녀의 일회 잠수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하강하는 속도와 수면으로 상승하는 속도는 잠수 심도, 즉 바다의 깊이와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저에 머무는 시간(bottom time)은 잠수 심도가 얕을 때는 변화가 많지만, 깊을 때는 비교적 일정해진다. 그 이유는 잠수 심도가 얕을 때는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이를 채취하느라 잠수 시간이 크게 변하지만, 심도가 깊을 때는 호흡 생리학적 제약으로 인해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더라도 올라와야 하기에 잠수 시간이 비교적 일정해진다.

105) 박양생, 앞의 책, 2004, 10-11쪽.

<자료 11-B> 를 보면 해녀의 일회 평균 잠수 시간은 약 35초인데 그중 24%는 하강에 15%는 상승에 소모함으로 해서 작업시간은 21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해녀들의 평균 잠수 시간과 잠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 해녀의 일회 잠수 양상

	평균 잠수 시간	하강 (속도)	해저 작업	상승 (속도)
잠수 시간	35초	8.4초 (0.54m/sec)	21초	5.25 (0.84m/sec)

또한 잠수의 빈도(Diving Frequency)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심이 5m일 때는 잠수 시간이 32초, 수면 위에 머무는 시간은 46초로 나타났고, 시간당 잠수 횟수는 수심 5m일 때는 46회, 10m 잠수 시에는 28회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 됐다.

< 표 5 > 수심에 따른 잠수 시간과 잠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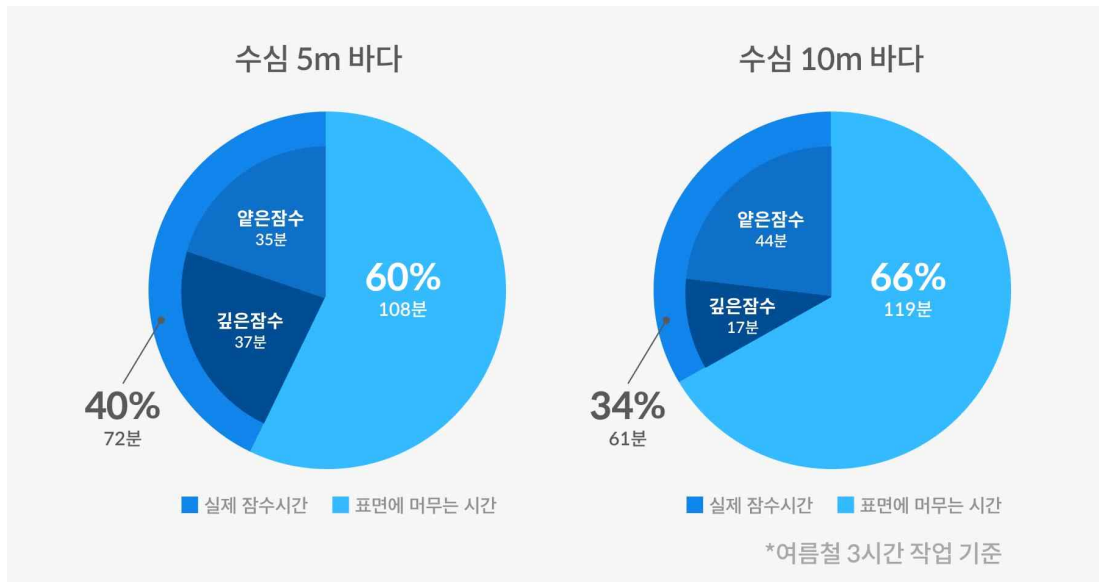
잠수 심도	잠수 시간	표면 시간	잠수 횟수 (시간당)
5m	32초	46초	46회
10m	43초	85초	28회

그렇다면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얼마나 숨을 참을까? 박 양생은 해녀들이 여름철 3시간 동안 작업한다는 가정하에 총 잠수 시간과 해저에 머무는 시간을 산출해보았다.

다음의 <자료-12>에서 보듯이 수심 5m에서 작업하는 해녀가 하루 3시간 동안 물질을 할 경우, 실제 잠수에 사용한 시간은 72분으로 전체 작업시간의 40% 정도이고, 수면에 머무는 시간은 108분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특히 해저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37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수심 10m의 바다에서 작업할 때는 실제 잠수에 사용한 시간이 61분이지만, 해저에 머무는 시간은 17분으로 급감한다. 이러한 사실은 해녀들이 깊은 잠수보다 얇은 잠수를 할 때 작업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¹⁰⁶⁾ 앞서 수영선수들과 해녀의 잠수 대결에서 보았듯이 해녀들이 숨이 길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녀들은 수심 10m의 바다보다는 5m 내외의 바닷속에서의 잠수를 선호하고, 이는 무리한 작업을 줄임으로써 작업효율을 높이고,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몸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6) 박양생, 앞의 책, 2004, 10-13쪽.

<자료 12> 한국 해녀의 총 잠수 시간과 해저 시간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한국 해녀들의 일회 평균 잠수 시간은 35초이며, 이때 해저 작업시간은 불과 21초밖에 확보되지 않는다. 수심 5m에서 작업하는 해녀가 하루 3시간 동안 물질을 한다면, 총 138회(시간당 46회)의 자맥질을 하고, 총 잠수 시간은 72분이다. 이 시간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무호흡 상태로 숨을 멈춘 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해녀의 잠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평균치에 불과하다.

물질의 기술은 매뉴얼 (manual)이 없다. 물질은 해녀의 몸이 바다와 한 몸으로 움직이며 급변하는 바다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고도의 작업이다. 앞서 해녀들의 일회 평균 잠수 양상을 통해 해녀들의 일회 잠수 시간은 35초, 하강과 상승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해저에서 해산물을 찾는 시간은 불과 21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암반과 해초 속에 숨어있는 해산물을 찾아내 채취하고, 수면까지의 거리와 남아있는 숨을 가늠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과 조류, 바닷속 생태환경의 변화 등 바다 안팎의 수많은 환경에도 촉각을 세워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상황들을 해녀들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판단하고 방어한다. 이처럼 해녀들은 오직 자신의 몸의 경험과 바다에 변화에 몸을 적응시키며, 자신만의 나잠 기술을 축적해 나간다. 물질이 단기간 속성과정을 통해 연마되는 기술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저장해 온, 몸이 기억하는 기술인 까닭이다.

적극적 어법인 해녀 작업, 곧 물질의 기량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도, 갑자기 숙달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

지 수련에 따를 뿐이다. 선천적 또는 유전적 소질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나잠 기량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 이는 없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살면서 거듭거듭 꾸준하게 익혀온 반복 훈련의 결과인 것이다.¹⁰⁷⁾

제주의 해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질을 시작한다. 과거 제주도 바닷가 마을의 여자아이들은 글보다 물질을 먼저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주의 해녀들은 모계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의 소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일을 거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의 섭리를 체득한다.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계절마다 바다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도 익힌다. 소녀들에게 바다는 놀이터이자, 해녀가 되기 위한 연습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기록에도 남아있다.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遊	제주 소녀들은 잠수를 잘해 열 살 되면 앞 냇물에서 물질을 배운다.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이곳 풍속에 신붓감은 부모 의식 걱정 덜어주는 잠녀가 제일이라던데
朴是北人間不信 奉便今來南海游	내가 듣고도 믿지 않다가 남쪽 바다에 와 둘러보니
城東二月風日喧 家家女兒出水頭	성(城) 동쪽 2월 바람 불고 햇살 눈부신 데 집집마다 여인들 나와
一鍬一筭一匏子 赤身小袴何會差	갈구리 하나, 채롱 하나, 뒤옹박 차고 물가로 나오니, 벗은 몸을 어찌 나무랄 수 있겠는가. ¹⁰⁸⁾

물질의 첫걸음은 자맥질이다.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단숨에 입수해야 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숨을 아낄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해산물 대신 물속의 돌을 집어 오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무자맥질과 숨을 참는 연습을 병행한다. 열 살이 넘으면 해녀 한 사람의 몫을 거뜬히 해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일찌감치 기량을 인정받은 아이들에게는 ‘아기 상군’이라는 호칭이 주어지기도 했다. 제주도에서는 예닐곱 살 때부터 본격적인 물질을 시작했다는 해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우리 어머님이 물질을 막 잘 허영 ‘고래 상군’¹⁰⁹⁾이라났주. 나도 요덥 살부터 시작해신디 ‘애기 상군’이런 소문난. ‘아이고 요 애기 상군 애기 상군!’ 막 애기라도 물질을 상군만큼 햄댄. 열다섯 되난 제라헌 쯤네 (해녀)가 똥 육지로 베껴 물질을 나갔주.¹¹⁰⁾

(우리 엄마가 물질을 막 잘해서 ‘고래 상군’이라고 불렸지. 나도 여덟 살부터 시작했는데 ‘아기 상군’이라

107) 김영돈, 앞의 책, 일조각, 1986, 225-235쪽.

108) 신광수(申光洙), 『석북집 石北集』, 1765. (해녀박물관, 앞의 책, 2009, 62쪽. 재인용).

109) 상군 중에서도 물질을 잘하는 해녀를 고래에 빗대어 칭하는 말.

110) 현순직(1927년생.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고 소문났어. ‘아이고 요 아기 상군 아기 상군!’ 아기라도 물질을 상군만큼 잘한대. 열다섯 살 되니까 제대로 해녀가 돼 육지로 바깥 물질을 나갔지.)

흔 일고여나쁜 살 되어실 거라. 어멍들이 다 바닷에 나가볼든 친구들광 바닷에 돌 던져서 그거 누게가 봉강오나 심백허멍 물속에 꺼 건정오는 연습을 해주게. 게난 막 어릴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 조기교육을 한 거라. 경허멍 나가 어느 바닷까지 할 수 있는지 무자맥질 연습을 한 거주게. 111)

(한 7-8 살 됐을 거야. 엄마들이 모두 바닷에 나가면 친구들끼리 바닷에 돌 던져서 그거 누가 주워오나 경쟁하면서 물속에 것을 건져오는 연습을 했지.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 조기교육을 한 거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바닷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자맥질 연습을 한 것이지.)

우리 여덟 살 때부터 힘은 배워서, 그때는 바닷에서만 살아세게. 그때 옷이나 입어샤. 옷도 허나 즐바로 입도 안허고 속옷도 아무것도 안입엉 휘어서. 물 바우에서 휘난 힘을 제기 배웠주게. 파래 그 갯파래 나지 안허느냐. 걸 조물양 장난으로 붙이는 거 다 연습허고 초초 물엿 거 해주게.

(우리 여덟 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어. 그때는 바닷에서만 살았지. 그때 옷이나 입었나. 옷도 하나 제대로 입지도 않고 속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헤엄쳤어. 물가에서 헤엄치니까 빨리 배웠지. 파래 그 갯파래 나지 않느냐. 그걸 장난으로 채취하는 연습을 하면서 차차 물의 것을 했지.)

질문: 물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학교 댕기명도 조금씩 허긴해서. 열 살에 해가당 열다섯 열여섯부터는 제라허게 했주.112)

(학교 다니면서도 조금씩 허긴 했어. 열 살에 하다가 열다섯 열여섯부터는 제대로 했지)

제주의 해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억척스럽고 꾸준한 수련을 거듭함으로써 열다섯쯤이면 어엿한 해녀로 독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제주 해녀 연구를 집대성한 김영돈은 제주 해녀들의 물질 시기를 평균 17살이라고 보았다.

제주 해녀들이 열다섯이면 넉넉하게 물질하기 시작하는 것은 상례이지만 몇 마을에서 조사했던 결과는 그 평균 연령이 17세로 드러난다. 개개인의 형편에 따르거나, 마을 바다의 됴됨이 따라 늦이 시작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인 줄 안다. 현지 조사에 따른 물질 시작 평균 연령을 참고로 제시하면 한경면 용수리 해녀가 18.4세, 성산을 오조리 17.4세, 서귀포시 대포동 16.9세, 대정읍 가파리 16.7세, 우도면 15.9세로 드러난다.113)

111) 차임화(1936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12) 김정자(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13) 제주도, 앞의 책, 1996, 삼화인쇄사, 261-262쪽.

2012년 해녀 박물관이 실시한 「구좌읍 하도리 해녀 기초 생활 설문조사」에서도 첫 물질 시기에 대해 전체 112명의 해녀 중 무려 85%가 10대에 물질을 시작한 것으로 대답했다. 114)

아기 해녀가 자립해서 해녀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독자적인 한 명의 해녀로 바다에 나가기까지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제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물질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천의 얼굴로 모습을 바꾸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에의 완벽한 적응은 없다. 해녀들의 해상사고에서 60대 이상의 해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이를 설명한다.115) 이처럼 해녀들의 물질은 완벽한 숙련이란 있을 수 없고, 완벽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작업이다. 물때를 이용하고 조류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몸, 해저의 지형을 머릿속에 익히고, 해산물의 생태를 파악해 서식지를 알아내는 지식, 갑자기 바뀌는 조류에 테왁줄이 엉켜 발을 휘감았을 때의 대처법, 갑자기 물려든 물안개로 인해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물을 찾아오는 법 등은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워 몸의 신호를 통해 감지해야 하는 기술이다.

눈이 팡팡 내리는 날이었어. 물질을 허당보난 갑자기 안개가 짝 끼는 거라. 앞이 하나도 안보여. 경혈 땀 빨리 나오젠 휘다보면 오히려 더 멀리 떠내려가는 수가 이서. 그럴 땐 가만히 파도 소릴 들어사 되어.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이 곳이야. 이거 다 우리가 물질 허멍 지냥으로 알게 된 거.116)

(눈이 평평 내리는 날이었어. 물질을 하다 보니 갑자기 안개가 짝 끼는 거라. 앞이 하나도 안보여. 그럴 때는 빨리 나오려고 헤엄치다 보면 오히려 더 멀리 떠내려가는 수가 있어. 그럴 땐 가만히 파도 소리를 들어사 돼.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이 물이야. 이거 다 우리가 물질 하면서 스스로 알게 된 거.)

막 물질을 배울 시기였어요. 한 4년 차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해에 미역이 풍년이었어요. 욕심이 나서 망사리가 가득 찰 정도로 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테왁은 무겁고 물으로 나가려 발버둥 쳐도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서 제 테왁에 매달린 망사리의 줄을 끊는 거예요. 온종일 작업한 미역인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물에 나오고서야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조류에 떠밀려가서 조난됐을 거예요.117)

114) 조사 결과 15세 이전이 16명, 15~16세가 18명, 17~18세가 34명, 19~20세가 27명으로 집계됐다.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해녀박물관, 2012, 81쪽).

115) 제주소방안전본부, <https://www.jeu.go.kr/119/promote/news.htm?act=view&seq=1348291>, (2022.11.25.)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제주 해녀 안전사고 발생은 70대 24건(45.3%), 80대 15건(28.3%), 60대 8건(15.1%) 순으로 60세 이상 사고 비율이 88.7%로 나타났다.

116) 강영희(1953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17) 채지애(1983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이처럼 해녀들의 몸은 조류와 파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기상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뿐 아니라,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도 감지해내야 한다. 때로 해녀들의 몸은 상어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물때와 해녀들의 생리 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되면, 해녀들은 초긴장 상태가 된다. 해녀들 사이에는 바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구전으로 전해 오는 데 ‘상어떼가 해녀의 피의 냄새를 맡고 온다.’라는 속설도 그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해녀들은 물때에 맞춰 몸의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약을 먹기도 하지만, 상어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물질하다가 뒤로 꼬리를 본 거라. 막 놀라서 손에 잡았던 물건이 물에 다 떨어지고... 막 헤엄쳐서 나왔. 정신을 잃지는 안해신디 가생이에 오니까 땀이 다나고 힘이 그냥 축...한 동안은 물질 못했지. 노래가지고.. 이 바다에서 한 서너 번 경했어.¹¹⁸⁾

(물질하다가 뒤쪽으로 (상어) 꼬리를 본 거라. 막 놀라서 손에 잡았던 해산물이 다 물에 떨어지고...막 헤엄쳐서 나왔어. 정신을 잃지는 않았는데 물에 나오니까 땀이 다 나고 힘이 그냥 축...한동안은 물질 못했지. 놀라서..이 바다에서 한 서너 번 그랬어.)

난 상어가 사람 잡고 바둥바둥하는 것을 봤대허난. 육지 작업 갔다가 상어가 사람을 탁 물영 막 살려달랑 바둥 바둥 허는 걸 봤. 안면도에서. 그 죽은 언니가 외도 언니야. 내가 처음으로 육지 물질 갔을 때 (상어가) 사람 다리를 팍 물고, 그 언니 눈이 컸었어. 큰 눈에 막 살려달라고 한 3분 ? 2분 새에 물영 들어가 버려. (시체도) 못찾안. (상어가) 모자 귓등으로 찢어 강 하지만 남안. 아예 (시체를) 못찾안.¹¹⁹⁾

(난 상어가 사람 잡고 바둥바둥하는 것을 봤다니까. 육지 작업 갔다가 상어가 사람을 탁 물어서 막 살려달라고 바둥바둥하는 걸 봤어. 안면도에서. 그 죽은 언니가 외도 언니야. 내가 처음으로 육지(바깥) 물질 갔을 때 (상어가) 사람 다리를 팍 물고, 그 언니 눈이 컸었어. 큰 눈에 막 살려달라고 한 3분 ? 2분 사이에 물고 들어가 버렸어. (시체도) 찾지 못했어. (상어가) 모자 귓등으로 찢어가서 하지만 남았지. 아예 (시체를) 못찾안.)

‘나잠(裸潛)’이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맞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바다의 모든 외부 환경을 몸이 그대로 느끼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녀들이 오랜 숙련 기간을 거쳐 물질 기술을 체득하는 이유는 해녀의 기량이 단지 미역, 소라, 전복을 찾거나 따는 기술이 좋다고 해서 유능한 해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다라는 대자연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오직 몸의 신호와 몸의 체험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118) 이순옥(1964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19) 김미옥(1964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살아남아야 하는 작업이 물질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혼자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경험의 기술이다. 이 혹독하고 외로운 숙련과정을 거치면서 해녀의 몸은 바다의 변화라는 바다의 언어를 기술로써 몸에 축적하는 것이다.

2. 물질과 몸의 수용-잠수 반사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해녀의 몸은 어떤 외적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해녀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주에는 각 마을 어장의 지형에 따라 해녀들의 물질의 방법도 다르다. 직접 바다로 헤엄쳐 나가 조업하는 ‘갯물질’과 어장까지 배로 이동해서 작업하는 ‘뱃물질’로 구분된다.

필자는 먼저 해녀의 몸이 바다에서 어떤 외적 환경에 노출되고, 그것을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해 해녀들의 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뱃물질’을 하는 해녀들이나, ‘갯물질’ 하는 해녀들에게서 잠수 직전에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입수 전에 얼굴을 바닷물로 적시는 행동이었다. 뱃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물안경을 닦으면서 반복적으로 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얼굴에 뿌리는 행동을 했고, 갯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테왁을 끌어안고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과정에서 얼굴을 바닷물에 적시는 행동을 반복했다. 필자는 해녀들에게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아무런 의미 없다”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뭘긴 뭐라? 얼굴을 바닷물에 적시는 거. 그냥 허는 행동이주. 얼굴을 바닷물에 적시면 바닷속도 바래지곡, 몸이 좀 편안해진다고 허카.¹²⁰⁾

(뭘긴 뭐야? 얼굴을 바다에 적시는 거. 그냥 허는 행동이지. 얼굴을 바닷물에 적시면 바닷속도 볼 수 있고, 몸이 좀 편안해진다고 할까.)

그거 준비 운동허는 거. 초초 나가면서 몸도 바닷물에 맞추곡, 초초 숨도 고르곡 허는 행동이 주게. 경안행 바닷물에 들어가면 몸이 노랭 숨도 잘 안나오곡. ¹²¹⁾

(그거 준비 운동하는 거. 차차 나가면서 몸도 바다에 맞추고, 차차 숨도 고르고 하는 행동이지. 그렇게 하

120) 김정자(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21) 차임화(1936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놀라서 숨도 잘 나오지 않고.)

필자가 계속해서 그 행동의 의미와 몸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자 해녀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의 해녀들은 잠수 전에 자신이 이 행위를 하는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했으나, 물질 경력이 짧은 젊은 해녀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물질 8년 차에 접어든 젊은 해녀의 구술이다.

처음에 물질 배울 때 삼촌¹²²⁾들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다들 얼굴을 바다에 적시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준비 운동하듯이 얼굴을 계속 물속에 적시면서 가는 거죠. 저도 처음엔 삼촌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했는데 좋은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서서히 바다에 적응한다는 느낌이라까?¹²³⁾

맨 처음 누군가에 의해 전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해녀들은 잠수하기에 앞서 바닷물에 얼굴을 적시면서 바다로 들어간다. 해녀들은 이 동작을 ‘몸을 바다에 담근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고, 그런 동작을 통해서 심신의 편안함을 느낀다고 공통으로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행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필자는 해녀와 잠수 조건과 환경이 비슷한 프리다이버¹²⁴⁾들의 잠수 조건과 반응을 살펴 보던 중에 해녀들의 이 행위가 ‘포유류 잠수 반사 (Mammalian Diving Reflex)’¹²⁵⁾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포유류 잠수 반사는 우리의 얼굴이 물에 잠길 때 촉발되는 다양한 생리 반응을 일컫는다. 오직 물속에서만 활성화되는 능력인데 얼굴을 물에 적심과 동시에 서맥(徐脈) 현상이 일어나고, 동시에 손과 발에 흐르는 혈류가 흉강, 즉 목과 횡격막 사이에 있는 가슴으로 이동한다. 이는 수압으로 폐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며 몸을 산소 절약 상태로 바꿔줌으로써 포유류가 물속에서 오래 잠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 반응이다. 실제로 잠수 반사가 일어났을 때 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1) 느린 맥박, 2) 심박수 감소, 3) 말초 혈관 수축 등의 현상이다. 폐는 혈액이 몰려 수압을 버티고, 말초 혈관은 수축하

122) 제주에서 웃어른에 대한 친근함의 표현으로 남녀 구분 없이 쓰는 호칭.

123) 김형미 (1977년생. 제주시 도두동).

12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4%84%EB%A6%AC%20%EB%8B%A4%EC%9D%B4%EB%B9%99>, (2022.11.18.),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공기 공급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하는 스포츠이다. 기본적으로 공기통을 사용하지 않으며, 극단적으로는 물안경과 진신 잠수복까지 배제한다. 공기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 잠수, 무호흡 잠수(Apnea Diving), 맨몸으로 잠수한다고 해서 맨몸 잠수(Skin Diving)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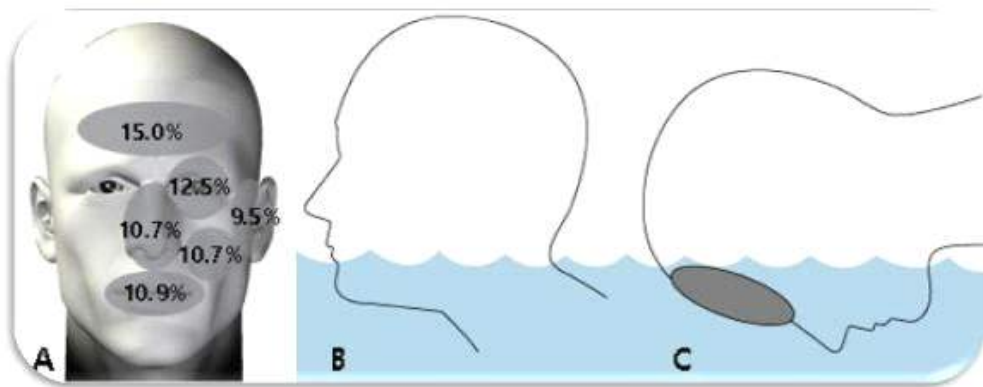
125) Philosophical Transactions B, DOI: 10.1098/rstb, 2020, 0349.

며 감각이 둔해지고, 시냅스들 사이의 신호 전달 속도는 느려져 뇌는 깊은 명상에 빠진 듯한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몸의 변화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와 같은 장기에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절전 장치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다.¹²⁶⁾ 따라서 1963년 생리학자 퍼 솔랜더는 포유류 잠수 반응(MDR)을 “생명의 마스터 스위치”¹²⁷⁾ 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원래 모든 포유류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인간은 육지에 적응하며 퇴화하였고, 바다에서 생존한 고래와 물범 등 해양 포유류는 모두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¹²⁸⁾

실제로 프리 다이빙을 배우기 위한 기초과정에는 ‘포유류 잠수 반응(MDR)’ 테스트가 있는데 물이 가득 채워진 용기에 얼굴만 담그고 심장박동 둔화반응, 즉 서맥(徐脈) 현상을 검사하는 필수과정이 동반된다.¹²⁹⁾ 인간의 경우, 이마와 눈 아래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물이 얼굴에 닿으면 MDR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자료-13 참조)

결국 해녀들이 잠수 준비과정에서 바닷물에 얼굴을 적시는 동작은 몸을 절전모드로 전환 시킴으로써 물속에서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제(機制)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녀들은 과학적 지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오랜 물질 과정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이 같은 몸의 변화를 터득하게 되었을 것이고, 점차 해녀공동체의 물질 기술로 공유하고 전수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13> 포유류 잠수 반사(MDR)의 과정 ¹³⁰⁾



126) Michael Panneton W, 『포유류의 다이빙 반응』, 10.1152, *physiol*, 2013, 97-284쪽.

127) 1963년 생리학자 퍼솔랜더가 포유류 잠수 반응(MDR)에 붙인 이름.

128) Brett A. Gooden M.D, Ph.D. 『Mechanism of the human diving response』 .

129) 2012년 BBC에서 방영된 TV쇼 “일반인과 프리다이버의 MDR 반응”이 화제가 됨.

<https://www.youtube.com/watch?v=C9AdaF4GVi8>

130) 영국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포유류 잠수 반응(MDR)을 수치화한 그림. 왼쪽 그림에 표시된 수치는 MDR의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생리학자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숙련된 자연 잠수부인 해녀들의 잠수역량이나 잠수 작업 중에 초래되는 생리학적 변화에 흥미를 느끼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수중 환경의 적응 현상이 단순히 훈련에서 얻어진 것인지 혹은 유전적인 소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훈련과 유전의 양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의 에드워드(Edward H. Lauphler)와 리차드 양(Richard A. Morin)은 해녀를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한 특수장치를 이용해서 해녀의 흉곽에 전극을 부착하여 100비트 케이블 끝에서 해녀들이 해저로 하강할 때의 심전도를 배 위에서 기록했다. 그 결과, 잠수 작업 준비 시 해녀들이 환기를 취할 때의 심박동 수는 1분 동안에 약 100이었으나, 잠수 후 20초에 70으로, 30초 후에는 60으로 감소하였다. 다시 해녀가 수면 위로 되돌아오면 심박수는 정상보다 약간 증가했다가 급속히 정상 심박동 수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했다. 131)

이러한 사실을 통해 포유류 잠수 반사의 특징적 반응인 서맥(徐脈) 현상이 해녀들을 수중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물질과 몸의 수용-수압

해녀들의 잠수와 수압은 필연적인 관계이다. 수중 환경은 우리가 사는 물과는 매우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있다. 수심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공기의 부피와 밀도도 변한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있어서 압력의 증가를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의 비어 있는 공간들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귀, 부비동(副鼻洞)¹³²⁾, 폐 등인데 특히 귀는 압력에 민감한 기관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는 등 압력변화에 가장 먼저 귀가 통증을 느끼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바닷속으로 잠수해 들어갔을 때 해녀들은 가장 먼저 어떤 몸의 변화를 느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60대 이상의 고령의 해

131) 강대원, 앞의 책, 1973, 53쪽.

132)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3815&cid=40942&categoryId=32319> (2022,11,19) 비강에 이어져 있고 주위의 골 속에서 볼 수 있는, 공기가 들어있는 장소(腔所)로 생체에 있어 두골(頭骨)의 무게가 이것의 존재로 감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강을 지나는 공기를 데우기도 한다.

녀들은 이를 잘 설명해 내지 못했다. 이는 표현력이 부족한 까닭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 부터 몸이 바다에 완전히 적응했기에 이를 새롭게 느끼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즉,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몸의 변화를 새로운 신호로 여기기보다는, 이미 체화(體化)된 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 아래 짙은 바닷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막 시보리¹³³되는 거 밖에...몸이 딱 조여드는 거.. 것 밖에 딱 건 잘 모르크라. ¹³⁴⁾

(물 아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막 조여드는 것밖에... 몸이 딱 조여 드는 거... 그것 밖에 다른 거는 모르겠어.)

난 숨은 긴디 귀가 아팠 짙은 바닷에 들어가지 못해. 귀에 염증이 있거나 중이염 있는 해녀들은 짙은 바닷에 들어가젠허른 힘들주. 귀를 막 때려부난...¹³⁵⁾

(난 숨은 긴 데 귀가 아파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해. 귀에 염증이 있거나 중이염 있는 해녀들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지. 귀를 막 때리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니까.)

귀가 막 뽀사부러. 귀 아팠 짙은 물에 들지 못행 평생 하군 바닷에서 작업하는 해녀들도 많허여. 귀가 막 아프민 들어가도 못허여 ¹³⁶⁾

(귀가 막 뽀는 것 같아. 귀 아파서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평생 하군 바다에서 작업하는 해녀들도 많아. 귀가 막 아프면 들어가지 못해.)

고령 해녀들이 인지하는 몸의 변화는 ‘몸이 조여드는 느낌’과 ‘귀의 통증’이라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축약되었다. 이번에는 바다 환경에서의 몸의 변화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물질 경력 10년 이하의 젊은 해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젊은 해녀들은 고령의 해녀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귀하고 눈. 그리고 침을 삼켜요. 거의 대부분 침을 삼키면서 숨을 조절하면서 우리는 귀를 달랜다고 하거든요. 천천히 들어가면서 귀를 적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귀가 이상해 이러면 침을 또 삼켜요. 그럼 또 더 들어가져요. 살살 달래면서 들어가죠.¹³⁷⁾

133) 옷의 소매나 밑단에 사용되는 신축성 있는 편성물.(일본어)

134) 양석봉 (1929년생, 제주도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35) 김정자 (1934년생, 제주도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36) 현순직 (1927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저도 귀에 수압을 가장 먼저 느끼죠. 비행기에 탔을 때랑 느낌이 다른 건 이게 압력으로 인해서 쪼이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라 해야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막 그냥 짝 누르는 느낌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우리는 그냥 꿀꺽 꿀꺽 침 삼키면서 서서히 적응하거나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코를 흥! 하고 내쉬어서 바람을 내보내기도 해요. 138)

필자는 제주도 도두동과 성산읍 삼달리의 해녀 총 35명을 대상으로 바다에 잠수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몸의 반응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표 6> 잠수 시 해녀의 몸의 증상

몸의 변화	증상	명	%
잠수시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	귀 압력 (혹은 통증)	19 명	54.2%
	가슴 압력 (혹은 통증)	4 명	11.4%
	잇몸이 찌릿하고 머리가 아픔	1 명	2.8%
	다리에 쥐가 남	1 명	2.8%
	머리가 어지러움	2 명	5.7%
	증상 없음	8 명	22.8%
잠수시 가장 먼저 하는 행위	침을 삼킴	22 명	62.8%
	코에 바람을 흥! 불어넣음	3 명	8.5%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음	10 명	28.5%

조사 결과 ‘귀의 압력을 느낀다.’라는 해녀들이 총 19명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가슴 압력’은 4명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잇몸이 찌릿하고 머리가 아프다.’ ‘다리에 쥐가 난다.’ ‘머리가 어지럽다.’ 등의 답변을 했다. 특징적인 것은 ‘귀’와 ‘가슴’의 통증을 느낀다는 총 23명의 해녀는 모두 깊은 바다에서 작업하는 상군(上軍) 해녀들이었고, 기타 증상을 열거한 해녀들은 상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바다에서 물질하는 중군들이었고,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해녀들은 하군 해녀들이었다.

두 번째 항목인 잠수 시 일어나는 몸의 반응에 대처하는 행위로 62.8%의 해녀가 ‘침을

137) 김형미 (1977년생, 제주도 도두동)

138) 채지애 (1983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삼킨다.’라고 대답했다. ‘코에 바람을 흥! 하고 불어 넣는다’라는 해녀도 3명으로 조사됐다. 역시 중군과 하군 해녀들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위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 종합해보면 해녀들은 수압으로 인해 귀가 막히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을 삼키거나 코로 바람을 내뿜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잠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행위이다. 해녀와 잠수 조건이 비슷한 프리다이빙의 세계에서는 이 동작이 잠수의 기본지침으로 등장한다.

수중에서는 단 1m를 하강하는 경우조차도 수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부비동(副鼻洞) 압착과 고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 평형(Pressure Equalizing)¹³⁹⁾을 해야 한다. 이를 프리다이빙에서는 ‘이퀄라이징(Equalizing)’이라고 부른다. 이퀄라이징의 방법은 놀랍게도 해녀들이 잠수 직후의 행위와 유사하다는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녀들이 구술한 대로 침을 삼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코를 막고 코를 풀듯이 흥! 하면서 바람을 불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코와 입으로 가지 못하는 공기가 이관(耳管)을 통해서 고막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압력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 방법은 아주 쉽고 빠르게 압력 평형이 이뤄지는 대신, 무리하게 시도하면 정원창 파열로 인해 귀가 오히려 아플 수 있다. 다른 방법들에 비해 공기소모량도 많아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¹⁴⁰⁾ 해녀들이 이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도 산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녀들은 프리다이빙에서의 이퀄라이징이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해 온 잠수 직후의 행위와 같다는 사실에 몹시 놀라워했다. 누구에게 배우거나 전수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몸이 그렇게 바닷속에서 스스로 반응하고 적응해왔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었다.

4. 물질과 몸의 수용-체온

1960년대부터 해녀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홍석기와 허만 란(Hermann Rahn)은 ‘한국과·일본 해녀의 생리 연구(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라는 제목으로 해녀의 잠수 양상과 호흡 기능, 순환 기능, 신장 기능과 체온조절 기능 등 생리학적 특성에 관해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이 연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단계는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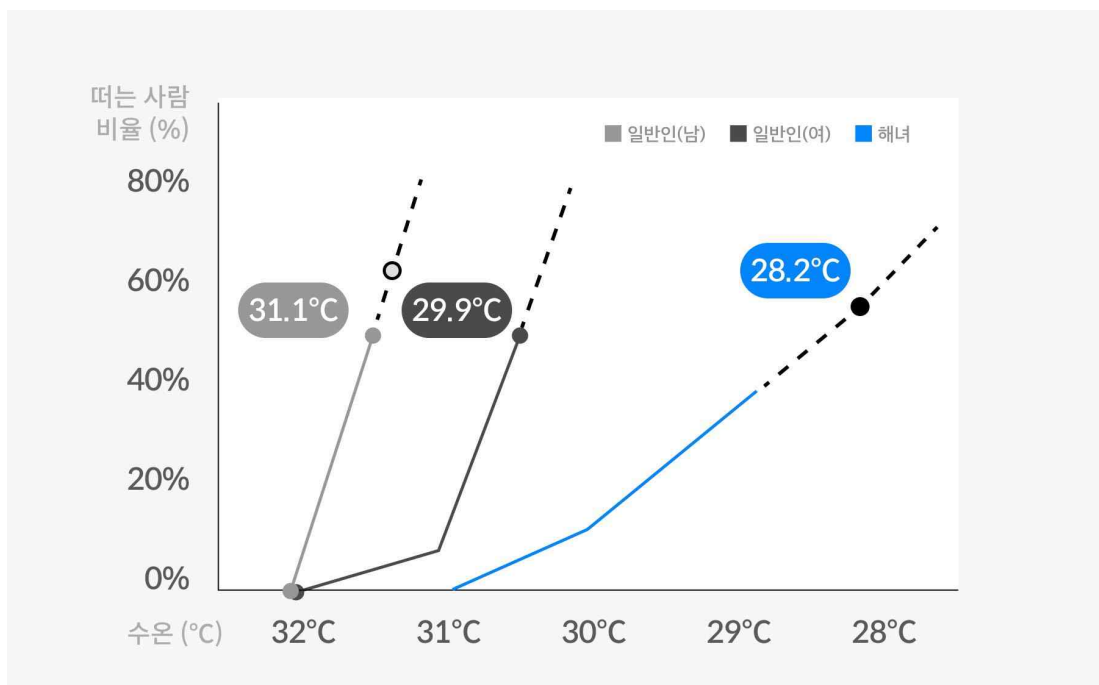
139) 이퀄라이징이라는 용어는 압력 평형(Pressure Equalizing)에서 가져온 말.

140) 이 방식을 프리다이빙에서는 발살바(Valsalva) 방식이라고 함.

년부터 69년까지의 연구로서 전통적인 물소중이를 입은 해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2단계는 1980년 이후의 연구로 고무 잠수옷을 입은 해녀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특히 해녀들이 싸늘한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 하는 내한력(耐寒力)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41)

이 연구에 따르면, <자료 14>에서 보듯이 해녀들은 남성이나 일반 여성들보다 차가운 물 속에서도 추위에 강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정상 남자의 경우 88 °F (31.1°C)에서 전율이 오고, 일반 여성들은 몹시 추워 달달 떠는 수온 82.8 °F (28.2°C)의 물속에서도 해녀들은 세 시간 동안이나 전율하지 않고 잘 견딘다는 것이다. 이 전율의 억제는 체열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리학적 변화라고 한다. 즉, 해녀들의 몸에서 내한력(耐寒力)이 발견된 것이다.

<자료 14> 제주 해녀와 일반인의 한랭 적응 능력 비교표 142)



해녀들에게는 물속에 들어가서 떨지 않고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랭 적응 동물에게는 발

141) 이 연구에서 한국 해녀의 경우 부산의 영도(影島) 해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영도 해녀들은 거의 제주 해녀들이 이주, 정착된 경우가 많으므로 실은 제주 해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연구는 해녀의 잠수 양상과 호흡 기능, 순환 기능, 신장 기능과 체온조절 기능 등 제반 생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모두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었다.

142) 좌: 여러 온도의 물 속에 세 시간동안 침수될 때 떠는 사람의 비율(1960년대).

우: 해녀와 일반인의 임계 수온의 비교.(1960년대), 박양생, 같은 책, 2004, 95-96쪽.

견 됐지만, 사람에는 발견이 안 됐는데, 우리 한국 해녀에서 옛날에 발견이 됐거든요. 또 겨울에 보면 해녀들은 기초대사량이 30% 정도 올라가요.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또 추울 때, 물속에 들어가면 피부에 혈관 수축을 시켜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적응이 있고, 이런 열 생산에 대한 적응, 손실을 방지하는 적응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종합백화점처럼 해녀의 몸에는 그런 적응 능력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¹⁴³⁾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해녀의 생리학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의 체온조절 기능이다. 우리의 몸이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이유는 체열 생산량과 체열 손실량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찬 곳에 노출되면 한동안은 그대로 견디다가 나중에는 떨기 시작한다. 하지만 해녀들은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추운 겨울철에도 기초대사율이 높아지고, 떨지 않고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증가하며(nonshivering thermogenesis), 찬물에 노출될 때 떨림을 억제하고, 체조직(體組織)의 열 절연도(絶緣度)를 높이는 능력이 발견됐는가 하면, 사지 말단의 혈류량을 줄여 열 손실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¹⁴⁴⁾

< 자료 15 > 한국과 일본 해녀의 연구 현장 ¹⁴⁵⁾



해녀들의 특별한 한랭 적응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박양생은 “해녀들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심한 한랭자극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받고 살았으며, 그 결과 독특한 한랭 적응 기전(mechanis)을 습득하였다.”라고 분석했다. ¹⁴⁶⁾ 즉 해녀에게는 특수한 유전적 요소가 존재하거나 선천적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에도 쉽 없이 물질을 하면서 해

143) 박양생, 필자 인터뷰, 2015. 6.12, 경기도 파주시 자택.

144) 박양생, 앞의 책, 2004, 108쪽.

145) 좌: Suk Ki Hong and Herman Rahn의 논문 Scientific American Vol. 216, NO. 5 (1967)에 게재된 사진 / 우: 당시 해녀들 체온 조사 현장. 박양생 사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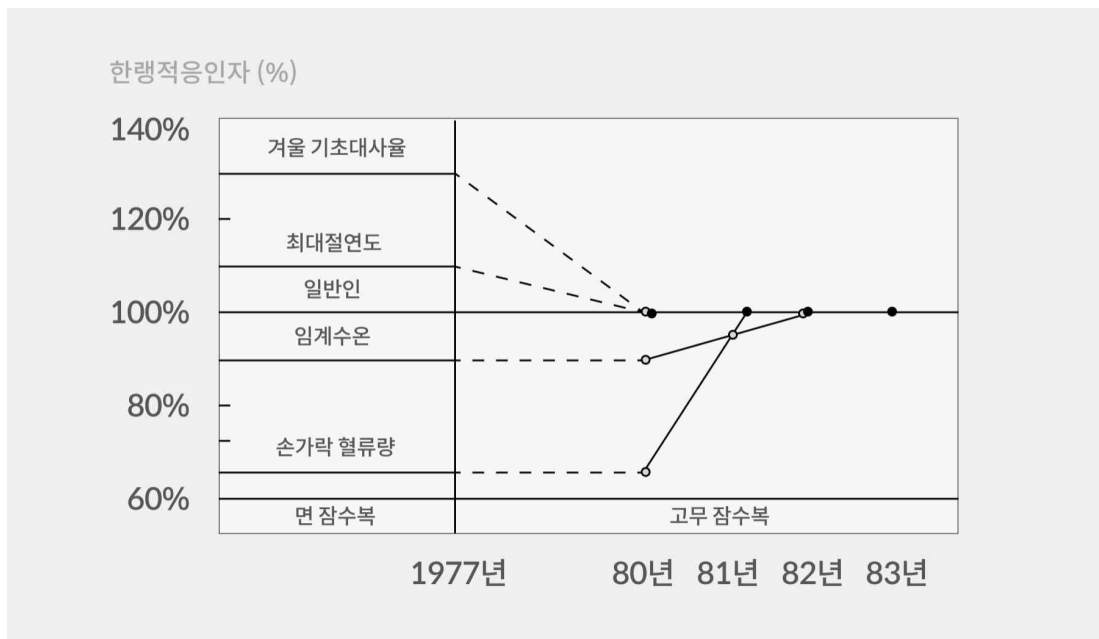
146) 박양생, 앞의 책, 2004, 108-109쪽.

녀의 몸이 한랭자극에 꾸준히 적응해 온 결과이다.

해녀들은 연중 잠수하기 때문에 겨울에, 겨울에는 남해안 수온이 7도 내지는 10도까지 내려가요. 거기서도 잠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스키모인에게서도 없는 어떤 인류 직업 집단에서도 못 보는 한랭 적응 현상이 있었어요. 이 적응 현상을 발표하면 외국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도대체 다른 인간 집단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한랭 적응 능력에 있어서는 해녀들이 세계 챔피언이에요.¹⁴⁷⁾

스피노자는 인간의 몸을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몸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나 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며 “몸의 한계와 능력은 몸과 그 몸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⁴⁸⁾ 이를 증명하듯이 1970년대 초부터 제주 해녀들이 고무 잠수옷을 입기 시작하자 해녀의 몸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고무 잠수옷을 입으면서 피부에 가해지는 극심한 한랭자극이 없어짐에 따라 과거에 습득했던 한랭 적응 기전들이 점차 소멸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료 16> 고무 잠수옷 착용 후 한국 해녀의 한랭 적응기전의 변화과정 ¹⁴⁹⁾



<자료 16>에서 보듯이 해녀들의 기초대사량의 증가 및 조직의 열 절연도 증가 기전은 고무 잠수옷 착용 후 3년 이내에 소멸하였다. 또 떨림의 억제 및 사지 말단의 국소 혈관

147) 박양생, 앞의 인터뷰, 2015.

148) 엘리자베스 그로스, 앞의 책, 2019, 50쪽.

149) 박양생, 앞의 책, 2004, 109쪽.

수축기전은 고무 잠수옷 착용 후 3년까지는 존속하였으나, 그 후 2년 이내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서서히 역으로 ‘탈적응(脫適應, deadaptation)’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로써 ‘세계 챔피언’이라는 칭찬까지 얻었던 해녀들의 내한력(耐寒力)과 적응 능력은 유전자가 아닌, 오랜 세월 해녀의 몸이 바다 온도에 적응하며 변화해 온 생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해녀의 몸이 바다 환경과 기후의 변화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몸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으며 존재해왔다는 것과 이러한 해녀들의 초인적인 능력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 속에서 무한한 반복 작업과 인내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IV. 물질과 해녀의 숨

1. 물숨

해녀들에게 숨은 물질의 가장 기본이자, 나잠 기술의 핵심이다. 수 세기 동안 해녀의 바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안경과 고무 잠수옷의 등장 등 물질 장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인공적으로 공기를 공급받는 방식만은 거부함으로써 해녀들은 나잠 어업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결국 ‘숨’은 해녀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들은 자신의 숨을 스스로 가두고 내보내는 법을 오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습득한다. 해녀들의 ‘물질’을 영어로는 ‘Plaining diving’이라고 한다. 여기서 ‘Plaining’이라고 표현함은, 해녀는 물속에서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고,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은 끊임 없이 움직이므로 불규칙한 물결과 큰 파도의 흐름에 몸동작을 맞추고 부력과 가시성이 변하는 것에도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폐 속의 산소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물속 위치에서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해야 한다.¹⁵⁰⁾ 이처럼 ‘숨’은 해녀들의 나잠 기술의 결정체이다. 해녀들의 숨은 살기 위해 멈추는 ‘숨’이다. 숨을 오래 멈춰야 더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있기에 숨이 끊어질 무렵에 이르러서야 물 밖으로 나온다. 언제,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바닷속에서의 작업은 숨의 ‘쉽’과 숨의 ‘멈춤’의 경계를 오간다. 이처럼 해녀들에게 숨의 단련은 곧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물은 점점 들어 가곡

흔저 빨리 굿디 가게

숨이 짚랑 호이 치명

흔저 빨리 굿디 가게

물은 점점 들어가고

어서 빨리 물에 가자

숨이 짧아 호이 불며

어서 빨리 물에 가자 ¹⁵¹⁾

해녀들은 오랫동안 ‘숨’에 의존해 물질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내밀한 숨의 세계를 만들

150) David W.Plath, 『Fit Surrounding : Lessons From the Ama,(환경에 대한 적응:일본 아마의 경우)』, 세계잠녀학술대회, 1997,161쪽. (좌혜경, 『제주해녀』, 대원사, 37쪽. 재인용)

151) 강대원, 앞의 책, 1973, 105쪽.

어왔다. 해녀들은 물 밖의 숨과 물속의 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고, 숨의 성격에 맞게 숨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다른 물질 기술과는 달리 ‘숨’에 대한 기술과 정보는 해녀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껏 해녀들의 숨의 세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장에서는 해녀들의 숨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녀들의 숨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숨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물숨의 정의

필자는 해녀들이 숨, 그중에서도 ‘물 밖의 숨’과 ‘물속의 숨’을 해녀들이 어떻게 운용(運用)하고 단련하는지에 대해서 오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당시 80대 대상군 해녀로부터 ‘물숨’이라는 낱말을 처음 채록하게 되었다.

해녀들은 물소고비서도 숨을 쉬. 베겔티서추록 숨을 들이마성 바끄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찹는 숨이 기냐 쫄르냐 허는 것이 ‘물숨’이지. 물에서 영 찹는 숨. 그거 보고 물숨이랜 햄주게. 경허난 물숨이 진 해녀들은 물건을 하영 잡아오곡 허는 거. 물숨 진 해녀가 최고라.

(해녀들은 물속에서도 숨을 쉬어. 밖에서처럼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서 찹는 숨이 기냐 쫄르냐 하는 것이 ‘물숨’이지. 물에서 이렇게 찹는 숨. 그거 보고 물숨이라고 하지. 그래서 물숨이 긴 해녀들은 물건을 많이 잡아 오는 거. 물숨 긴 해녀가 최고라.

질문: 물숨은 어디서 나오니까?

(가슴 가리키며) 여기서 숨이 나오거든. 심 어시믄 물숨도 어서. 심이 셔사 물숨이 나오곡. 심이 어시믄 물숨도 흐뎜 백이 안나와.¹⁵²⁾

(가슴 가리키며) 여기서 숨이 나오거든. 힘 없으면 물숨도 없어. 힘이 있어야 물숨이 나오지. 힘이 없으면 물숨도 조금 밖에 안 나와.)

필자는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멈춘 무호흡 상태로 작업한다고 생각해왔으나, 양할머니의 구술을 통해 ‘물숨’이 날숨처럼 표현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물숨’은 해녀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험한 숨이 된다는 사실도 채록하게 되었다.

물숨이 참 위험하지. 물숨이라고 하는 거는...해녀들 물에 가면 “맹심허라. 맹심허라 ” 허는 것이 이거라.

152) 양석봉 (1928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2011.5.1. 주흥동 자택에서 필자 채록.

물숨 먹영 죽으카부덴. 흐꿈 이상하믄 재기 나와사주 숨이 뽀따갈 때 나오믄 안돼. 물숨 먹영 죽어부러.153)

(물숨이 참 위험하지. 물숨이라고 하는 거는...해녀들 물에 가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것이 이거라. 물숨 먹어서 죽을까 봐서. 조금 이상하면 빨리 나와야지 숨이 다 돼갈 때 나오면 안돼. 물숨 먹어서 죽어.)

해녀들의 숨의 세계, 특히 욕심을 내는 순간 먹는다는 ‘물숨’은 영화 <물숨>¹⁵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70여 명의 해녀를 통해 ‘물숨’에 대한 성격과 그 특징에 대해서 다양한 구술 채록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뒤늦게 김영돈의 「제주의 해녀」¹⁵⁵⁾에서 ‘물숨’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물숨을 “해녀들이 깊디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는 동안 참는 숨”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세상에 진귀한 모든 것들은 진귀할수록 얻기도 어렵다. ‘빗창’을 질러서 전복을 떼려 하지만, 바위에 찰싹 붙은 전복은 쉬 떼어지지 않는다. 물속에서 참는 호흡, 곧 ‘물숨’은 가쁘다. (중략) 물속에서 참는 숨을 ‘물숨’이라 하는데 ‘물숨’은 길어야 2분까지다. 의욕만을 앞세우다가는 가다가 목숨을 여의는 불상사도 일어난다.¹⁵⁶⁾

망망대해에는 삶과 죽음이 함께 숨 쉰다. 해산물을 선사하는 바다지만, 물속으로 잠수하는 순간 눈앞에는 저승길이 오락가락한다. 대자연과 맞설 무기도 안전장치도 없는 나잠(裸潛)의 해녀들은 해마다 바다의 여신인 용왕 할머니께 제사(잠수굿)를 올려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동김녕의 잠수굿의 『요왕맞이』 ‘분부사뵈’에서도 ‘물숨’이 등장한다.

삼촌네건 나 조케야 흘목심영 해염시라 허민 조상에서 ‘물숨’ 먹을 일을 걷어주마. 걷어주마. 해연 분부 문안 입고. 쉰 흐 살아 쉰 흐 살아 오늘로 조상님들안티 다 고맙수덴 허라 고맙수덴 허라. 157)

(삼촌네 내 조카야. 손목 잡고 하고 있어라. 하면 조상에서 ‘물숨’ 먹을 일을 걷어가주마. 걷어가주마. 해서 분부 문안 입고, 쉰 한 살아 쉰 한 살아 오늘로 조상님들께 다 고맙다고 해라. 고맙다고 해라.)

153) 고계월 (1934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54) 고희영, 앞의 영화, 2016.

155) 제주도, 앞의 책, 1996, 322쪽.

156) 제주도, 앞의 책, 1996, 257쪽.

157) 강소진, 「제주도 잠수굿 연구-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잠수국은 제주도 해녀 문화의 정수이다. 곳에서 심방의 입을 통해 ‘물숨’이 전해져온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녀들 사이에서 통용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해녀들이 ‘물숨’, 특히 ‘물숨을 먹는 것’을 두려워해 왔고, 이를 불경스럽게 생각하거나 금기시해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필자가 물숨을 먹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해녀들은 “왜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숨 이야기를 꺼내느냐”, “채수가 없다.”, “기분이 섬찌그랑하다(섬뜩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언어로 사고하기에 의식은 언어를 넘어서기 어렵다. 또한 언어의 구체화는 그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그리고 비교·대조의 치열한 과정을 통해 차별성을 구축한다. 필자는 ‘물숨’의 명확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녀들의 구술을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져 올린 ‘물숨’의 의미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해녀들은 자신들만의 내밀한 숨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삶인지 죽음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해녀들의 자택 질은 숨의 ‘숨’과 숨의 ‘멈춤’의 경계를 오간다. ‘물숨’의 말 그대로의 정의는 물속의 숨이다. 의역하면 물의 숨과 달리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참는 숨이다. 인간 생명체로서 살기 위해 호흡하는 것이 ‘숨’이라면, 해녀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바닷속에서 참는 숨이 ‘물숨’이다. ‘물숨’은 모순적 의미를 내재한다. 말의 뜻 그대로라면 물속의 숨인데 바닷속이라는 공간은 인간이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이다. 필연적으로 해녀들은 물속으로 잠수할 때 물밖의 숨을 멈춰야 한다. 그런데도 해녀들은 물속의 ‘물숨’을 살아있는 숨으로 여기고 있었다. 왜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멈춘 숨’을 ‘쉬는 숨’으로 여기는 것인가.

해녀들은 물속의 숨이 인위적, 자발적으로 무호흡 상태로 전환했을 뿐,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다. 숨을 잠시 멈추었을 뿐, 생명은 살아있다. 그것은 비록 물속에서 멈춘 숨이지만, 언제든지 수면 밖으로 나가서 터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숨, 더 나아가 숨을 멈추었으나, 해녀들에게 바닷속 공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다. 즉 적극적인 생명의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물속의 ‘물숨’을 살아있는 생명의 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무호흡 상태가 길고 짧음에 따라 ‘물숨이 길다’ 혹은 ‘물숨이 짧다’라고 표현한다. 오래 견디면 ‘물숨’이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숨’이 나지 않아서 해녀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그래서 해녀들은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오늘은 물숨이 많이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결국 해녀의 숨이 길다는 것은 물속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 즉 ‘물숨이 길다’는 말이다. 반대로 숨이 짧다는 것은 ‘물숨이 짧다’는 뜻이다. ‘물숨’이 길면 바닷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잡는 양도 많아진다.

해녀들이 물숨이 긴 해녀를 부러워하는 것도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영화 <물숨>에서 ‘인간 잠수함’ 혹은 ‘바다의 포크레인’으로 불리는 김연희 해녀는 다른 상군 해녀보다 물숨이 두 배나 길었다. 물숨이 긴 만큼 그녀는 바닷속에서 여유롭게 해산물을 채취했고, 해산물을 찾아다니는 행동반경도 넓었다. 김연희 해녀는 금채기가 끝나고 소라작업을 시작하던 날, 하루 100Kg의 소라를 수확했는데 같은 바다에서 같은 시간 동안 작업한 다른 상군 해녀보다 두 배나 많은 수확량이었다. 158) 이처럼 ‘물숨이 얼마나 긴가’에 따라 그날 잡은 해산물의 양은 천차만별 달라진다. 해녀들의 주요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바닷속에서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즉 물숨이 길어질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몰리는 까닭이다.

또한 물숨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이 바쁘거나, 심기가 불편할 때, 곁에서 다른 해녀가 해산물을 많이 잡을 때면 해녀들은 공통으로 ‘숨조임’ 증상을 느끼고, 이런 상태를 “숨 뽕땅 물숨 안 남저 (숨이 조여서 물숨 안난다)”라고 말한다.

물질은 마음이 편안해야 물건도 더 잘 보이곡. 마음이 와랑 와랑 좇아지믄, 숨이 좁안 물숨도 안나. 마음이 지꺼진 날엔 물숨도 더 잘 나는 것 닐아.¹⁵⁹⁾

(물질은 마음이 편안해야 물건도 더 잘 보이고, 마음이 와랑 와랑 조급할 땐, 숨이 좁아져서 물숨도 안나와. 마음이 기쁜 날엔 물숨도 더 잘 나는 것 같아.)

만약 조깅디 툰 해녀가 왕 막 잘 잡아가믄 이상하게 물숨이 안 나. 마음이 막 와려져. 경험 땐 부러 해녀들 어신 먼 바당을 좇앙 가주.¹⁶⁰⁾

(만약 가까운 곳에 다른 해녀가 와서 막 잘 잡아가면 이상하게 물숨이 안 나. 마음이 막 조급해져. 그럴 땐 일부러 해녀들 없는 먼바다를 찾아가지.)

비단 해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물의 숨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긴장된 무대 위에서거나, 몹시 화가 나서 흥분 상태일 때, 경쟁상대가 옆에서 나보다 더 빨리 앞서갈 때 우리는 조급증을 느끼고, 숨이 더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흥분, 공포 등을 느끼게 되면 에피네프린(Epinephrine)이니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이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 등으로 혈류를 더 많이 보내게 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¹⁶¹⁾ 이런 숨의 심리적인 요인이

158) 고희영, 앞의 영화, 2016.

159) 강덕희 (1963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하교수동).

160) 김정자 (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물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로 ‘물숨’은 욕망의 숨이 되기도 한다. 그것을 해녀들은 ‘물숨 먹는다.’ 라고 표현한다. 해녀들은 물질 작업 중에 한두 번씩은 ‘물숨을 먹는’ 경험을 했고, 그런데도 늘 ‘물숨을 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고 고백한다.

해녀들 물숨 한번 안먹어 본 해녀들이 어서. 하영 욕심 부리면 먹지. 전복 욕심. 메역 욕심. 천초 욕심 부리다 보면 물숨을 먹게 되는 거라. 경허난 그 후론 좀 놀랑 숨이 흐쓸 남아 이실 때도 자꾸 미릿 나오 곡 허지. 아맹해도 짚은 디 가문 위험허난 이녁이 정신을 차리지. 가에서는 확 허른 나와도, 짚은 디 가문 이녁 숨이 실 때 나와사주 아니믄 죽어. 물숨 다 땡 나오지 못허여.¹⁶²⁾

(해녀들 물숨 한번 안먹어 본 해녀들이 없어. 너무 욕심을 부리면 먹지. 전복 욕심. 미역 욕심. 천초 욕심 부리다 보면 물숨을 먹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후로는 좀 놀라서 숨이 조금 남아있을 때도 자꾸 미릿 나오고 하지. 아무래도 깊은 데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물가에서는 확 하면 나올 수 있어도 깊은 데 가면 내 숨이 남아있을 때 나와야지 아니면 죽어. 물숨 다 돼서 나오지 못해.)

그거 다 욕심. 어뎡허당 전복 하나 봐지믄 그걸 잡아오젠 숨 다 되는데 허당보민 숨 다 돼서...욕심 안부리고 나와서 다시 가서 잡아와도 되는데 그거 못잡양오민 잃어볼카부덴 잡아오젠 허당보민.. 그것이 물숨 먹는 거. 한마디로 욕심, 욕심! ¹⁶³⁾

(그거 다 욕심. 어찌다가 전복 하나 보게 되면 그걸 잡아오려고 숨 다 되는데 하다보면 숨 다 돼서...욕심 안부리고 나와서 다시 가서 잡아와도 되는데 그거 못잡아오면 잃어버릴까봐 잡아오려고 하다보면...그것이 물숨 먹는 거. 한마디로 욕심 욕심!)

하이고. 사람 죽지. 죽은 사람도 있지. 물숨 먹어 가지고. 게난 숨 쪼르고 물질 못하는 사람들은 짚은디 숨버리 가쟁도 안허주만, 요자기도 물숨 먹영 까라얏는 사람을 나가 끄성 올령 살려 났주.¹⁶⁴⁾

(하이고. 사람 죽지. 죽은 사람도 있지. 물숨 먹어서. 그래서 숨 짧고 물질 못하는 사람들은 깊은데 잠수 하러 가지도 않지만, 요번에도 물숨 먹고 가라얏는 사람을 내가 끄집어 올려서 살려 났지.)

해녀들은 ‘물숨이 나지 않는 것’ 보다 ‘물숨을 먹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삶의 숨이 아닌 죽음의 숨을 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숨’을 인식하고 통제하

161) 프리 다이빙의 기초-프리 다이빙 생리학.

<http://freedivingexplained.blogspot.com/2008/03/basics-of-freediving-freediving.html>.

162) 양석봉 (1928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63) 김연희 (1960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삼양동).

164) 양석봉 (1928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고 단련시켜왔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숨의 한계를 알고 있다. 그래서 숨의 한계치에 이르기 전에 바다를 벗어난다. 그런데 그 한계를 잊게 하고 바다에 잡아두는 것이 욕심이다. 바다의 귀한 해산물들은 인간의 욕망을 자주 시험에 들게 만든다. 커다란 전복이나 소라들은 숨이 다 돼 물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발견되고, 그때 해녀들은 욕심에 눈이 가려 자신의 물숨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든 노장 해녀들이 초보 해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물질의 기술이 아닌 ‘물숨’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맹 잘허는 해녀도 한번 나왔던 딴 따시 찾아가기 힘들어. 옛말에 “해녀가 전복을 먼저 보민 틀 수 이서도 전복이 해녀를 먼저 보민 못튼다.” 는 말이 서. 뭇 말이나 허민 해녀가 물 밖으로 따시 나갔당 들어오민 전복이 그 즈름에 숨어버린다는 거주께.¹⁶⁵⁾

(아무리 잘하는 해녀도 한번 나왔던 곳은 다시 찾아가기 힘들어. 옛말에 “해녀가 전복을 먼저 보면 딸 수 있어도 전복이 해녀를 먼저 보면 못판다”는 말이 있어. 뭇 말이나 하면 해녀가 물 밖으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동안 전복이 그 사이에 숨어버린다는 거지.)

숨이 다 땡 나올 땐 아깝지. 분명 전복 붙은 자리를 봤신디 또시 가문 못찾아. 못찾아. 희한하게도 그디를 표시나 안허문 못찾아. 경허난 한번 봐질 때 트젠 허는거라. 만약 것이 큰 전복이다. 경허문 숨이 다 땡 나오젠 허민 아깝지. 또 들어강 못찾으면 며칠 눈앞에 전복이 알랑알랑 허여.¹⁶⁶⁾

(숨이 다 돼서 나올 땐 아깝지. 분명 전복 붙은 자리를 봤는데 다시 가면 못찾아. 못찾아. 희한하게도 그 곳을 표시나 안하면 못찾아. 그래서 한번 봤을 때 따려고 하는 거라. 만약 그것이 큰 전복이다. 그러면 숨이 다 돼 나오려고 하면 아깝지. 또 들어가서 못찾으면 며칠 눈앞에 전복이 알랑알랑하지.)

바다는 드넓고, 바다의 물건들은 은신의 재주가 뛰어나다. 신기한 것은 아무리 베테랑 해녀라도 바다 밖으로 나와 숨을 쉰 뒤, 곧바로 그 자리에 잠수해 들어가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해녀들은 숨이 모자라도 그 해산물을 봤을 때 따오려는 욕망에 시달린다. 과거의 해녀들이 사용했던 ‘본조갱이’¹⁶⁷⁾가 전복이 있는 자리를 표시하고, 무엇보다 물숨을 먹는 욕심을 경계하는 장치로 쓰였다는 점은 과거 해녀들의 지혜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바다의 황폐화로 값비싼 해산물들이 귀해지면서 어쩌다 큰 전복이라도 보는 날이면 욕망의 물숨은 해녀들의 눈을 멀게 한다.

165) 김정자 (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66) 이순옥 (1964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67) 고광민, 앞의 책, 한그루, 2019, 114-118쪽.

잘도 이상한 게 숨이 다 땡 나오당도 전복을 보면 욕심이 생경. 물숨이 더 이신 거 다투는 거라. 계란 뒤에 흘림 허는 거 주게. 경허당 보든 물에 올라오기가 힘들어 가당가당...¹⁶⁸⁾

(정말 이상한 게 숨이 다 돼서 나오다가도 전복을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나에게 물숨이 더 남아있는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무엇에 흘리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물에 올라오기 힘들어서 바둥바둥...)

결론적으로 물숨은 해녀들이 ‘물속에서 멈춘 숨이지만 살아있는 숨’을 통칭한다. 해녀 노래 속에 “수심 전복 많더라만은 내 숨이 짧아서 못 하더라.”¹⁶⁹⁾, “물은 점점 들어가고 숨이 짧아 호이 치며”¹⁷⁰⁾, “미역만 하다 보니 숨 막히는 줄 모르는구나.”¹⁷¹⁾라는 구절에 등장하는 모든 숨은 ‘물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멈춘 무호흡 상태, 즉 지식(止息) 잠수를 한다고 생각해왔으나, 해녀들의 구술을 통해 ‘물숨’이 날숨처럼 가슴 어딘가에서 나오는 숨이며, 그것이 해녀들에게는 살아있는 숨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물숨은 개인의 기량에 따라 차이가 나고, 때론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기분이 좋아지면 길어지고, 마음이 조급할 때면 짧아지기도 하는 숨이다. 물숨은 때론 욕망의 숨이기도 하다. 해산물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물숨을 초과하는 순간, 물숨은 언제든지 해녀를 집어삼키는 ‘죽음의 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녀들은 ‘물숨 먹는 것’을 경계하며 자신의 물숨을 다스리고 철저히 통제한다. 무엇보다 물숨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스스로 다스리거나 혹은 통제하는 사적(私的)인 숨이자, 정량화될 수 없는 수면 아래의 숨이다. 하지만 해녀들은 이 사적인 숨의 기술을 공동체 전체에 공유하면서 위험을 경계하고, 숨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더욱 숨의 세계를 넓혀왔다.

2) 물숨의 생리학적 분석

그렇다면 물숨을 먹었을 때 해녀들의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신의 숨을 초과한 물숨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물숨을 먹은 경험을 가진 해녀들을 대상으로 몸의 변화를 조사했다. 우선 ‘물숨’을 먹었을 때의 몸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물숨 먹영 호미도 다 데껴불곡 미역도 다 데껴불곡 막 위로 나오쟁 해도 물숨을 다 먹어부난 막 밋밋 까라앉는 거라. 까라앉는 것이 늘씩해정 나오민 뜨시 물속에 들어가젠 허여. 숨을 안 쉬멍 물소굽더라만

168) 김운자 (1962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하교수동).

169) 김영돈, 앞의 책, 민속원, 2002, 214쪽.

170) 김영돈, 앞의 책, 민속원, 2002, 214쪽.

171) 김영돈, 앞의 책, 민속원, 2002, 214쪽.

들어가젠 허여. 정신 돌아볼지. 경허명 까라앉는 거. 조끝이 사람 이시믄 살곡 어시믄 죽어. 172)

(물숨 먹어서 호미도 다 던져버리고 미역도 다 던져버리고 막 위로 나오려고 해도 물숨을 다 먹으니까 막 (몸이) 점점 가라앉는 거라. 가라앉는 것이 축 늘어져서 나오면 다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 숨을 안 쉬고 물속에만 들어가려고 해. 정신 잃어버리지. 그러면서 가라앉는 거. 곁에 사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어.)

나가 머리만 나오곡 테왁만 나오곡 안보이난 우리 언니가 드르명 왕 보난 나가 3분 1은 차차차차 내려감 서랜. 언니가 그냥 옷을 확 심영 땡기난 올라왕 테왁에 식영 밀영 온 거라. 난 정신 어서져븐거라. 가에 왕 죽영 자빠져부난 사람 죽엇던 막 외난 우리 형부가 그때 영양제 놓으난 탁 살아난. 경헨 나 살렸어.

173)

(내가 머리만 나오고 테왁만 나오고 안보이니까 우리 언니가 달려와 보니 내가 3분 1은 차차차차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더라. 언니가 그냥 옷을 확 잡아서 당기니까 올라와서 테왁에 실어서 나를 밀어서 온 거라. 난 정신을 잃어버린 거라. 물에 와서 죽어 자빠지니까 사람 죽었다고 막 소리치니까 우리 형부가 그때 영양제 놓으니까 탁 살아났어. 그렇게 나 살렸어.)

해녀들이 체험한 물숨의 기억 중에서 공통적인 점은 물숨을 먹는 순간, 몸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다 깊숙이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박 양생은 해녀들이 말하는 ‘물숨 먹는 것’의 현상을 생리학적으로 ‘과호흡 상태’¹⁷⁴⁾라고 설명한다. 아직도 숨(호흡)이 남아있다고 착각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실신하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경우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참지 못하고 숨을 쉬게 되는데 이는 혈중 산소 분압의 감소에도 기인하지만, 주원인은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이다. 특히 지식(止息) 잠수 시에는 폐압축으로 인하여 폐 및 혈액 내 산소 분압이 높게 유지되므로 지식(止息) 시간은 순전히 이산화탄소 분압에 의해 결정된다. (중략) 잠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물 밖으로 나올 때 폐 내의 산소분압이 혈액 내 산소분압보다 낮아져서 혈액에서 폐로 산소가 빠져나오게 되므로 산소결핍 상태(hypoxemia)에 빠지게 되는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된다(blackout 현상).¹⁷⁵⁾

그는 미국에서만 매년 7천 명의 익사자가 발생 되는데 그 원인은 직접, 간접으로 과도

172) 고계월 (1932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73) 양석봉 (1928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74) 과호흡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 호흡 중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정상 범위 미만으로 낮아지는 질환.

175) 박양생, 앞의 책, 2004, 34-35쪽.

호흡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¹⁷⁶⁾ 이러한 익사 사고가 해녀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많지 않은 이유는 오랜 경험을 통해 과도호흡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숨을 먹은 해녀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경우, 물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도 흥미롭다. 해녀들은 이를 “물숨을 찾아온다”라고 표현한다. 말 그대로 물숨을 먹은 장소에 가서 다시 자신의 물숨을 찾아와야 하는데 오랜 세월동안 해녀들의 숨의 세계에서 공유하고 전수하고 있는 ‘물숨 찾아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번 물숨을 먹으면 그 바닷만 즙끝디만 가도 막 모소왕 박박 털어져. 그쪽더랜 뵈리고정도 안허여. 암만 경해도 암만 못즌더도 딱시 물 아래 들어강 물숨을 좇앙와사 허는 거. 경해사 딱시 물질힐 때 지장이 없덴. 옛할망들 허는 말씀이 경헌거라. 물숨 먹영 막 노랬던 사람들도 암만 괴로워도 그디를 갔당 와사 딱시 물질을 힐 수 이서. ¹⁷⁷⁾

(한번 물숨을 먹으면 그 바다 근처에만 가도 막 무서워서 별별 떨게 돼. 그쪽으로는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물숨을 찾아와야 하는 거. 그래야 다시 물질할 때 지장이 없대. 옛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라. 물숨 먹고 막 놀랐던 사람들도 암만 괴로워도 거기를 갔다 와야 다시 물질을 할 수 있어.)

나가 물숨 먹영 삼일 만에 물질가난 그디서 물숨 먹어나난 노시 들어가지 못허연....들어가젠 허민 킅! 허멍 놀랭 못들어가난 강 요만이 들어강 참는 식으로 영 또 들어갔당 나오곡, 또 저만이 들어갔다 나오곡... 하루동안 강 막 그딜 억지로 들어갔당 나와서. 경헌난 뒷날은 가니까 그냥 해지대.¹⁷⁸⁾

(내가 물숨 먹고 사흘 만에 물질하러 가니까 거기서 물숨 먹은 뒤라서 절대 들어가지 못했어. 들어가려고 하면 킅! 하면서 놀라서 못 들어가니까 가서 요만큼 들어가서 참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또 저만큼 들어갔다 나오고... 하루동안 가서 막 거길 억지로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니까 뒷날은 가니까 그냥 할 수 있었어.)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해녀의 삶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저승문까지 다녀왔던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 그것은 물속에서 잃어버린 숨을 다시 찾아오면서 회복된다. 체념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다시 숨을 잃은 장소에서 나의 숨을 찾아오는

176) Crang AB Jr, Causes of loss of consciousness during underwater swimming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16, 1961, 583-586. (박양생, 앞의 책, 2004, 35쪽 재인용).

177) 김정자 (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178) 강기욱 (1936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방식이다. 그것은 마치 넘어진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다. 물속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다시 그 장소에서 극복하는 해녀들의 트라우마 치유법은 경이롭고 경건하기까지 하다.

또한 물질의 상태가 안정적일 때 해녀들은 ‘물숨이 바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랜 세월 해녀들이 만들어 온 숨의 세계는 이처럼 깊고 다양하다. 해녀들의 구술을 토대로 물숨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해녀들의 물숨 표현법

종류	의미
물숨	물속의 숨
물숨이 난다. (안난다)	물속에서의 숨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물숨이 바르다.	물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숨을 먹는다.	물속에서 자신의 숨을 초과했다.
물숨을 찾아온다.	물숨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낸다.

3) 물숨과 계층

해녀들은 정해진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에 들어가지만, 수확량은 천차만별이다. 이를 해녀들은 ‘내려갈 땀 한 빗, 올라올 땀 천칭 만칭 구만칭’¹⁷⁹⁾이라는 속담으로 표현한다. 해녀는 그 기량의 차이에 따라 상(上)·중(中)·하(下)군으로 나뉜다. 그 구분은 어획하는 기량에 따를 뿐, 반드시 연령(年齡)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동안 해녀를 연구해 온 학계와 언론들은 해녀들에게 상·중·하군이라는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무엇이 해녀를 구분 짓는가 하는 데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영돈은 해녀의 구분을 계층으로 설명하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을 ‘기량(技倆)’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적극적 어법의 생산기술자들인 해녀는 그 기량의 차이에 따라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른바, 상군(上軍)·중군(中軍)·하군(下軍)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분은 어획하는 기량에 따를 뿐, 반드시 연령의 높

179) 바다에 들어갈 때는 똑같지만, 나올 때는 수확량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뜻. (제주도, 앞의 책, 1996, 254쪽).

낮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적극적 어법인 해녀 작업, 곧 물질의 기량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도, 갑자기 숙달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수련에 따를 뿐이다.¹⁸⁰⁾

그는 ‘기량의 차이’가 해녀의 계층을 구분 짓는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해녀들의 기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수확량의 차이인가? 아니면 젊음과 힘, 혹은 물질 기술의 차이인가?

상군 해녀가 되는 조건은 복합적이다. 바람과 조류를 잘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바다의 지형과 해산물의 번식과 서식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물속에 자신의 몸을 적응시키고 시시각각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몸의 노련함도 필요하다. 이때 오랜 세월을 거쳐 나잠 기술을 저장하고 축적해온 해녀의 몸은 물질의 중요 기제(機制)이다. 그러나 필자는 해녀의 계층을 구분 짓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물숨’이라는 사실을 70여 명의 해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아무리 바다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나잠 기술이 뛰어난 해녀라도 깊은 바다에 잠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닷속에서의 숨의 길이, 즉 물숨의 길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녀의 계층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구분이 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녀들 스스로가 정한 계층이라는 사실이다. 해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질을 배우면서 스스로 자신의 물숨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그에 맞는 수심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물숨이 길이가 정하는 신체의 한계이다. 단적으로 하군(下軍)에 속한 해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군(上軍)의 바다에 진입할 수 없다. 고령의 해녀들이 숨이 짧아져서 낮은 바다로 내려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정해진 해녀들이 바다의 영역, 즉 해녀 사회의 바다 계층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녀들은 “자신들의 숨은 태어날 때 하늘이 주고, 바다가 허락해야 받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사실은 해녀들의 구술을 교차 확인 후에 얻은 결론이다.

질문: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상군이 될 수 있습니까?

안돼. 노력해도 그건 못올라가는 거. 올라가젠허믄 이녁 능력이 이서사 되어. 건 지 모름대로 되는게 아니주게 ”¹⁸¹⁾

(안돼. 노력해도 그건 못올라가는 거. 올라가려면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180) 제주도, 앞의 책, 1996, 225-235쪽.

181) 차임화 (1936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다 자기 숨이 있어. 그 숨에 맞게, 자기 들어갈 만큼만 들어가.”¹⁸²⁾

그건 노력현단행 되는 일이 아니주. 상군 해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도 없곡 처음부터 상군 바당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고, 나 같은 사람은 침부터 쭈욱 중군. ¹⁸³⁾

(그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상군 해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도 없고 처음부터 상군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고,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쭈욱 중군.)

그렇다면 왜 해녀들의 계층에 군(軍)이 쓰였을까? 이에 대해 김영돈은 산업역군(産業役軍)의 ‘군(軍)’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¹⁸⁴⁾ 과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도 청군, 백군 등 ‘군(軍)’의 사용이 많았다. 허남춘¹⁸⁵⁾은 무리를 뜻하는 ‘군(群)’이었으나 나중에 제국주의적 용어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해녀의 계층이 분화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일인가? 필자는 고령의 해녀들의 구술과정에서 상군 대신, ‘상잠수(上潛嫂)’ ‘상잠네(上潛女)’ 라는 명칭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해녀들은 물질 기랑과 바다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상(上) · 중(中) · 하(下)라는 계층을 만들었을 것이고, 예전에는 다른 호칭으로 구분되어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이후 시대상을 반영한 ‘군(軍)’ 혹은 ‘(群)’이 붙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2. 숨비

해녀들은 잠수했다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터뜨린다. 이때 해녀들의 입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이를 ‘숨비’ 혹은 ‘숨비소리’라고 한다.¹⁸⁶⁾ 해녀들에게 ‘숨비’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리, 근처의 해녀들에게 자신이 안전하게 물질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물숨이 사(死)의 경계에 선 숨이라면, 숨비는 생(生)의 소리가기도 하다.

그동안 숨비는 물숨과 대칭이 되는 숨으로 여겨져왔다. 물숨이 ‘긴 들숨’이라면, 숨비는 ‘긴 날숨’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숨비’에 대한 정확한 뜻은 아직 정립된 것이 없다. 해녀들도 숨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숨’의 의미는 명확하지만, ‘비’의

182) 강덕희 (1963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하고수동).

183) 김정자 (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홍동) .

184) 제주도, 앞의 책, 1996년, 132-135쪽.

185)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설문대할망과 제주 신화』 등을 저술했으며 제주의 신화와 무속을 연구해온 학자.

186) 제주의 지역에 따라 ‘숨비질 소리’ 또는 ‘숨비 소리’, ‘숨비질 소리’라고도 부른다.

의미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 오랫동안 숨비의 어원을 추적해온 필자는 ‘비’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가설을 세워보았다.

첫째, ‘비우다’라는 의미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따위를 들어 있지 아니하게 하다.” 즉, ‘비다’의 사동사이다.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것을 없게 한다”¹⁸⁷⁾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바닷속에서 오래 참았던 숨을 물 밖으로 나와 ‘비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날다”라는 뜻의 한자어 ‘비(飛)’이다. 이는 고유어와 한자말의 결합이다. 고유어와 한자말의 결합 어휘는 많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된장, 싸전, 녹초, 밥상, 들창, 뒷문, 걸상, 물림되, 날짜, 물통, 안방, 밤중, 달력, 곱창, 밀천, 싫증, 마땅, 온통 등이 그 예이다. ¹⁸⁸⁾ 만약 숨비를 고유어와 한자말의 결합으로 본다면 그 뜻은 ‘숨을 날린다’가 된다. 의미적으로는 가장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해녀들이 한자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지점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베다’의 의미이다. 사전적 의미는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 혹은 “이(齒)로 음식 따위를 끊거나 자르다.”라는 뜻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칼 혹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다’라는 말을 ‘비다’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손을 칼에 비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숨을 베다”. 혹은 “숨을 자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비’가 단독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라 ‘숨비다’가 ‘숨비’로 품사가 바뀐 사례로 보는 시각이다. 해녀들은 해산물을 채취하러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숨비다(혹은 조물다)’라고 표현한다. 언어는 보편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에 소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성을 여기는 예들이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즉,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각기 다른 통사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¹⁸⁹⁾ 따라서 ‘숨비다’에서 ‘숨비’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언어는 그 언어가 쓰였던 환경과 언어의 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네 번째의 가설, 즉 ‘숨비다’가 ‘숨비’로 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에 근거하면 ‘숨비’는 숨이라기보다는 ‘물질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내는 소리를 ‘숨비소리’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숨비’의 어원과 뜻풀이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는다. 이는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또한 해녀들이 숨비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숨비소리를 내는 환경에의 접근을 위해 필자는 해녀들의 구술을 통해 숨비소리를 내는 이유를 찾아보았다.

187)표준국어대사전

188) 이상은, 최규일, 「한국어 어휘형성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187쪽

189) 서경숙, 「영접사 설정과 관련된 몇 문제」, 국제어문 제63집, 2014, 105~133쪽

숨비소리 내면 몸이 개뻘해정 막 좋아. 물속에 가든 막 욕심해서 물 아래 물건할려고이 숨을 참당 다 되
영 나왕. 나오명 후이~ 하민 숨이 절로 나오는 거라.¹⁹⁰⁾

(숨비소리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막 좋아. 물속에 가면 막 욕심내서 물 아래 물건을 하려고 숨을 참다가
다 돼 나와서 나오면서 후이~ 하면 숨이 절로 나오는 거라.)

바닷 속에 들어간 참았던 숨이 절로 나오는 거. 연습한 것도 아니라. 숨비소리가 절로나. 경허면 가슴이
시원허지. 왜 숨비소리를 내느냐고? 흥뻘에 숨을 몰아쉬 재기 바닷에 들어가젠 쉬는 거 아닌가?¹⁹¹⁾

(바닷속에 들어가서 참았던 숨이 절로 나오는 거. 연습한 것도 아니라. 숨비소리가 절로나. 그러면 가슴이
시원허지. 왜 숨비소리를 내느냐고? 한꺼번에 숨을 몰아쉬고 빨리 바다에 들어가려고 쉬는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저절로 자기가 자기의 숨을 만들기 위해서 내는 소리 같아요. 내가 다른 삼촌(해
녀)들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숨을 어느 정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에
요. 처음엔 저도 만나다가 진짜 힘들 때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나도..¹⁹²⁾

해녀 대부분은 숨비소리가 수면 밖으로 나올 때 저절로 나온다고 말한다. 숨비소리를 냈
으로써 숨이 조절되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숨비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숨을 만들기 위한 숨(들숨)’이라는 설과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기 위해 터뜨리는 숨(날숨)’이라는 두 가지 설로 요약할 수 있다. 해녀의 숨비소리에 대
해 강대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해녀들은 잠수 준비로서 5~10초간 경한 과도환기(過度喚起), 즉 과호흡을 함으로써 혈액에서 대량의 탄
산가스가 제거된다. 잠수 직전에 들이마신 공기의 용적은 폐활량의 85%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
녀들이 흡입량을 폐활량의 85%로 제한시키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폐 내 압력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하거나 또는 수중에서 체구가 뜨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¹⁹³⁾

해녀들은 입수 직전에 준비 호흡을 하면서 최대한 산소를 폐에 채우고 들어간다.

해녀들의 물질을 생리학적으로 연구한 박양생은 보다 정밀한 측정을 시도했는데 해녀가
잠수 직전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폐활량의 약 80%까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잠수한다

190) 고계월 (1932년생.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 우도면 오봉리 주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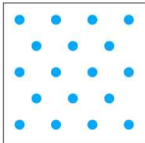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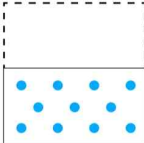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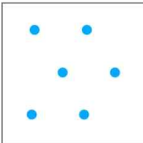
191) 이순옥 (1964년생.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 우도면 오봉리 주흥동).

192) 김형미 (1977년생. 제주도 제주시 도두동).

193) 강대원, 앞의 책, 1973, 51쪽.

는 것을 밝혀냈다. 이때 해녀의 폐 내의 산소 분압은 567mmHg로서, 안정 시와 비교했을 때 산소 분압은 다소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다소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194)

<자료 17> 잠수시 해녀의 폐기능 내 기체 분압 및 기체 농도의 변화 194)에 근거

폐포기체 (한국해녀)			
	잠수 직전	10m 해저	잠수 직후
			
O ₂	120 (17)	149 (11)	41 mmHg (6) (%)
CO ₂	29 (4)	42 (3)	42 mmHg (6) (%)
N ₂	567 (79)	1143 (86)	631 mmHg (88) (%)

하지만 해녀들이 잠수해 물질 작업을 하다 보면 산소는 소비되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난다. 이때 해녀들은 본능적으로 숨의 한계를 느끼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때 해녀가 수면으로 부상하면 폐가 다시 원상태로 확장되므로 폐 내 산소 분압은 <자료-17>에서 보듯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41mmHg), 이 때문에 해저에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는 혈액으로의 산소 이동이 심하게 감소 된다. 이때 수압과 밀도에 의해 축소됐던 폐의 용적율은 커지게 되는데, 따라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폐의 팽창으로 터뜨리게 되는 숨이 ‘숨비’이고 이때의 강력한 마찰음이 ‘숨비소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박양생은 “숨비라는 심호흡으로 인해 호흡량이 평상시보다 30%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 직전에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혹시 심한 과도호흡을 방지하는 일종의 호흡 조절행위가 아닌가?”¹⁹⁵⁾라고 추측했다.

결론적으로 ‘숨비’의 의미는 ‘숨을 비운다’는 의미와 근접하고, 해녀들이 참았던 호흡을

194) 박양생, 앞의 책, 2004, 23-24쪽.

195) 박양생, 앞의 책, 2004, 35쪽.

수면 위에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호흡 방법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더 명확한 이유와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3. 헛숨

해녀들이 바다에서 가장 먼저 쉬는 숨은 '헛숨'이다. 해녀들의 잠수 목적은 전복과 소라, 성게 등 갇나가는 해산물을 따는 것이다. 노련한 상군 해녀들은 단번에 그 바다를 찾아가지만, 그 근처에 이르러서는 그곳이 자신이 찾는 바다가 맞는지, 과연 전복과 소라가 많은 지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상군 해녀라고 하더라도 드넓은 바다의 수면 위에서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전복과 소라가 잘 열리는 지형을 선점해야 해녀들은 비로소 테왁을 정박할 수 있다. 이처럼 해녀들이 바다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맥질을 '헛숨'이라고 말한다.

망망대해 깊은 바다밭을 찾아가는 데는 그만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멀고 깊은 바다밭을 찾아가는 지혜가 바로 '가늌'과 '헛숨'이다. 바다가 육지라면 여러 가지 목표물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어디쯤에 위치하는가를 쉬 알 것이나 바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바다 위에서 자신의 위치한 곳을 알아내는 기술이 바로 '가늌'이다. 잠수들의 '가늌' 기술이 바로 바다밭 이름으로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도들봉난여'·'베리오름난여'·'개밭른여'가 바로 그것이다. 이곳 바다밭 만이 '가늌' 기술로만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의 바다밭들도 그 기술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196)

해녀들의 나잠 기술 중에서 '가늌'은 바다밭을 찾아가는 기술이다. 하지만, 깊은 심연의 바다밭들은 수면 위에서 눈대중만으로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헛숨'으로 알아내야 한다. 물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늌'으로 대강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자맥질로 물속으로 들어가 그 바다밭의 위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찾아내야하는 것이다. 즉, 해산물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밭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맥질이 '헛숨'이고, 헛숨의 활용은 해녀들의 고된 물질 노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지경에 강 그딤가 맞나 안맞나 들어가 보는 거, 그것이 '헛숨'이주. 헛것이라고. 돈 안 나는 숨이라고 허카. 전복 같은 건 요새 바당에서 구경헌 지 막 오래돼서. 계난 전복 한번 트젠허민 헛숨을 수백 번을 쉬어서 되카 말카. 해녀들 잠수 허는 거는 실은 다 헛숨이주게. 헛숨. 197)

196) 제주도, 앞의 책, 1996, 71쪽.

(그 근처에 가서 거기가 맞나 안맞나 들어가 보는 거, 그것이 '헛숨'이지. 돈 안나는 숨이라고 할까. 전복 같은 건 요새 바다에서 구경한 지 막 오래됐어. 그러니까 전복 한번 따려고 하면 헛숨을 수백 번을 쉬어야 될까 말까. 해녀들 잠수하는 거는 실은 다 헛숨이지. 헛숨.)

이 숨에 '헛'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이유는 해산물을 '수확한 숨'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수확하지 못한 숨'이라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여겨진다. 해녀들이 돈이 되지 않는 값싼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을 '헛물질'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97) 차임화 (1936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홍동).

IV. 해녀의 ‘몸’과 ‘숨’의 생태적 의미

1. 숨과 바다밭

해녀들은 인공적인 호흡 장비를 거부해왔다.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겠다고 아무리 해녀들이 욕심을 부려도 산소공급 장치가 없는 한, 숨을 참는 능력으로 통제된다. 즉 자신의 숨만큼 바다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욕심은 통용되지 않는 곳이 해녀의 바다이다.

해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된 공간인 마을 어장에서 공동으로 바다를 가꾸고,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해 온 공동체 문화이다. 혼자서 바다에 뛰어들어 함부로 물질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 놓은 규약과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또한 공동어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공동으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공동운명체이다. 해녀들은 공동으로 물때에 맞춰 잠수하고, 공동으로 물질 기술을 공유하고 후대로 전수한다. 해녀들의 물질 장비가 고무 잠수옷 이후 더는 새롭게 도입되지 않고, 물질문명이 발달한 최첨단 시대에도 인공적인 호흡 장치가 해녀 사회에 수용되지 않은 이유이다.

해녀들 허는 디는 공기통 매고 못허여. 그런 거 허믄 못허게 허주게. 공기통 헌 사람은 들어가민 숨 안 쉬고 계속 잡아붙는 물건이 어서질 거 아니라. 경허난 공기통 안 맨 사람은 헐 것이 없지. 해녀들 물질허는 바당은 그거 못하게 해.

(해녀들 작업하는 곳에서는 공기통 매고 못해. 그런 거 하면 못하게 하지. 공기통 맨 사람은 들어가면 숨 안쉬고 계속 잡아버리면 물건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기통 매지 않은 사람은 수확할 것이 없지. 해녀들 작업하는 바다는 그거 못하게 해.)

질문: 지금이라도 다같이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건 해녀들하고 의논을 해봐사지.다 동의 안하면 못허여.

(그건 해녀들하고 의논을 해봐야지. 다 동의 안하면 못해) 198)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산소 호흡하는 것도 잘못하면...지냥으로 허당 숨 다 되믄 재기 나올 수 이서도 산소 호흡허는 건 등에 짊어정 가사되난 막 더 불편하고 우리 보기엔 안좋아. 여기서는 경 허는 사람 없수

198) 김정자 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다. 이걸 약속이라부난. 그거(공기통) 하는 사람은 하영 허고, 안현 사람은 허쓸 밖에 못허곡... 우리들 약속이 있어서 허지 못허게 햄썩게. 서로서로 공평허게. 199)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산소 호흡장치하는 것도 잘못하면...(지금 장비로는) 혼자서 하다가 숨 다 되면 빨리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산소 호흡하는 건 등에 짊어지고 가야되니까 막 더 불편하고 우리 보기에는 안좋아.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약속이기 때문에. 공기통 맨 사람은 많이 하고, 안현 사람은 적게 하고...우리들 약속이 있어서 허지 못허게 합니다. 서로서로 공평허게.)

공기통 매곡 바닷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잡아볼거 아니? 경허문 후대에 해녀들이 뭘 먹고살 것이냐. 경행 우리 조상님들이 해온 약속이니까 똑같이 들어가게. 원래 허던 방식대로 허자. 경헌거주게 200)

(공기통 매고 바다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잡아버릴 것 아닌가? 그러면 후대에 해녀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해온 약속이니까 똑같이 들어가자. 원래 허던 방식대로 허자. 그렇게 한 거지.)

이처럼 제주 해녀들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물질 방식을 후대에 전승해왔고, 후대의 해녀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방식을 깨지 않았다.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물숨 먹는 것’을 경계하면서 ‘바다에서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후배 해녀들을 타이르면서 ‘오직 숨만큼만 바닷속에 머물기’라는 해녀 공동체의 묵시적인 약속을 지켜온 것이다.

해녀들만의 오랜 숨의 철학은 바다를 ‘바다밭’으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 반농반어(半農半漁)를 하는 해녀들에게 바다는 곧 밭의 연장이다. 그 밭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해녀 공동체가 함께 일궈나가는 공동어장, 공동의 농장이다. 데이비드 플래스(201)가 나잠업자인 해녀를 ‘트랙터를 가지지 않은 농민(소작농)’에 비유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이다.

해녀들의 바다밭인 나잠 어장은 법적으로도 공동어장으로 규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바다는 물의 밭과 달라서 마을 공동의 재산이다. 물의 밭은 개개인별로 나눠졌지만, 바다는 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공유한다.

해녀들의 물질은 해녀들의 자치기구인 해녀회(海女會), 혹은 잠수회(潛嫂會)를 중심으로 결속된다. 물질은 개별적 노동이지만, 집단적 노동이다. 물질을 나가는 것도, 물질을 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것도, 물질을 그만두는 것도 모두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물속의 작업

199) 공춘자 (1934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진흥동).

200) 채지애(1983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01) 데이비드 플래스(David W.Plath), 「환경에 대한 적응:일본 아마의 경우」, 『탐라문화』 18, 1997, 502쪽.

또한 어느 바다를 찾아가든, 어떤 방식으로 자맥질하든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해녀들의 바다는 공동어장이다. 해녀들은 그 공동의 바다밭에 함께 입어(入漁)할 권리가 가지지만, 그 바다밭을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를 동시에 수반한다. 때론 이웃 마을의 해녀들이 마을 바다밭을 침범했을 경우, 해녀들은 함께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마을의 해녀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갈 때 입어권의 소멸과 승계 문제, 그리고 새로 이사해온 해녀에 대한 입어권(入漁權)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공동체에서 결정된다. 매달 어떤 해산물을 채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동체에서 해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물질은 집단적인 공동체의 노동이다. 따라서 입어관행(慣行)은 불문율이지만, 해녀들은 이 관행을 법률 이상으로 엄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해녀들이 삶의 터전인 ‘바다밭’이 있다. 해녀들은 공동의 어장을 정원처럼 가꾸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남획을 경계하면서 바다밭이 풍요롭고, 무엇보다 재생 가능하도록 생태순환 환경을 조성해왔다.

바다의 문명사라는 관점에서 어로 기원 신화의 문명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던 송기태²⁰²⁾는 바다의 문화는 오랫동안 ‘어획(漁獲)’의 측면에 중점이 있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양식 기술이 도입되면서 바다도 육지처럼 경작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어경(漁耕)’의 공간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업의 핵심은 ‘심고 길러서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만, 어업은 기본적으로 심고 기르는 과정이 없이 수확하는 과정만 존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제주 해녀들의 의식 속에는 오래전부터 어경(漁耕)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주도 해녀들이 모시고 있는 바다의 신, 영등 신화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영등 신화는 영등할머니가 바다 건너에서 제주도로 오면서 농작물과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준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을 중심으로 의례와 신화가 전승되고, 풍어 의례에서 바닷가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영등 신화와 그 의례는 농경적 사고의 전이로 추정된다. 해안가의 해조류 채취와 패류 채취 과정이 경작 관념과 경작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영등 신화의 기본 토대는 농경에 있다고 보았다. ²⁰³⁾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와 열나흘날 사이에 제주도 해안가 마을의 본향당에서는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하여 풍어 및 해상안전과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전복·미역 등의 풍

202) 송기태, 「“어획(漁獲)”과 “어경(漁耕)”의 생태문화적 기반과 어업집단의 신화적 형상화-조기잡이 신화와 영등신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77-310쪽.

203) 송기태, 앞의 논문, 2012, 277-310쪽.

성을 기원하는 ‘영등굿’²⁰⁴⁾이 열린다. 「초감제」, 「본향뫼」, 「요왕맞이」, 「씨드림과 씨점」, 「마을 도액막음」, 「영감놀이」, 「배방선과 지드림」, 「도진」 등의 순서로 굿이 진행된다. 「씨드림」은 바다에 해산물의 씨를 뿌림으로써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²⁰⁵⁾ 해산물의 씨앗을 상징하는 좁씨로 씨점을 쳐서 어느 바다에서 어떤 종류의 해산물이 많이 날 것인지를 점치기도 한다. 소미²⁰⁶⁾들은 점괘를 해녀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때 좁씨를 바구니에 담아 해안가를 뛰어다니며 씨앗을 뿌리는 의식이 동반된다. 좁씨가 해산물의 씨앗이 되어 풍요로운 바다가 되어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해녀들의 바다밭에 대한 애정과 정성은 기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내 마을어촌계와 해녀회는 실제로 해마다 전복이며 해삼 등 해산물의 씨를 바다에 뿌리는 종패(種貝)사업을 펼친다. 또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금지와 채취금지를 비롯 해산물의 체장(體長) 길이를 정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표 8> 해산물 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어종명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금지 체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라 (구쟁기)						6.1-8.31								각고 7Cm
해삼							7월							
미역									9.1-11.30					
전복										10.1-12.31			각장10Cm	
툫									9.1-1.30					
천초	11.1-4.30													
오분작이														각장 4Cm
대문어														300g
성게														각경4Cm

204) 영등신은 2월 초하루에 와서 보름에 떠난다고 믿고 있기에 이 기간에 해안마을 곳곳에서 영등굿이 행해진다. 칠머리당영등굿에서는 음력 2월 1일 영등환영제, 2월 14일 영등송별제가 행해지는데, 영등굿 가운데 제주시 건입동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은 특별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라 하여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 <https://folkency.nfm.go.kr/kr/mainSearch/%EC%94%A8%EB%93%9C%EB%A6%BC>, (2022.11.30.).

206)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앞의 편,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399> (2022.11.10.), 수무(首巫)인 큰심방을 돕는 심방을 두루 일컫는 말. 소미가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접소미, 신소미, 수소미, 꽃소미, 안체포소미 등 여러 명칭이 쓰인다. 소미는 한자어 소무(小巫)에서 비롯된 말로 큰심방을 돕는 작은 심방이라는 뜻이다.

또한 제주도 전 지역의 해녀들은 해산물의 산란기인 7월과 8월에는 금채(禁採)기를 지정해 바다에 들지 않는다.²⁰⁷⁾ 또 각 해산물의 산란기와 생산량 수급 조절을 고려해서 전복은 10월부터 12월까지, 소라는 10월에서 5월까지, 해삼은 7월, 성게는 2월에서 10월까지 채취를 금지한다. 이같이 해산물의 금채기간을 정해서 철저히 작업을 규제해온 것은 해녀 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무엇보다 바다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관습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 흉년이 들면 바다에 해산물의 씨를 뿌리고, 해산물의 씨가 착지해 번식할 수 있도록 바위를 투석(投石)하기도 한다. 계절마다 바닷가의 바위와 돌에 돌아난 해초들을 제거하는 ‘바당풀 캐기’ 작업과 바다의 포식자인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일, 해풍에 물려온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도 해녀들의 몫이다. 백화현상이 생긴 바닷가 돌들의 백태를 일일이 골각지로 긁어내는 ‘갯닦이 작업’ 역시 해녀들의 연중 활동이다.

이처럼 해녀들은 바다의 정복자가 아닌, 오랜 세월동안 바다를 정원처럼 가꾸어온 바다의 경작자이다. 바다의 해산물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에서 해녀들의 숨의 철학은 빛을 발한다.

<자료 18> 해산물 채장 표식 ²⁰⁸⁾



207) [도표-4] 해산물 채취금지 기간 및 채장, 구좌읍 평대리 어촌계.

208) [그림-4] 어린 해산물을 잡지 않기 위해서 빗창에 해놓은 표식,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어촌계,

2. 해녀의 생태적 몸

해녀의 정체성은 ‘나잠(裸潛) 어업’²⁰⁹⁾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 ‘나(裸)’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벗은 몸’, 즉 아무런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녀들의 몸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바다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자 감시자이다.

그동안 제주도 바다는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 해녀들의 몸은 그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하면서 변화해왔다. 해녀의 생태적 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세기 말 근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이후 식민지 시장경제에 포섭되어 갔던 해녀의 몸이다. 일본이 점령한 식민지의 바다는 일본 잠수기 어선들의 침탈로 제주 연안 바다의 황폐화로 이어졌다. 그때 바다 자원이 어떻게 고갈되었는지 해녀의 몸은 체감했다. 그것은 곧 해녀들에게 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 물안경이 없어도 손에 닿던 전복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해녀들은 해산물을 찾기 위해 더 오래 바다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제주도 바다를 지배한 잠수기업자들은 제주도의 바다를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로 전복과 해삼을 채집하였는데 1879년에 1기에 불과했던 잠수기는 1906년경이 되면 300에서 400기로 증가하였다.²¹⁰⁾ 당시 제주도 연해에 몰려든 일본의 잠수기선은 “매일 전복 생패(生貝) 400관 내지 500관은 쉽사리 포획할 수 있었고, 그 남획(濫獲)으로 말미암아 힘껏 포획해도 하루에 50관을 넘는 일이 드물기에 이대로 두면 3년 내지 5년 안에 자원이 멸종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1892년 일본인 관택명청(關澤明清)의 「제주도 현지 조사보고」에 기록되었다.²¹¹⁾

제주 바다의 황폐화는 제주 해녀들에게 고향의 바다를 등지고, 바깥 바다로의 적극적인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바깥 물질을 나간 제주의 해녀들은 일본인 상인들에게 고용돼 신식 장비를 갖춘 일본의 잠수부들과 경쟁하기도 해야 했다.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일본 상인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해녀들도 많았다.

베짱 물질 갔을 때 곶이 간 해녀 하나가 막 무리행 물질허당 죽영. 늪의 바당이라부난 바당 속이 어멍흔 지 첨에 가문 모르주게. 계난 그디 강 며칠 안땡 죽어서. 그 영장 나가 물에 들어강 꺼녕 와신디 일본 전

209)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 : 나잠 어업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신고어업이다.

210) 稻井秀左衛門, 『조선잠수기어업연혁사(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朝鮮纖維協會, 1937, 15~16쪽. (이성훈. 「제주 여성사 II」, 『국내 출가 해녀』, 제주발전연구원, 2011, 259쪽, 재인용).

211) 제주도, 앞의 책, 1996, 516-518쪽.

주는 그래도 그냥 물질을 허라는 거라. 나중에 그 해녀 가족들이 그디까지 왕 영장을 모셔갔주. 베꼈물질 허당 죽는 해녀들이 하주. 놈의 바당에서 작업허는 것이 쉽질않혀. 212)

(바깥 물질 갔을 때 같이 간 해녀 하나가 막 무리하게 물질하다가 죽었어. 남의 바다니까 바닷속이 어떤 지 처음에 가면 모르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죽었어. 그 시체를 내가 물에 들어가서 꺼 내 왔는데 일본 전주(錢主)는 그래도 그냥 물질을 허라는 거라. 나중에 그 해녀 가족들이 일본까지 와서 시체를 모셔갔지. 바깥 물질 하다가 죽는 해녀들이 많았지. 남의 바다에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해녀들은 일본 무역상의 등장으로 해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의 노동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주체성을 잃고 일본인 상인에게 고용돼 남의 바다를 유랑하면서 식민지 시장경제의 혹독한 질서와 고단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두 번째는 1970년 전후, 고무 잠수옷의 등장과 함께 변화한 제주 바다의 변화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고무 잠수옷은 1969년에 처음 제주에 등장했다.²¹³⁾ 이의 수용을 두고 해녀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당시의 과장은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제주에 고무 잠수옷이 등장하던 시기가 해방 이후 연안 어업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수산업법은 1953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해 제주도에는 어업조합과 어촌계가 설립되었다. 1975년에는 수협과 더불어 어촌계가 마을 어장의 면허 어업권의 취득 주체가 되었으며, 특히 어촌계가 우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1976년부터 어촌계가 어업권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²¹⁴⁾ 그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존재했던 마을 해녀들의 조직은 어촌계의 해녀회(잠수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²¹⁵⁾ 이는 마을별로 바다의 영역이 정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곧 마을 해녀회와 어촌계는 자신이 속한 마을 공동어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마을 어장도(圖)의 측량으로 어장 경계가 문서로 만들어짐으로써 마을주민들에 의한 어장의 배타적 권리가 분명해진 시기였다. 즉 해녀들은 이동하기보다 자신이 사는 마을 앞바다에서 물질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연안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고무 잠수옷의 등장한 시기는 식민지 지배 체제하에서 전개되었던 제주도 해녀들의 타지에서서의 ‘관행적’ 입어권이 소멸하고, 마을 어장에 대한 해녀들의 어업권이 강해지던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는 해녀들의 어획물의 채취 양상에도 큰 변화

212) 김정자 (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213)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100년사』, 반석원색인쇄사, 2017, 278쪽.

214) 김승, 『어촌어업제도의 사회경제적 조사연구』, 향하사, 1999, 36쪽, (안미정, 『제주잠수의 바다발』, 2008, 61쪽. 재인용).

215) 안미정, 앞의 책, 2008, 69쪽.

가 있었는데 해녀들이 주요 채취물이 전복에서 소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라가 전복을 제치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이유는 일본으로 수출의 길이 열리면서였다. 국내 유통으로 한정돼 소비가 적었던 소라는 수출상품 부각되면서 1970년대 해녀들의 주요 채취대상인 이른바 고가의 “물건”이 된 것이다.

고무 잠수옷의 수용과정에서 해녀들의 갈등과 대립도 이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필자는 당시 제주 해녀공동체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렸던 고무 잠수옷의 수용과정에서 해녀사회와 바다 환경의 변화에 주목했다. 당시 제주도 당국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고무 잠수옷을 반대하는 해녀들의 의견은 고무 잠수옷을 입으면 추위에 강하고,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해녀들의 작업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산물의 남획이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제주 바다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당시 제주 일간지의 보도 내용은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도내 125개 해녀 공동어장(15,700ha)의 월별생산 계획량을 세워 이 범위내에서만 채취케 하고 각 어장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윤채(輪採) 조업을 실시, 집중 채취로 인한 자원고갈을 막기로 했다. 각 어장에서는 자원 증식을 위해 불가사리 등 각종 해적생물을 구제하고 갯바위 닦기와 새끼 전복, 소라 살포 작업을 실시 하며 매월 1회의 어장청소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어장과 투석(投石) 사업과 툫이식, 인공어초 시설사업도 실시, 해녀 공동어장에 대한 대대적인 자원조성도 병행기로 했다. 216)

1973년 9월10일자 <제남신문>도 “해녀 어장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행원리에서 60여년간 물질하며 살아온 박정열 할머니(78)의 기사를 싣고 있다. 이 마을은 고무 잠수옷이 도입될 당시에 해녀 전원이 이를 거부하고 전통 소중의를 입고 작업했던 마을이었다.

3년 전만 해도 1시간쯤 작업을 하면 5~7Kg의 전복 소라를 채취, 2천여 원의 벌이는 거뒀으나 요즘은 전복 채취가 매우 힘들며 소라 2~5Kg을 채취할 정도”라며 1종 어장의 황폐데감을 한탄했다. (중략) 천혜적인 자원만 풍부하다고 마구 채취만 해버릴수 없는 수자원, 이를 보호하고 더 가꾸어 내일의 부를 축적하기에 잠수들도 머리를 짜고 있다. 농번기에는 밭으로 나가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틈만 나면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는 이곳 잠수들이지만 작업능률을 높이고 어민소득도 올리기 위해 당국에서 권장하는 개량 잠수복 입기도 기피하고 있다. “ 217)

216) 『한국일보』,1988. 7. 13 일자.

217) “해녀 어장이 메말라가고 있다.”, 『제남신문』,1973.9.10 일자.

조업시간을 크게 늘이고,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다는 고무 잠수옷의 장점은 해녀의 몸에 심각한 직업병을 가져왔다. 1975년에 진행한 「잠수실태조사」를 보면 고무 잠수옷의 장점은 재래식보다 깊이 잠수할 수 있고, 입어에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아 겨울철에도 평상 작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지만, 허리와 다리가 꼭 조여 신경통, 두통의 원인이 되고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동작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으며 고무옷의 보급으로 작업능률의 향상에 따른 자원이 감소 되어 조합원이 적고 어장이 넓은 곳이라야 착용이 적합하다고 기록되었다. 218)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오랜 잠수 시간으로 인해 ‘잠수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수압으로 인해 생기는 두통을 잠재우기 위해 진통제인 ‘뇌선’을 남용하는 해녀들이 급증한 것이다. 제주 신문에 의하면 219) 도내 해녀들 중 97%가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거의 매일 또는 잠수 작업 전후에 상습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 의원이나 해녀 연구가들은 자원 고갈과 해녀의 건강을 위해서 고무 잠수옷 착용을 금지해야한다고 하며 다시 재래식 면제 해녀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는 심한 직업병을 앓고 있는 해녀를 보호하기 위한 해녀 조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제주도는 도내 6,300여 명의 해녀들의 공동어장 내 자원고갈로 수심 15m까지 잠수해 하루 4~5시간씩 무리한 작업을 감행하다 두통을 일으켜 진통제를 복용하고, 직업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자 “하루 4~6시간 월평균 15일의 작업 일수를 하루 3시간 이내 월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겨울철에는 수중작업을 1회 30분 이내 수심 10m 이하로는 잠수하지 말며 작업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체온을 유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방침을 정했다. 220)

결국 조업시간의 연장은 해녀들의 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일본 잠수기선의 싹쓸이 어업으로 황폐화된 제주 바다의 위기를 겪은 이후, 다시 해녀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바다밭을 흉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그 대가는 잠수병이라는 이름으로 해녀들의 몸에 각인되었다.

세 번째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감시자로서의 해녀의 몸이다.

해녀들은 한 달에 보름 정도 바다에서 조업한다. 해산물의 산란기인 금채기를 제외하고는 일 년 사시사철 변함이 없다. 그런 연유로 해녀들은 바다의 변화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다. 마을에 방파제 혹은 항구가 하나 들어서면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몸으로 직감한다. 농약과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바다 오염, 양식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바다의 생태계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해녀의 몸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해녀들

218) 수협중앙회, 「잠수실태조사」, 1975.

219) “해녀들 잠수병 갈수록 심각”, 『제주신문』, 1989.3.23 일자.

220) 앞의 보도, 『제주신문』, 1989. 3. 23 일자.

의 몸은 바다의 수온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다.

제주 바다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온의 상승이다. 2022년 8월 평균 수온은 제주시 용담 28.9℃, 조천읍 김녕 28.2℃, 우도면 27.6℃, 성산읍 신산 27.5℃, 서귀포 중문 26.6℃, 대정읍 가파도 28.1℃, 대정읍 영락 27.8℃, 한림읍 협재 28.4℃로 확인됐다. 가파도 평균 수온은 2018년 24.9℃, 2019년 25.4℃, 2020년 26.1℃, 2021년 27.9℃, 2022년 28.1℃로 4년 동안 무려 3℃ 이상 올랐다. 2010년 전후, 제주도 주요 측정지점의 8월 평균 수온이 대략 24℃ 전후였음을 감안할 때, 최근 10년의 제주 바다 수온 변화는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221)

<표 9> 제주도 가파도의 수온상승

년도	수온	상승폭
2018년	24.9℃	0
2019년	25.4℃	0.5
2020년	26.1℃	0.7
2021년	27.9℃	1.8
2022년	28.1℃	0.2

열 살 때부터 물질을 시작해 무려 87년 동안 물질을 해 온 현순직(1927년생) 해녀와 80여년 물질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정자(1931년생) 해녀, 차임화(1936년생)는 제주 바다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 온몸으로 감지해왔다.

바당에 가든 늦²²²⁾이 있거든. 돌에 맨틀맨틀헌 늦이 이서야 소라같은 거 점복같은 것들이 그 늦을 먹고 살았주게. 경헌디 그 늦이 없어. 바당이 흰 모살이 끼고 해영허게 변해부런.²²³⁾

(바다에 가면 이끼가 있거든. 돌에 미끈미끈하게 이끼가 있어야 소라 같은 거 전복 같은 것들이 그 이끼를 먹고 살고 있지. 그런데 그 이끼가 없어. 바다가 흰 모래가 끼고 하얗게 변해버렸어)

옛날엔 감태밭에 가면 소라가 많아나신디 이젠 감태밭이 감태가 하나도 어서. 성게들도 예전엔 다 바위 틈에 숨어서나신디 이젠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그것들도 먹을게 어시난 다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오느거지. 까보든 소라, 성게 속이 다 텅텅 비어. 먹을게 어시난 굶어 죽은 거라.²²⁴⁾

221)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수온상승으로 제주바다 '연산호' 생태계 바뀐다", 『제주환경일보』, 2022.11.22.일자.

222) 이끼의 제주어.

223) 현순직 (1927년생. 서귀포시 삼달리).

224) 김정자 (1931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옛날엔 감태밭에 가면 소리가 많았었는데 이젠 감태밭에 감태가 하나도 없어. 성계들도 예전엔 다 바위 틈에 숨어있었는데 이젠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그것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오는 저지. 까보면 소라, 성계 속이 다 텅비어 있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라.)

거 히한하대. 감태가 있던 자리에 꼭 카페트같이 생긴 이상한 말미잘이 바위를 싹 다 덮어버려. 옛날엔 거기가 감태밭이라났주게. 경헌디 감태는 다 녹아불국 살당 침 보는 이상헌 해초들이 막 생겨남서. 뉴스 보난 그게 저 외국 필리핀에 이신거랭헹게. ²²⁵⁾

(거 희한하대. 감태가 있던 자리에 꼭 카페트같이 생긴 이상한 말미잘이 바위를 싹 다 덮어버린 거야. 옛날엔 거기가 감태밭이었어. 그런데 감태는 다 녹아버리고 살다가 처음 보는 이상한 해초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 뉴스에서 보니까 그게 저 외국 필리핀에 있는 거라고 하대.)

해녀들의 몸이 감지하는 제주 바다의 이상 신호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갯녹음 현상과 감태와 모자반의 자리를 점령한 거품돌산호와 아열대 외래종들의 등장은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해녀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스며든 바다밭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바다의 변화를 통해 알고 있다. 해수온이 상승하면 어떤 해초와 해산물들이 차례로 사라지는지, 제주의 지하수가 오염돼 바다로 유입될 때, 항구가 건설되거나, 인공구조물이 설치될 때, 양어장의 오수가 배출될 때 바다의 생물체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해녀들을 목도(目睹)했다. 그런 의미에서 해녀들은 바다의 카나리아새²²⁶⁾이다. 오래전 광부들은 카나리아새를 데리고 탄광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일산화탄소와 메탄에 매우 민감한 카나리아새는 광부들에게 탄광 속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미리 알려주는 존재였다. 카나리아 새가 울면 탄광이 무너질 것을 알고 광부들은 몸을 피신했다. 이처럼 해녀의 몸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이제 제주 바다가 황폐화의 단계를 넘어 생태계가 파괴되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고,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인류에게 알리는 상징적 존재들이 되었다.

3. 인간과 바다의 공존

225) 차임화 (1936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226) 카나리아새는 일산화탄소와 메탄에 매우 민감한 새. 광부들이 탄광 속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미리 알기 위해 카나리아새를 데리고 탄광 속에 들어갔다고 전해짐.

바다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다. 바다는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어 무덤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바다는 삶과 죽음, 실존과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따라서 해녀들은 바다의 신을 섬긴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나잠(裸潛)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오직 숨에 의존한 채 삶을 일구고 공동체를 이어온 해녀들은 바다라는 대자연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물질 작업의 위험과 목숨을 건 작업으로 인해 생겨난 무속 신앙은 자연에 대한 숭앙(崇仰)이자, 인간과 바다의 공존을 위해 바다의 신에게 드리는 해녀들의 최선의 정성이자 염원이기도 하다.

실제 고품의 해녀들의 바다에 있는 요왕신(용왕신)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다. 심지어 물때와 조류, 바람 등도 모두 요왕신(용왕신)이 관장한다고 굳게 믿는다.

해녀는 용궁에서 태어난 요왕님이 사는 용궁으로 돌아간단. 해녀들이 갖는 말이주. 바다에는 용궁이 있대. 227)

(해녀는 용궁에서 태어나서 용왕님이 사는 용궁으로 돌아간대. 해녀들이 하는 말이지. 바다에는 용궁이 있대.)

바닷물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허는건 요왕님이 알았 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허는 거주. 물 때 되면 물을 올렸당 물 때가 넘으면 물을 내려주고...계난 해녀들이 요왕님 요왕님 허명 바다에 비는 거주게.228)
(바닷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용왕님이 알아서 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지. 물때 되면 물을 올렸다가 물때가 넘으면 물을 내려주고...그래서 해녀들이 용왕님 용왕님 하면서 바다에 비는 거지)

바다에 해산물의 씨를 뿌려주고 인간에게 해산물을 나누어주는 신이 살고 있다는 의식은 바다를 경외시하고, 인간을 겸손한 자세로 낮추는 해녀들의 내면 의식을 엿보게 한다.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존재는 용왕님과 바다에 해산물의 씨를 뿌려주는 영등신의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신을 숭앙(崇仰)하고, 인간 세계로 잠시 내려온 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영등굿에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놀이인 『악마희(躍馬戲)』가 있다. 허남춘은 이 놀이가 신을 즐겁게 하면, 신이 인간에게 풍요를 준다고 마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그 이면에 담긴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227) 차임화 (1936년생.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

228) 고희영, 앞의 영화, 2022.

영등굿은 바람의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절차인데, 그 사이에 신을 즐겁게 하는 약마희가 있다. 거세게 몰아치는 영등달의 바람은 무서운 존재인데, 이 질풍노도의 자연현상을 활력 있게 뛰는 말에 비유하여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바람처럼 달리는 말을 연상케 하는 말놀이를 벌이면서, 바람의 신을 달래고 즐겁게 놀면서,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는 정신이 약마희의 철학이 아닐까 한다.²²⁹⁾

그는 또한 이 영등제 기간에 금어기와 금채기를 두어 해녀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고, 제의와 놀이로 채우는 동시에 이 기간만은 바다도 쉬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해녀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은 속담에서도 잘 드러난다.

바당은 골로루 멕인다.²³⁰⁾

(바다는 골고루 평등하게 먹여 살린다.)

해녀들의 몸이 인식하는 바다는 평등과 공존. 함께 골고루 나눠 먹이는 식량 창고이며, 그것을 관장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바람의 신, 영등신과 바다의 신, 용왕(요왕)신 즉, 자연인 것이다. 해녀들이 바다에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나잠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욕망의 숨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바로 자연이라는 위대한 신의 영역에 인간이 욕심내지 않는다는 겸손함이 담겨있다.

229) 허남춘, 「제주도 약마희 신고찰」, 『구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구비문학회, 2019, 145쪽.

230) 해녀들의 속담.

VI. 결론

나잠(裸潛)의 환경 속에서 제주 바다의 변화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해녀의 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문화적 산물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주체라는 역할에만 한정되었던 해녀의 몸에서 벗어나 해녀의 몸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재정의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숨 쉴 수 없는 바닷속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숨을 멈추어야 살 수 있는 생리적인 몸, 시시각각 바다의 변화에 대응하며 나잠의 기술을 축적해 온 저장고로서의 몸,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관찰하고 감시하며 자연과 밀접하게 교감하고 있는 매개체로서의 몸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해녀 75명의 구술을 기반으로 해녀의 몸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외부적 주체에 의해 관찰되고 연구돼온 해녀들의 몸을, 당사자인 해녀 자신의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몸의 해석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인 해녀의 몸과 숨의 생태적 의미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세기 말 근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이후, 일본 잠수기선의 남획으로 순식간에 황폐해진 제주 바다를 그 누구보다 아프게 체득했던 해녀의 몸이다. 당시 해녀들은 자급 자족형 물질에서 벗어나 바깥 물질을 나서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얻었으나, 이는 식민지 시장경제에 포섭되어 임금노동자로서의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상인들에게 고용돼 일본의 잠수부들과 경쟁해야 했고, 물안경이 없었던 우리 해녀들에게 일본 상인들이 낚은 물안경을 매각해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은 고향 바다를 떠난 해녀의 몸이 얼마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1969년 제주에 처음 등장한 고무 잠수옷의 수용과 함께 잠수병을 얻게 된 몸이다. 고무 잠수옷의 등장과 함께 해녀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시기가 해방 이후 연안 어업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에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에 따라 마을 어장 경계가 문서로 만들어짐과 동시에 어장의 배타적 권리가 분명해진 시기였다. 또한 1970년대 소라가 수출상품으로 부상하면서 고소득원이 되자, 마을 어장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은 곧 해녀들의 수입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해녀들이 바다를 ‘바다밭’으로 인식 전환을 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고무 잠수옷이 가져다 준 물질 시간의 연장은 해녀들에게 잠수병과 두통, 신경통의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몸에 보내온 경고이자, 해녀들이 몸으로 체득한 아픈 경험이었다.

셋째,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몸이자, 바다 생태계를 감시해 온 해녀의 몸이다.

한 달에 보름 정도 바다에서 조업하는 해녀들은 바다의 변화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다. 인간의 이기심이 스며드는 순간,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해녀의 몸에 어떠한 후유증을 남기는지 기억하고 있다. 또한 바다밭이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이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도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해녀들은 자구책을 찾아 갯닭이 사업을 펼치고, 바다밭을 파괴하려는 개발의 바람에도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인 현대에도 해녀들은 아직도 ‘몸’과 ‘숨’에 의지하는 전통 방식으로 원시적인 물질 장비를 들고 바다에서 작업한다. 해녀들의 바다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비록 위험할지라도, 비록 수확량이 적을지라도, 숨만큼만, 몸이 견딜 수 있을만큼만 채취한다는 해녀들의 숨의 철학은 오랜 세월, 욕망을 통제하면서 바다와 공존해온 생태적인 몸이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 해녀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지만, 해녀들의 숫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제주 해녀의 숫자는 4500명, 2022년 현재 3500명으로 급감했다. 해녀가 사라지는 것은 바다밭의 오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대로의 속도라면 머지않아 해녀들이 다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제주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만약 해녀들이 다 사라진다면 첨단 수중 장비를 동원한 전문적인 잠수부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사실 첨단 수중 장비의 발달로 이제 해녀가 없이도 바닷속 해산물의 수확은 가능해졌다. 생산성에서 본다면, 오히려 해녀보다는 공기를 공급받으며 작업하는 잠수부 머구리와 스쿠버 다이버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바다는 해녀들이 지켜온 바다와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다. 어경(漁耕)의 눈으로 인간과 바다와 교감하고 공존해온 바다가 더 이상 아닐 것이다. 어획(漁獲)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다는 욕망을 통제할 장치가 없으므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몸’과 ‘숨’에 의존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켜왔던 해녀들의 ‘바다밭’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할 수 없는 비극의 바다가 될 것이다. 민속 지식과 물질 기술이 축적된 보고였던 해녀들의 몸도 해녀들의 생명의 소리인 숨비도 전설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현존하는 해녀의 숫자와 그 감소세가 이미 임계점에 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資料)

- 고희영, 영화 『물숨』, 2016.
- _____, 영화 『물꽃의 전설』, 2022.
- 이 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규창집』, 1629.
- 이형상,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제주시 소장본, 1994.
- _____, 『병와년도(瓶窩年譜)』 영인본, 청권사, 1979.
- _____, 「남환박물」, 『속탐라록』, 1702.
- 조선해통어조합회(朝鮮海通漁組合會),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제4호, 1903.
- 조정철,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1812.
- Sten Bergman, 1930년대 제주 해녀 사진, 스웨덴 세계문화박물관소장.

2. 편찬서(編纂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생업 기술 사진- 어업』, 국립민속박물관, 2021.
- 손대원, 『민물낚시 어구에 관한 연구-국립민속박물관 서병원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연구』 12 제34호, 국립민속박물관, 2018.
- (사) 세계 문화유산 보존사업회, 『통사로 살피는 제주 해녀』, 디자인오투, 2015.
- 수협중앙회, 「잠수실태조사」, 수협중앙회 기획조사부, 1975.
- 제주도(김영돈, 고팡민, 한림화), 『제주의 해녀』, 제주도 수산과, 1996.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여성사 II - 일제강점기』, 제주발전연구원, 2011.
- 제주도, 「제주 여성사 자료 총서 II·워크숍 자료 모음」, 『깨어나는 제주 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의 생업과 문화』, 해녀박물관, 2008.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도 해녀 투쟁의 사실』, 해녀박물관, 2022.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구좌읍 하도리 해녀 기초 생활 설문조사』, 해녀박물관, 2012.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조사보고서- 제주 해녀옷 이야기』, 해녀박물관, 2012.

3. 단행본(單行本)

- 강대원, 『해녀 연구』 개정판, 한진 문화사, 1973.
- 고광민, 『제주 생활사』, 한그루, 2016.
- _____,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한그루, 2019.
- 고희영, 『물숨, 해녀의 삶과 숨』, 나남, 2015.
- 김영돈, 『제주도 해녀 연구 서설. 성곡논총 1집』, 1970.
- _____,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_____, 『제주도 제주 사람』, 민속원, 2000.
-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上』 개정판, 민속원, 2002.
-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下』 개정판, 민속원, 2002.
- 박양생, 『한국 해녀- 잠수 생리학적 특성』,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4.
- 박청정, 『한국인의 지혜, 물때』 개정 증보판, 도서출판 일중사, 1998.
-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_____, 『한국 잠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2019.
- 엘리자베스 그로스(Elizabeth Grosz), 임옥희·채세진 번역,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꿈꾼문고, 2019.
- 유철인, 『문화인류학자의 자기 민족지 제주도』, 민속원, 2021.
-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이즈미 세이치, 김종철 번역, 『일본 문화인류학자의 30년에 걸친 제주도 보고서-제주도』, 여름언덕, 2014.
- 조규익, 이성훈, 강명혜, 문숙희, 『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 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민속원, 2005.
- 좌혜경, 『제주 해녀』, 대원사, 2015.
- 좌혜경, 고창훈, 권상철, 김동윤, 문무병, 박찬식, 안미정, 이경주, 정광중, 한림화,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5.
- 진관훈, 『근대 제주의 경제변동』, 각, 2004.
- 한림화, 『제주 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1987.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2011.
-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 신화』, 민속원, 2017.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 _____, 『제주도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_____,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4. 학술논문(學術論文)

- 강대훈, 「꼭게 잡서, 다시 오지 맙서: 제주 성산읍 해녀들의 바다거북 인식과 무속적 조상 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강소전, 「제주도 잠수곳의 연구-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고승환, 「제주 해녀의 사회 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제주발전연구 제8호, 2004.
- 김병규, 「잠수작업자 현황과악 및 건강장애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2005.
- 김병철, 「帝國主義と漁民の移動(1)」, 『國際關係紀要』9(1·2合 併号), 亞細亞大學國際關係研究所. 2000.
- 김 승, 「어촌 어업 제도의 사회경제적 조사연구」, 향하사, 1999.
-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민윤숙,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물질' 민속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韓國民俗學) 52, 2010.
- _____,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韓國民俗學) 55, 2012.
- 박찬식, 「제주인, 근대를 만나다」, 『불회공』 봄호,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 서경훈, 「영접사 설정과 관련된 문제」, 국제어문 제 63집, 2014.
- 송기태, 「"어획(漁獲)"과 "어경(漁耕)"의 생태 문화적 기반과 어업집단의 신화적 형상화-조기잡이 신화와 영등신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양나래, 김창화. 「제주도 패총출토 어패류와 어로구 소고(小考)」, 제주 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해녀박물관, 2016.
- 원학희, 「제주 해녀 어업의 전개」, 『지리학 연구』 제7집, 1985.
- 이상은, 최규일, 「한국어 어휘형성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9.
- 이성훈, 「해녀 노젓는 소리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지영, 「15세기 국어에서의 영변화」, 관악어문연구 제21집, 1996.
- 장현주, 「제주 전통 복식에 관한 실증적 고찰」, 『제주의 복식』, 제주대학교 박물관, 2010.
- 허남춘, 「제주도 약마희(躍馬戲) 신고찰」, 한국구비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2019.
- Julia K. Choate, Kate M. Denton, Roger G. Evans, and Yvonne Hodgson, 「Using stimulation of the diving reflex in humans to teach integrative physiology」,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Monash University,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2014.
- Michael Panneton W. 「포유류의 다이빙 반응(Mechanism of the human diving response)」 10.1152 /physiol. 2013.
- 稻井秀左衛門, 「조선잠수기어업연혁사(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朝鮮纖維協會, 1937.
- 大喜多甫文, 「潛水漁業と資源管理」, 古今書院, 1989.
- 伊地知紀子, 「제주 여성사 II」 『국외 출가 해녀』, 제주발전연구소, 2011.

5. 신문(방송) 및 전자 자료

『매일신보』, 『스포츠서울』, 『연합뉴스』, 『제남신문』, 『제주신문』, 『한국일보』, 『황성신문(皇城新聞)』, 『大阪 毎日新聞』.

6. 인터넷 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프리 다이빙의 기초-프리 다이빙 생리학”,
<http://freedivingexplained.blogspot.com/2008/03/basics-of-freediving-freediving.html>)

BBC TV Show “일반인과 프리다이버의 MDR 반응”,
<https://www.youtube.com/watch?v=C9AdaF4GVi8>